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金 呂 珠 教授指導

博士學位請求論文

企齋 申光漢의 文學意識 研究

- 官人文學的 性格을 中心으로 -

2013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孫 有 慶

# 企齋 申光漢의 文學意識 研究

- 官人文學的 性格을 中心으로 -

金 呂 珠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孫 有 慶

# 認 准 書

孫有慶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류준경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심경호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정재철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신영주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김여주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國 文 概 要

企齋 申光漢은 성종 15년(1484)에서 명종 10년(1555)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인물이다. 신광한이 성장하던 무렵은 정치적으로 士林派와 勳舊派의 갈등이 거듭되던 혼란한 시기였다. 또한 갈등이 극대화되어 표출된 己卯土禍라는 정치적 사건은 이 시기를 살았던 관료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예기치 않은 政爭에 휘말려 기반을 상실한 신광한은 이후 14년간 驪興에서 칩거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광한의 시 세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한 성과들이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의 시도는 그만큼 신광한의 의식세계가 복잡다단하며, 그로 인해 문학세계의 定型化 역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광한의 문학적 성향 및 사상적인 특징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의가 만들어지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광한 문학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16세기 사림파 문인들이 공유했던 시대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신광한은 관인의식보다는 도학적 지향에 비중이 실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도학적 성향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때, 그것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복잡한 내면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학자의 입장에서는 ‘도학적 지향’을, 관료의 입장에서는 ‘투철한 관인의식’을 문학세계를 통해 균일하게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재 신광한의 문학의식을 그의 관인 문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은 신광한의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복잡성을 그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관인의식과 연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어려운 시대

상황을 만나 복직이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료직을 수행하면서 드러내는 관료의식은 만년작에서만 나타난다. 하지만 향촌에서 우거한 청·장년기의 작품들 속에서도 정치적 재기에 대한 의지, 관료로서의 사명감은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역으로 드러난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작품들을 살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작품 창작 시기에 대한 결정이다. 각 작품에 그 창작 연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정된 창작 연대와 작품 서술 사이에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으면 신중히 재고하였다. 구체적 연구 방법과 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광한의 삶의 궤적과 유연한 교우관계를 살펴보았다. 『企齋集』 소재 작품들을 통해 드러나는 교유관계를 분석하여 도표화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교유했던 인물군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신광한이 己卯土禍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保身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우관계에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다음으로는 己卯土禍 이후 지어진 문학작품들을 분석하여 三分하고 그의 관인의식이 작품 속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細察하였다. 각 시기에 드러나는 시작품의 주된 정조와 자연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를 통해 의식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거주 환경이 작품에 준 영향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지역성과 문학작품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광한 문학만이 가지는 관인문학적 성격을 밝혔다. 그의 관인의식이 집약되어 드러나 있는 영사시와 외교시를 중심으로 여타 문인들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영사시에는 비판적이기보다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으며, 외교시에는 文才 표출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곧 신광한이 가지고 있었던 관인의식은 以文華國의 의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별 작품에 세밀한 분석과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연관 짓는 작업을 통해 己卯土禍 이후 신광한이 겪었던 복잡한 심리 상황의 결을 읽어내고 그것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6세기 관료의 고민과 그 고민을 표출해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들의 역할을 살펴계 되었으니 16세기 문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형성될 것이다. 작가의 생애 및 당시 그들이 가졌던 정신적 갈등 양상, 처세술 등을 유기적으로 살펴 이 시기의 연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	1
1. 研究 目的 .....	1
2. 研究 現況과 方法 .....	3
II. 生涯 및 交友關係 .....	12
1. 生涯 .....	12
2. 交友關係 .....	15
1) 親族 文人 .....	17
2) 己卯士林 官人 .....	24
3) 守領 및 處士 門徒 .....	31
III. 申光漢 文學의 時期別 樣相 - 己卯士禍 以後 作品을 中心으로 .....	34
1. 政治的 挫折 .....	37
1) 自嘲的 情緒의 表出 .....	37
2) 自然 玩賞을  통한 慰勞 .....	48
2. 隱遁과 活路 摸索 .....	62
1) 政治的 再起에의 信念 .....	62
2) 自然을 媒介로 한 交遊 .....	96
3. 出仕를  통한 經世 實現 .....	110
1) 官僚로의 自負와 官僚意識의 表出 .....	110
2) 自然으로의 回歸 意識 .....	122

IV. 申光漢 文學의 官人文學的 性格 .....	140
1. 鑑戒的 詠史와 批判意識의 不在 .....	141
2. 使臣 唱和와 文才의 表出 .....	150
V. 結論-文學史的 意義 .....	172

參考文獻

ABSTRACT

# I. 序論

## 1. 研究 目的

企齋 申光漢은 성종 15년(1484)에서 명종 10년(1555)까지 살았던 조선 중기의 인물이다. 신광한이 성장하던 무렵은 주지하다시피 정치적으로 사림파와 훈구파의 갈등이 거듭되던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이러한 갈등이 극대화되어 표출된 己卯士禍(1519년)라는 정치적 사건은 이 시기를 살았던 관료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기묘사화의 여파로 士林派의 절대적 지지를 기반으로 급진적 개혁을 통해 道學政治의 실현을 꾀하였던 趙光祖(1482-1519) 등이 숙청되었고, 그와 從遊하였던 여러 新進士類들도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신광한 또한 당시에 “어리석고 망령되게 서로 친하게 상종하였다.[愚妄徵逐]”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가 이듬해에 파직되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政爭에 휘말려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신광한은 이후 1538년(중종 33) 成均館大司成에 임명될 때까지 14년간 驪興[현 경기도 여주시]에서 칩거하였다.

유구한 역사를 살펴보면 政爭의 회오리가 지나간 후 남은 자들의 처신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의연히 관직을 버리고 평생을 外邑에서 隱居하면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학자의 무리와 일정 기간 낙향하여 寓居하다가 伸冤復職 후 관직 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정리하는 학자들이다.③ 두 가지의 경우 모두 표면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멀어져서 향촌 생활을 했다는 데에서는 동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으나, 당시의 낙향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隱居와 寓居<sup>1)</sup>로 나뉘며 그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

1) 隱居[隱逸]와 寓居라는 용어에 대해 그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는 학계에서 양자를 통상적으로 구별하는 기준점이 그 ‘지속성’에 있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隱居’는 永久인 것으로 ‘寓居’는 限時的인 것으로 의미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있다. 선비들에게 있어 謙讓之德과 安貧樂道는 공통적인 정신적 지향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재야에서 隱逸者로 삶을 마친 자의 인품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후학들의 평가가 복직하여 官僚로 만년을 보낸 자에 비해 더 후하였다.

그러나 16세기 한문학을 조명하는 데 있어 현전하는 자료의 양적 빈약은 폭넓은 연구의 진행을 제약하고 있다. 隱居로 삶을 마쳤던 자들이 남긴 시문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발굴된 작품만을 가지고 이 시기 문학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른다.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지향하던 사림과 중에서는 은둔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관료로서의 재기를 시도했던 문인들의 문학 작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애 및 당시 그들이 가졌던 정신적 갈등 양상, 처세술 등을 살피는 것은 이 시기의 연구에 있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공할 것이며 16세기 한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기묘사화 이후, 이른 바 ‘살아남은’ 신진 사류 중의 한 사람이었던 기재 신광한의 문학의식을 그의 관인문학적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광한의 문학 작품을 살펴보면 집약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분명 그의 문학에 있어 중요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어려운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그의 문학 작품에 스미어 있는 이런 다양성·복잡성의 원인을 그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관인의식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신광한은 학자의 입장에서는 ‘도학적 지향’을, 관료의 입장에서는 ‘투철한 관인의식’을 자신의 문학세계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그의 문학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16세기 사림과 문인들이 공유했던 시대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신광한은 관인의식보다는 도학적 지향에 비중이 실리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도학적 지향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때, 그것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복잡한 내면의식을 발견하게 된다. 본고는 신광한의 관인의식을 면밀히 살피고 관인의식이 문학작품을 통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다양한 면모를 살피고자 한다.

16세기 문학에 대한 연구의 양적 부족에 비한다면 신광한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교적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놓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들은 신광한의 문학 작품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의 분류 및 풍격의 분석에 집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시도하는 생애와 작품, 그리고 작가의 내면 의식과의 연계를 드러내는 작업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문학작품 분석의 배경적 보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신광한 문학을 좀 더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데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研究 現況과 方法

현재까지 확인된 『企齋集』은 서울대 奎章閣本과 고려대 晚松文庫本이 있다. 民族文化推進會에서는 原集과 別集은 만송본을, 附錄과 文集은 규장각본을 따라 影印·標點하여 『韓國文集叢刊』 22집에 수록하였다. 만송본과 규장각본을 비교해 보면 原集 12권은 兩本이 동일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나 만송본 권10의 補遺(賦)가 규장각본에는 권2로 編成되는 등 編次에 異同이 있다. 특히 규장각본에는 권3이 2部이나 중복된 내용은 없으며 권10은 빠져있다. 또 附錄 2권을 添錄하여 권13에 企齋의 祭文과 挽章, 권14에는 行狀(趙士秀 撰)과 墓誌銘(洪暹 撰)을 실었다. 文集 3권은 규장각본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別集 7권은 兩本이 내용 및 編次는 동일하나 板刻의 形態가 다르다.<sup>2)</sup>

『企齋集』에는 序·跋 등이 없어 편찬자, 간행자 및 간행 경위를 알 수 없다.

---

2)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문집총간해제-기재집」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企齋集』의 인쇄건을 申濬에게 물었더니 답하기를 “海州判官 任이 들여온 종이  
가 대충 30貼입니다.”라고 하였다.<sup>3)</sup>

다만 柳希春의 『眉岩日記草』에 실려 있는 위의 기사를 참고하여 癸酉年  
(1573)에 海州에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字形이나 板  
刻 형태로 미루어 原集과 別集이 먼저 간행되고 附錄과 文集은 후에 追刻·  
合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만송본과 규장각본을 상호 보완하  
여 影印·標點한 民族文化推進會의 『企齋集』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신광한의  
작품세계를 고찰하려고 한다.

『企齋集』에 수록된 신광한의 시는 1,255題, 1,513首이다. 그 중 7언율시가  
570수(38%)로 가장 많고, 7언절구 550수(36%), 5언율시 258수(17%), 5언절구  
54수(4%), 고시를 비롯한 기타 유형은 81수(5%)로 분류된다. 이 외에 賦(25),  
辨(1), 記(10), 志(1), 說(2), 論(1), 序(7), 筭(2), 狀(2), 碑銘·墓誌銘(11), 祭文  
(12), 文(4), 表箋(19), 銘(2), 歌謠(1), 歌詞(28)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sup>4)</sup>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작품들을 살펴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은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한 결정이다. 각 작품에 그 창작 연대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작품 창작의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企齋集』編次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창작 연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시작품만을 차례대로 나열해 본다.

시 제	작시 연대	수록 면 <sup>5)</sup>
挽金判府事(安國)	1543년(중종 38)	247b면
挽申參議(復淳)	1541년(중종 36)	247d면

3) 柳希春, 『眉岩日記草』卷4, 6면, 「癸酉年 六月初三日條」, “問企齋集開板于申濬 答曰 海州判官任之所入紙 大概三十貼”

4) 柳奇玉, 『申光漢의 企齋記異 研究』, 한국문화사, 1999, 39-43면을 참고하였다.

5) 『韓國文集叢刊』卷22, 『企齋集』의 면수를 따랐으며, 『別集』은 논외로 하였다.

시 제	작시 연대	수록 면
丙戌冬 姪女壻尹生來余學 以示之	1526년(중종 21)	259d면
閏臘立春後(丙申)	1536년(중종 31)	262a면
謝仁卿記問生日 <sup>6)</sup>	1530년(중종 25)	264c면
辛卯仲春初一日夜半 有人迷雪路尋村 乃許公清夫遣問也 卽事簡謝	1531년(중종 26)	267b면
甲午夏 僑寓孤山村舍 食不得醬 菜盤嘗鹽 戲書	1534년(중종 29)	270c면
再書信洽禪師詩軸 <sup>7)</sup>	1532년(중종 27)	272a면
甲午仲春閏月念五 鄉人作會于孤山松亭 見一村桃花盛開 景物可愛 後數日 因避瘴疫 僑居于此 暮春初吉 重作前會 座上口號 示諸子弟	1534년(중종 29)	277d면
挽朴參議(世翁)	1541년(중종 36)	296a면
甲辰仲秋望 玉堂諸公 會于訓練院 翫月 適入直都摠府 不能赴邀 爲賦一律示同直本館兩先生 求和	1544년(중종 39)	318c면
贈信性上人 嘉靖戊申正月朏後二日 夜久有扣門聲 適臥書齋 使童奚問之 則乃僧也 吾齋僻遠 雖新年 賀客不至 而僧之來 亦是適然也 與之坐 而問其所以來之意 則袖出一詩軸 求和甚勤 磴音足慰寂寥 況又能喜文辭耶 戲次首韻以與之	1548년(명종 3)	335d면
甲寅仲春初一日 病未參祭 賦律 以示諸兒孫	1554년(명종 9)	340b면
乙卯重陽日	1555년(명종 10)	340d면
挽李知事(賢輔)	1555년(명종 10)	340d면
癸丑立春書懷	1553년(명종 8)	341a면
甲寅菊月朏 駱峯書事	1554년(명종 9)	341d면
甲寅九月九日 士經(任權) 彥禮(尹思翼)諸公 會于上山臺 召與同遊 病不能赴 聊書一絕投奉 以佐粲然云	1554년(명종 9)	342a면
嘉靖乙卯夏 病中 聞有倭變 嘆未及救 書長律以寓意云	1555년(명종 10)	343a면

이를 통해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들의 次第는 기본적으로는 연

6) “更憐初度是庚寅[더 좋구나. 경인년(庚寅年)에 맞이한 이 생일이]”이라는 시구가 있다.

7) “壬辰正月既望 坐小亭待月 有敲門者 乃往年求詩僧信洽也[임진년[1532년] 정월 16일에 정자에 앉아 달을 대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곧 예전에 시를 구했던 신희스님이었다.”라는 夾註가 있다.

대순 編次를 의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연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작품들 간에도 적지 않은 착간이 보인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의 창작연대와 작시 배경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작품 분석에 있어서 연대순 편차를 의식하고 작품에 접근하되 추정된 창작 연대와 작품 서술 사이에 조금이라도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창작연대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재고해야 한다.

기재 신광한에 관한 연구는 蘇在英이 『企齋記異』를 발굴<sup>8)</sup>한 이래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企齋記異』 발굴 이후 신광한 소설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성과로는 소재영<sup>9)</sup>과 유기옥<sup>10)</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시문학에 대한 연구로는 尹采根<sup>11)</sup>, 沈慶昊<sup>12)</sup>, 류하영<sup>13)</sup>, 유호진<sup>14)</sup>, 吳賢淑<sup>15)</sup>, 姜縑瑛<sup>16)</sup>의 것이 있으며, 林采明<sup>17)</sup>이 그의 논문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를 발표하여, 企齋詩를 내용·풍격·수사 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표되는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소개해 보면, 윤채근은 훈구파와 사림파 양자 모두에 속해 있던 신광한의 중간자적 속성에 주목하여 그의 시에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내었다. 또한 그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정치적 입장이 그의 문학작품에서 자신의 비애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해내는 방식을 지양하고, 외적 경물에 자신을 은근히 이입하여 그 감정을 고도의 미적 감각으로 승화해내는 ‘淸幽感’이 배어 있는 시 짓기를 이끌어내

---

8) 蘇在英, 「申光漢의 企齋記異」, 『崇實語文』 3집, 崇實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86.  
 9) 蘇在英, 『企齋記異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10) 柳奇玉, 『申光漢의 企齋記異 研究』, 한국문화사, 1999.  
 11) 尹采根,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12) 沈慶昊,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太學社, 1999.  
 13) 류하영, 「申光漢 詠史詩 研究」, 『한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14) 유호진, 「申光漢 詩에 나타난 상상력과 사유 방식」, 『古典文學研究』 第38輯, 한국고전문학회, 2010.  
 15) 吳賢淑, 「企齋 申光漢 詩世界 研究」,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6) 姜縑瑛, 「企齋 申光漢의 詩世界 考察」,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17) 林采明,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었다고 분석하였다. 신광한이 훈구파와 사림파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에서 어느 쪽에 명확히 귀속될 수 없는 처지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신광한을 정계 복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지녔던, 무력하고 역사의식이 결여된 지식인으로까지 보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광한의 우거기에 드러나는 일련의 행동들과 그가 남긴 문학 작품들은 그가 정계 복귀를 希求했던 양상을 보여주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심경호는 신광한의 시세계를 일생 사적과 연관시켜 구분하였다. 신광한의 삶의 흐름을 따라 초기시 - 관동 시절 - 방축기 - 복권 이후 - 만년의 시세계를 살핀 후, 영사시를 별도의 항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작가의 작품을 그의 삶과 결부시켜 분석하고, 시풍과 표현 양상에 대한 영향성을 살폈다는 데에서 선행 연구 성과로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방법에 동의하면서 신광한의 생애 중 좌절기 이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어 좀 더 범위를 축소하고 집약하여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심도 있게 파헤치고자 한다.

유호진은 신광한의 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꽃·물·재·불·빛-들을 분석하여 시인의 상상력과 사유방식을 설명하려 하였다. 고정 이미지를 가진 시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관각문인으로서 본격적인 도학시의 세계를 펼쳐내었다는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연구자 역시 신광한의 작품들이 직설적이고 건조한 느낌을 주는 여타 사림파들의 시 작품들에 비해서 심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데에는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시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어들이라고 해서 그 시어들이 특정한 하나의 이미지와 곧바로 대응된다고 단언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강소영은 신광한의 시가 가지는 唐詩風的인 양상과 宋詩風的인 특질을 표현 기법의 측면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신광한 시에 드러난 회화성은 당풍의 영향으로, 산문적 진술은 송풍의 영향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았다. 기재시의 주요한 시풍을 宋詩風으로 볼 것인가 唐詩風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존 연구의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가 분분한 이유는

신광한의 작품 안에 宋詩風·唐詩風의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광한의 생애와 작품을 연계하여 볼 때 신광한의 정신적 지향은 宋風과 맞아 있었고, 실제 글쓰기가 추종한 바는 唐風에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광한의 작품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함을 이해한다면 그의 詩風을 단정하는 작업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채명은 신광한의 시를 내용·풍격·수사 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의 내용을 脫俗的 삶과 以文華國의 추구로 크게 구분하여 신광한의 寓居期와 官職期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이어 풍격과 수사를 통해 신광한 시 작품 전체가 자아내고 있는 미감과 개별 작품이 담고 있는 특징을 細察하였다. 이같은 신광한 시에 대한 폭넓고 精緻한 분석은 연구자가 기재 시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異見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연구자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신광한 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의 작품을 신광한의 생애와 그가 살았던 삶의 터전과 연계하였다면 신광한을 드러내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본고가 시도하려는 연구는 이러한 생각과 맥이 닿아 있다.

上述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된 다양한 연구 방향은 신광한의 시 세계를 다각도로 고찰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그의 시세계를 두고 이와 같이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시도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신광한이 살아온 삶의 흐름이 複雜多端하여 그의 의식세계를 단정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식의 發露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들 역시 定型化 하기 어렵다는 것을 傍證한다. 선행 연구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광한의 문학적 성향 및 사상적인 특징에 대해서 보편 타당한 정의를 내리기에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의 작품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이 지어지게 된 창작 배경과 작품을 지은 작가의 내면 의식 및 작품 창작 의도 등을 밝혀내는 것 역시 문학 작품 하나의 가치를 발견해 내는 작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판단으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그동안 신광한의 내면을 엿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의 사상적 경도·지역적 영향관계·외교 인식 등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던 연구 성과들이 있으며<sup>18)</sup>, 그러한 연구 작업들이 본고에 함께 녹아들어 있다. 본고는 ‘작가의 삶’과 ‘작가의 문학’이라는 두 개의 축을 併置해 두고 상호간의 긴밀한 관련성을 밝혀내면서 신광한의 문학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신광한은 투철한 관료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어려운 시대 상황을 만나서 쓰임을 받지 못했으니 장년기를 좌절과 실의로 지내야 했다. 따라서 관료의 신분을 지니고 드러내는 관료의식은 그의 나이 54세 이후에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신광한의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는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향촌에서 우거하였지만 그의 의식은 관료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의식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해서 역으로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관료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관료로서 자임하던 그의 의식을 관인의식이라 이름하고 그의 작품을 통해서 관인의식이 표출되고 있는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의 삶을 통해 그의 문학 작품이 구체화되며 작가의 문학 작품을 통해 그의 삶이 형상화되는 相乘效果를 기대하여 신광한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장에서는 신광한의 삶의 궤적과 유연한 교우관계를 살펴본다. 그가 己卯土禍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保身할 수 있었던 원인을 그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교우관계 속에서 밝히려고 하였다.

III장에서는 그의 다양한 문학 작품 중에서 己卯土禍 이후 지어진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企齋集』 소재 작품들의 창작연대는 단정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유 정황 및 내용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의 정치적 실각 이후에 지

18) 拙稿, 「企齋 申光漢의 意識世界에 대한 一考察 - 邵雍 欽慕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學論集』 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皇華集』을 통해 본 企齋 申光漢의 작가 의식 - 明使 張承憲과의 酬唱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研究』 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기재 신광한의 작가의식에 대한 일고찰- 驪興 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 『韓國漢文古典學會 2012學年度 夏季學術大會 發表資料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7.21.

어진 작품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작가의 생애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初年-中年-晩年の 분류법을 지양하고 신광한에게 있어 새로운 문학의 장을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인 기묘사화 이후로 논의를 집약하였다.

정치적 좌절-은둔과 활로 모색-출사를 통한 경세 실현은 신광한의 삼척부사 재임시절-여주 원형리에서 우거한 시기-복직 이후와 시기를 같이한다. 곧, 신광한에게 있어서 정치적 좌절기-모색기-재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문학세계를 三分한 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관인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의 양상에 주목한 결과이다. 각 시기에 드러나는 시작품의 주된 정조와 자연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광한의 관인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면서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이 세 시기는 신광한의 移居 기록과 구분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가 살았던 곳의 지역성과 그의 처지가 문학작품 창작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融解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함축적 성격을 지닌 시 작품 분석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광한의 산문도 함께 인용하여 논의를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신광한 문학의 관인문학적 성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의 관인의식이 표출되어 있는 영사시와 외교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관인의식이 드러나 있는 신광한의 문학작품들이 다른 문인들의 작품과 구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비판적이기보다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의식을 통해 그가 자신이 가졌던 관인의식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통해 결국 신광한이 가지고 있었던 관인의식은 以文華國의 의식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V장에서는 諸家の 평을 통해 신광한이 놓인 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광한의 영향 하에 있었던 후학들이 후대에 어떠한 문학사의

지평을 열었는가를 간략히 살펴 신광한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을 가늠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己卯土禍 이후 신광한이 겪었던 복잡한 심리 상황의 결을 읽어내고 그것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 작품 분석에서 폭을 넓혀 시도된 산문 작품과의 연계성을 살피는 작업은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좀 더 細察하는 데에 一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을 통해 신광한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관인의식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드러날 때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16세기 관료의 고민과 그 고민을 표출해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들의 역할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16세기 문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 II. 生涯 및 交友關係

### 1. 生涯

申光漢(성종15년(1484)-명종 10년(1555)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高靈이며, 字는 漢之·時晦, 號는 駱峰·企齋·石仙齋·靑城洞主이다. 할아버지는 領議政 叔舟이며, 아버지는 內資寺正 洞인데 그의 가문은 10대 동안 연이어 과거에 급제한 縉紳名閥로 신광한이 느끼는 가계에 대한 자부는 상당하였다. 조부인 申叔舟에 대해서 신광한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내 조부이신 文忠公[신숙주]은 대대로 쌓아온 연원을 이어받고 연이어진 큰 물결을 축적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문장으로 드러난 것은 금석에 새겨지고 서적으로 펼쳐져서 원고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전해졌다.<sup>19)</sup>

가문 대대로 쌓여온 문장의 흐름이 조부의 문장 면면을 통해 드러나니 세상에서 그 명성이 상당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신광한은 네 살 때 일찍 부친을 잃었기 때문에 申洞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못했다.<sup>20)</sup> 따라서 어릴 때에는 오히려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家僕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열다섯 살에 발분하여 현명한 스승과 친구에게 나아가 학업을 배우고 글을 읽자 몇 해가 안되어 우뚝하게 뻗어나게 되었다.

공[신용개]의 학문은 할아버지 文忠公[申叔舟]의 문하에서 연원하니 직접 배우고

19)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3b면, 「高靈世稿序」, “……吾祖文忠公 襲積累之淵源 蓄演進之洪流 其所措諸事業 發爲文章者 被之金石 布于方冊 不待稿之有無而傳也……”

20)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3, 425d면, 「…… 나는 일찍이 흥한 근심을 만나 태어난지 4년 만에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先親의 범도가 어떠하였는지조차 살피지 못하였다.……[余夙遭 凶閔 生年四歲 乃失所恃 未省先公典刑爲何如]」

영향을 받은 것에 근본이 있었다. (중략) 행하면 도가 되고, 얻으면(깨달으면) 덕이 되고, 표현하면 문장이 되고, 시행하면 업적이 되었으니 그 재능에 그 펼쳐냄까지 갖추었다. 밝은 임금을 만나 도와 덕이 들어맞으니 그 행실은 성대하고 그 성취는 융성하여 서적들에 남겨진 것들이 여러 경전과 비교해 보아도 크게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sup>21)</sup>

내가 三槐[신중호] 문장의 연원을 살펴보니 이미 文忠公[신숙주]의 두터움을 전수받고, 奉禮公[신주]의 깊이에 분발되었다. 또한 천성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서 시원하고 고매하며 기량과 재주가 빼어났다.<sup>22)</sup>

신광한이 신숙주의 손자이면서 자신과는 사촌관계에 있었던 申用漑와 申從濩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문장으로 당대에 인정받던 자들인데 신광한은 이들 문장의 연원이 신숙주에 있음을 짚어내고 있다. 이것은 자신의 가계가 지닌 문장에 대한 정통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니 그러한 가풍을 이어받은 스스로에 대한 상당한 자부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광한은 1507년(중종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0년(중종5)에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湖堂에서 사가독서의 특혜를 받았다. 1513년(중종 8)에 承文院博士에 등용되고, 이어서 弘文館副修撰, 承文院校理, 正言을 역임하고, 弘文館典翰으로 경연의 侍講官을 겸임하였다. 이 때에 중종이 학문을 장려하며 유학자를 우대하고 주야로 경연을 열어 학자들과 학문을 논하였다. 趙光祖 등과 함께 고금의 時務를 논하여 채택되는 바가 매우 많았으며, 1518년(중종 13)에 특명으로 대사성에 올랐다.

21)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0d면, 「從父兄文景公二樂亭集序」, “…… 公之學 淵源於皇祖文忠公之門 親炙而薰染之者有本 …… 其行之爲道 得之爲德 發之爲文章 措之爲事功 有其具 且有其施 遭遇聖明 道契德合 沛然其行 蔚乎其成 其所垂之於竹帛者 雖擬諸典謨 無多愧焉……”

22)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3b면, 「高靈世稿序」, “…… 吾觀三魁之文之淵源 既受於文忠公厚 又激於奉禮公深 且其自得於天分者爽邁而秀發 ……”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의 일파라고 탄핵을 받아 삼척부사로 좌천되고, 그 다음해에 파직되었다. 이어서 어머니의 상을 당해 高陽에서 3년간 侍墓하였다. 1524년(중종 19)에 상복을 벗자 驪州의 元亨리에 집을 짓고 14년간을 칩거하였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1538년(중종 33) 尹仁鏡이 이조판서가 되어 기묘사화에서 화를 입은 사람들을 서용하자 成均館大司成으로 복직되었다. 이듬해에 明나라에서 華察과 薛廷寵이 왔을 때 宣慰使가 되어 그들을 맞이하였는데 문장으로 거름에 부족함이 없으니 그 文名이 떨쳐졌다. 인종 때에 대제학을 거쳐, 명종 즉위와 함께 우참찬에 되어 尹元衡 등이 을사사화를 일으키자 小尹에 가담하여 推誠衛社 弘濟保翼功臣 3등에 책록되고, 正憲大夫에 올라 靈城君에 봉해졌으며, 知義禁府事·大提學·知成均館事·經筵同知事·春秋館同知事를 겸임하였다. 뒤에 靈城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이어 좌참찬·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548년(명종 3) 判敦寧府事가 되고, 이듬해에 좌참성이 되어 지성군관사와 지경연사를 겸하였다. 1553년(명종 8)에 耆老所에 들어가고 几杖을 하사받았다. 1554년(명종 9)에 사직하고 그 이듬해에 병사하였다.

문장에 능하여 시문을 많이 지었으며, 학문을 숭상하여 대사성에 되었을 때에는 학도들이 그에게 운집하였다. 문장을 지을 때는 孟子와 韓愈를 기준으로 하였고, 시를 지을 때는 杜甫를 본받고 江西詩派를 모방하였다. 논리가 압도하게 하려고 힘쓰면서도 의취가 분명하였고, 문장의 힘은 힘차고 원숙하여 담박하면서도 깨끗하고 굳세었다. 책은 구애됨이 없이 두루 읽었으나 유독 三蘇의 글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에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으니, 지금은 잊고 싶지만 뜻대로 안된다.”고 할 정도였다. 아마도 그 학술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인 듯하다. 저서로는 『企齋集』이 있으며, 시호는 文簡이다.

## 2. 交友關係

주지하다시피 신광한은 조부인 申叔舟(1417-1475)로부터 이어 받은 가학으로 詞章의 재능을 물려 받았고, 거기에 趙光祖(1482-1519) 등 사림파들과 교류하면서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道學的 志向을 갖게 되었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시작품 속에는 모두 150여명과의 交遊詩와 40여명의 승려에 대한 贈詩, 그리고 사신 접대를 위한 賦詩 활동 등이 드러나 있다. 작품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교유가 드러나는 인물들<sup>23)</sup>을 도표화해 보면 아래와 같다.

<『企齋集』 소재 시작품을 통해 드러난 신광한의 교유인물>

	성명[자/호]	생몰년	빈도
1	김익수(金益壽) [仁卿 / 蟾江]	미상	17편
2	조사수(趙士秀) [季任 / 松岡]	1502(연산군8)-1558(명종13)	17편
3	윤우형(尹友衡) [字는 衡之]	미상	16편
4	정사룡(鄭士龍) [雲卿 / 湖陰]	1491(성종22)-1570(선조3)	16편
5	김안정(金安鼎) [字는 震卿]	1476(성종7)-1533(중종28)	15편
6	박우(朴祐) [昌邦 / 六峰]	1476(성종7)-1546(명종1)	14편
7	이허곡(李虛谷) [미상] <sup>24)</sup>	미상	14편
8	김안국(金安國) [國卿 / 慕齋]	1478(성종9)-1543년(중종38)	10편
9	임호신(任虎臣) [字는 武伯]	1506(중종1)-1556(명종11)	9편
10	박상(朴祥) [昌世 / 訥齋]	1474(성종5)-1530(중종25)	8편
11	신잠(申潛) [元亮 / 靈川子]	1491(성종22)-1554(명종9)	8편
12	최익령(崔益齡) [미상]	미상	8편
13	노즙(盧楫) [미상]	미상	7편
14	박찬(朴璨) [字는 德璋]	미상	6편
15	소세양(蘇世讓) [彦謙 / 退齋]	1486(성종17)-1562(명종17)	6편

23) 성명과 생몰년대를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성명[자/호]	생몰년	빈도
16	정만중(鄭萬鍾) [仁甫 / 棗溪]	미상	6편
17	박세희(朴世熹)[而晦 / 道源齋]	1491(성종22)-1530(중종25)	5편
18	신해(申滢) [字는 彦容]	미상	5편
19	김정국(金正國) [國弼 / 思齋]	1485(성종16)-1541(중종36)	4편
20	서경덕(徐敬德) [可久 / 花潭]	1489(성종20)-1546(명종1)	4편
21	신호(申濩) [字는 德弘]	미상	4편
22	심연원(沈連源) [孟容 / 保庵]	1491(성종22)-1558(명종13)	4편
23	이원화(李元和) [和之 / 淵谷]	미상	4편
24	이청(李清) [字는 季雅]	1483(성종14)-1549(명종4)	4편
25	이행(李荇) [擇之 / 容齋]	1478(성종9)-1534(중종29)	4편
26	임만근(林萬根) [미상]	미상	4편
27	임억령(林億齡) [大樹 / 石川]	1496(연산군2)-1568(선조1)	4편
28	임형수(林亨秀) [士遂 / 錦湖]	1514(중종9)-1547(명종2)	4편
29	김세필(金世弼) [公碩 / 十淸軒]	1473(성종4)-1533(중종28)	3편
30	민제인(閔齊仁) [희중 / 立巖]	1493(성종24)-1549(명종4)	3편
31	반석평(潘碩枰) [公文 / 松厓]	미상-1540(중종35)	3편
32	송순(宋純) [遂初 / 俛仰亭]	1493(성종24)-1582(선조15)	3편
33	신광윤(申光潤) [미상]	미상	3편
34	윤사익(尹思翼) [字는 彦禮]	1478(성종9)-1563(명종18)	3편
35	윤인경(尹仁鏡) [字는 鏡之]	1476(성종7)-1548(명종3)	3편
36	이장곤(李長坤) [希剛 / 寓灣]	1474(성종5)-1519(중종14)	3편
37	이홍간(李弘幹) [大立 / 雙槐]	1486(성종17)-1546(명종1)	3편
38	정언호(鄭彦浩) [字는 浩浩]	미상	3편
39	정옥형(丁玉亨) [미상]	미상	3편
40	한숙(韓淑) [子純 / 簡易堂]	1494(성종25)-1560(명종15)	3편
41	한충(韓忠) [恕卿 / 松齋]	1486(성종17)-1521(중종16)	3편

『企齋集』에 대한 분석을 통해 40여명에 달하는 인물들과 일회성이 아닌 詩

24) 李虛谷의 虛谷은 字이고, 성명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광한의 교유에 있어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에 삽입하였다.

갓가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광한의 作詩를 통한 문인과의 교류 범위는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곧 (1) 家系에 기인한 親族 文人들, (2) 己卯士林을 중심으로 하는 官人들, (3) 낙향 후 그곳에서 만난 守領 및 處士·門徒들이다.

### 1) 親族 文人

신광한의 가문은 9대조 成用이 문관으로 현달하여 檢校軍器監에 이른 이래 빼어난 문장력과 높은 학식으로 그 맥을 이으면서 사장적 전통 아래 영달의 길을 걸어왔다. 6대 왕을 섬기면서 일세를 풍미했던 文忠公 申叔舟를 祖父로 두고, 大提學 申用漑를 사촌으로 하는 신광한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였다.

물 근원의 큼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흐름이 반드시 장대하였다. 흐름이 장대한 것은 그 물결이 반드시 나뉘었는데, 끝없이 넓게 흘러서 함께 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간 뒤에야 그쳤다. 어찌 물의 경우에만 그러하겠는가? 문장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 반드시 근원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깊이 잠겨 있는 연후에야 그 아래에서 널리 퍼지고 크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sup>25)</sup>

신광한은 「高靈世稿序」를 통해 高靈 申氏 집안에는 대대로 문장이 축적되어 왔음을 설명하였다. 水源이 커다란 물은 그 흐름 또한 장구하며, 설령 그 물이 여러 갈래로 갈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바다까지 이르러 감을 말하면서 문장 또한 그러하다고 하였다. 곧 그 文勢가 빼어난 집안의 전통은 비록 후대로 내려와서 그 흐름이 다양해지더라도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에너지

25)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3b면, 「高靈世稿序」, “嘗觀於水源之大者 其流必長 流之長者 其派必分 滔滔浩浩 同至于海而後已 豈惟水爲然哉 夫文亦猶是已 必有淵源泓涵滄滄于上 而後其下演迤大肆……”

는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인 것이다. 신광한이 장성한 후 정치적 지향을 함께 하는 신진사림들을 교유집단으로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계를 기반으로 하는 교유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그의 가계에 대한 자부심에 기인한다.

萬事紛紛劇似雲	세상 만사 어지럽기 구름처럼 번다하여
此身於世轉無根	이 한 몸도 세상에서 정처없이 떠돈다네
百年聚散常如此	평생동안 이합집산 늘상 이와 같았네만
六載此離未足云	6년간을 이별하니 말로 표현 다 못하네
衝雨征鞍何日定	비 뚫고서 말 타는건 어느 날에 정해지고
先花回雁幾時聞	꽃보다 먼저 돌아오는 기러기는 어느 때 들으려나
傳神有箇蕭蕭竹	그대 정신 배어있는 쓸쓸한 저 대나무를
相對軒屏擬見君	병풍으로 마주하니 그대 보는 것 같구료 <sup>26)</sup>

申潛은 申叔舟의 증손자이며, 신광한의 사촌인 申從護의 아들이니, 곧 신광한의 오촌 조카가 된다. 신잠은 1519년(중종 14) 현량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으나, 기묘사화로 인해 파직을 당하고 진사 시험 합격증까지 몰수 당하게 된다. 그 후 1521년(중종 16) 辛巳誣獄에 연루되어 여섯 차례 형장을 받은 다음 유배되고<sup>27)</sup> 17년간 귀양살이를 하였다. 1543년(중종 38) 司饗院主簿의 관직을 제수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나라의 녹을 받지 못했으니 그의 불우함을 짐작할 만하다. 신잠은 긴 野人 생활을 견디면서 서화에 몰두했는데 특히 墨竹畫를 잘 그렸으니, 신광한이 그의 그림을 사랑하였고 신광한 뿐만 아니라 당대의 여러 문인들에 의해 賞讚되었다. 그 인물이 준수하고 재예가 뛰어나서 金安國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蘇世讓·成世昌·洪彦弼 등 많은 대신들의 천거를 받았으나 중종의 신임을 얻지 못하여 당대에 크게 쓰이지는 못했다.<sup>28)</sup>

26)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3, 424c면, 「送堂姪元亮(潛)之任泰仁 二首 留所畫墨竹八幅 及之」其二.

27) 『中宗實錄』, 「1521年 10月 21日條」, “申潛受刑六次 流雲山”

이 시는 복직된 후 泰仁牧使로 부임해 가는 신잠에게 준 시이다. 시 전체에 신잠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신광한은 대나무에 대한 애호가 상당했는데, 신잠이 남기고 간 여덟 폭 대나무 병풍을 아껴서 「畫竹八絶」<sup>29)</sup>을 지을 정도였다. 기묘사화 후 우거하고 유배하며 숨죽여 사느라 평생을 만나지 못한 조카였다. 이제 伸寃復職되어 그동안의 회포를 풀어내 나 했는데 또 멀리 泰仁으로 부임해 가니 이별의 절절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能書繼先祖	글 잘씀은 선조를 이은 것인데
善畫是誰師	그림은 누구를 스승 삼았나
才調無雙美	재주 둘 다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文章又一奇	문장까지 기이함을 이루었도다
更看知遇日	알아주는 세상을 문득 만나니
未盡報恩時	은혜를 미처 갚지 못했네
萬古成丘隴	만고토록 무덤만 남겨왔으니
天心竟莫知	하늘은 끝끝내 저버렸구나 <sup>30)</sup>

신잠에 대한 挽詩이다. 신잠은 신광한보다 1년 앞선 1554년(명종 9) 세상을 떠났다. 상대의 공덕을 칭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시이므로 시 속에 신잠의 문장과 서화에 대한 칭송이 가득하다. “글 잘함은 선조를 이은 것인데 [能書繼先祖]”를 통해 신잠으로 대표되는 가문의 전통을 재확인하고 있으니, 이 시를 통해 가문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신광한의 자부심과 소속감 또한 함께 엿볼 수 있다.

紫禁傳呼曉漏催                      궁중에서 부를 때에 새벽 시계 재촉하니

28) 『中宗實錄』, 「1539年 2月 24日條」, 「1543年 3月 14日條」 참조.

29)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438d면, 「畫竹八絶」.

30)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435d면, 「挽申尙牧(潛)」.

曾從仙侶上蓬萊	일찍부터 신선 따라 봉래각에 올랐다고
龍庭肅肅鷓班立	조정 뜰엔 엄숙하게 백관 반열 늘어섰고
玉燭煌煌寶座開	옥 촛대는 휘황하게 빛난 옥좌 여는구나
臚唱幾 <small>(幾一作數)</small> 聲雲裏下	급제자들 호명 소리 구름 속에 내려오면
天葩五色御前來	오색 찬란 문장 들고 임금 앞에 나아가리
自 <sup>31)</sup> 頭追憶渾如夢	머리로는 옛 생각에 이 전부가 꿈 같은데
還喜吾家出亦才	더 기쁜건 우리 집에 또 재주꾼 나온걸세 <sup>32)</sup>

趙士秀는 모친이 申洞의 딸이니, 곧 신광한은 조사수의 외삼촌이 된다. 이 시는 1531년(중종 26) 조카 조사수가 식년문과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담아 지은 시이다. 조정에서의 생활과 궁궐에 대한 묘사를 신선의 세계처럼 그려냄으로써 조사수의 앞날에 대해 축복을 더하고 있다. 이 시를 지은 때는 아직 신광한의 伸寃復職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에 급제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꿈인지 생시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신광한이 기뻐하는 이유는 과거 급제를 비단 조사수 개인의 영달과 연결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 기쁜건 우리 집에 또 재주꾼 나온걸세[還喜吾家出亦才]”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개인의 현달을 가문의 명예와 연결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문의 문학적 전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자부과 안도감이 묻어나는 것이다.

신광한은 자신의 두 아들인 申澗과 申津에게 시를 지어 “子夏의 문[문학]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子張의 녹봉[벼슬]을 앞세우지 말아라. 편안하고 조화로움이 조급함을 진정시키고 효성스러움이 곧 너희들의 직분이다.[莫輕子夏門 莫先張也祿 安和鎮浮躁 孝弟乃汝職]”<sup>33)</sup>라고 하여 학문에 힘쓰되 벼슬을 앞세우지 말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또한 자식의 학식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31) ‘自’는 ‘白’의 誤記라고 생각된다.

32) 申光漢, 『企齋集』·『別集』卷4, 436c면, 「趙出土秀登第 放榜日 寄喜」

33) 申光漢, 『企齋集』卷3, 278d면, 「戒二子」

보이지 않고 있다.

신광한이 지난날 성균관의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 좌석에서 洪暹에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祖父 文忠公이 처음으로 대제학을 맡았으며, 우리 종형인 申從濩도 시문이 정묘하다는 것으로 성종의 알아줌을 받았고, 또 종형인 申用漑도 다시 대제학이 되었으며, 지금 내가 또 대제학을 맡았는데 나는 장차 의말을 趙氏의 생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였다. 생질이란 바로 判書公[趙士秀]이었으니 그의 문장 또한 당시에 정중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광한이 이렇게 허여하였는데 온 좌석에서 듣고 공의 말이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았다.<sup>34)</sup>

결국 신광한의 文才에 대한 인정은 아들들보다는 조카인 조사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신광한이 개인적 영달과 명예보다는 가문의 문학적 명성을 잇는 영예로움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水國耽羅古	水國은 탐라 옛 나라로
天池島嶼靑	天池가 있는 섬이 푸르르네
鳩啾蛭戶聚	올빼미 울음 방언에 취락이 고물고물
鳶帖瘴雲冥	소리개 앉는 곳에 더운 구름 자욱하지
暫輟仙班用	그대 잠시 조정에 서길 그만두고
還傾海外聽	바닷가로 민정을 들으러 가니
浮山迎羽駕	신기루는 신선 행차를 맞이하고
貫月載文星	배는 文星을 실었으리
義重誰非地	의리 중하니 어느 곳인들 왕토 아니라

34) 申光漢, 『企齋集』 卷14, 384c면, 洪暹, 「卒推誠定難衛社功臣輔國崇祿大夫靈城府院君兼領經筵知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贈諡文簡申公墓誌銘(并序)」, “……公昔在成均廣坐中 唉謂暹曰 吾祖父文忠始主文衡 吾從父兄從濩亦以詩文之妙 受知成廟 從父兄用漑復爲大提學 今吾又典文 吾將以衣鉢付趙掇 掇卽判書公 其文章亦見重於當時 故公以此許之 一坐聞之 不以公言爲過……”

恩深看作溟	성은 깊어 푸른 바다 보는 것 같아
只應資奮迅	떨쳐 일어나 신속히 가야 하리니
不是見飄零	쫓겨가는 신세가 아니라서라
我夢生春艸	나는 池塘에 푸른 풀 돋는 꿈꾸리니
君愁憶老形	그댄 늙은 내 모습 그려 울겠지
獠蠻吟裏調	남방은 시 읊는 사이 다스려지고
日月醉中經	세월은 취중에 지나리라
容易三霜橘	귤이 세 번 익기는 쉬우니
漂浮一點萍	한 점 부평초가 떠다니는 듯
眼前無限意	눈 앞에 무한한 맘속의 말들
何用語丁寧	어찌 다 구구하게 말로 하리오 <sup>35)</sup>

1540년(중종 35) 濟州牧使로 부임하는 조사수에게 써준 시이다. 같은 외직으로의 부임이건만 앞선 신잠에게 주었던 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내비친다. 이것은 신잠과 조사수의 처지의 상이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신잠의 泰仁으로의 부임은 인종조에 가서야 이루어졌으니 이미 그의 나이가 쉰이 넘은 시기였다. 이 때문에 연이어지는 고생스러움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붙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수의 경우는 삼십대 후반에 청운의 꿈을 안고 부임하는 길이었으니, 위로보다는 격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술한 관직을 경험해온 선배로서 충고의 말 또한 곁들이고 있다. 쫓겨 가는 신세가 아니니 더욱 지체 없이 신속히 가야 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관료적 사명을 앞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지방 수령으로의 발령이건만 20년전 자신의 삼척 부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20년전에는 정치적 좌절감을 가득 안고 외딴 곳으로 부임했지만, 그로부터 20년 후에는 자신의 조카가 새로운 희망을 품고 부임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신광한은 자신의 아들로 부터는 특출한 文才를 찾아내지 못했던 듯하다. 따라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

35) 申光漢, 『企齋集』 卷5, 295d면, 「送趙擧季任令公之任濟州(士秀)」

던 그에게 문학적 명성의 명맥을 잇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외조카 조사수의 관료로서의 활발한 활동은 신광한에게 남다른 안도감과 자부를 주었던 것이다. 『企齋集』에는 신광한이 조사수와 나눈 시가 가장 많이 실려 있다. 신광한의 조사수에 대한 신임은 “이 늙은이의 속마음은 오직 자네만 알고 있으니 죽은 후의 말을 그대에게 부탁하노라”<sup>36)</sup>라는 당부를 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조사수는 신광한의 유지를 받들어 그의 행장을 짓게 된다.

신잡과 조사수 외에도 『企齋集』에는 만형인 申光潤과 누이들에게 전한 시와 五寸 조카 申灑, 장인인 林萬根, 처조카인 林亨秀에게 전한 작품들이 보인다. 또한 사촌형인 申復淳, 申永洪과 관련하여 만시를 지었으며, 申用漑·申瀚·申潤輔·申承藻에게 전한 시들도 보이는데 모두 신광한과 가계로 묶여있는 인물들이다. 처형인 權機과의 교류 정황 역시 포착되는데 그는 趙光祖를 비롯한 사람들이 왕도정치를 극렬히 주장할 때, 기호지역 사람과와 연결되어 훈구파와 사람과 사이를 조정하려고 하였던 인물이다. 이렇듯 가문에 기반한 교류는 훈구파와 사람과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유지되던 훈구대신들과의 교류의 연결고리가 기묘사화 때 그를 보신케 하는 중요한 변호 세력으로 작용하였다. 趙士秀가 지은 「文簡公行狀」과 洪暹의 墓誌銘을 통해 기묘사화 당시 대신들의 변호가 화를 피하는 결정적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사화) 당시 권세 있는 간신들이 동시대의 명망 있는 선비들을 모욕하여 사소한 잘못을 꾸미어 참소하여 한 번에 모두 처치하려고 하였다. 화가 공[신광한]에게도 이르려고 하였는데 좌우의 신하들이 모두 “이 사람은 비록 그들과 동류지만 지적하여 이름할 만한 자취가 없다.”고 말하니 마침내 화를 면할 수 있었다.<sup>37)</sup>

36) 申光漢, 『企齋集』 卷14, 374a면, 「文簡公行狀」 “叔嘗謂余曰 老夫心事 唯子深知 身後之言 屬之子矣”

37) 申光漢, 『企齋集』 卷14, 趙士秀 「文簡公行狀」, “……時權奸籍一時名流, 萋斐成貝, 欲一網打盡. 禍將及公, 左右皆曰, ‘此人雖與彼同流, 無可指名之跡,’ 竟得免焉……”

공[신광한]도 유배형을 받았어야 마땅하였지만, 대신들의 변호에 힘입어 (귀양 살이를) 면할 수 있었다.<sup>38)</sup>

물론 가문의 힘만으로 사회의 매서운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문을 기반으로 한 훈구대신들과의 원만한 교유관계가 그의 保身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2) 己卯士林 官人

교유인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기묘사림으로 분류되는 官인들이 많은 것인데, 金安國·朴祥·金正國·朴世燾·李清·金世弼·李長坤·韓忠이 그들이다. 이 외에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안부를 주고 받은 인물들도 적지 않으니 金正國의 『思齋集』, 「己卯黨籍」에 수록되어 있는 90여인의 己卯人 중에 『企齋集』에서 20명이 넘는 인물들과의 교유가 포착된다.<sup>39)</sup>

신광한의 문집을 통해 확인되는 교유인물들은 주로 기묘사화를 겪으면서도 목숨만은 보전했던 온건적 개혁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다. 하지만 그의 행장과 산문을 통해서 조광조·김정과 같이 급진적인 개혁성향을 지녔던 인물들과의 긴밀함도 확인된다.

공[신광한]은 평소 趙光祖와 친근하여 함께 강론하였다. 과오가 있을 경우 공이 정색하고 그를 책망하기를 “내가 아니면 누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까?” 하였다. 광조는 그 때마다 안색을 고치고 사과하며 “내가 공을 공경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광조가 항상 탄복하여 이르기를 “가령 공께서 타국에 있을 때 사

38) 申光漢, 『企齋集』 卷14, 洪暹 「卒推誠定難衛社功臣輔國崇祿大夫靈城府院君兼領經筵知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贈諡文簡申公墓誌銘」, “……公亦當謫 賴大臣辨釋獲免”

39) 『企齋集』에 鄭光弼(2)·李長坤(3)·金安國(10)·金世弼(3)·權機(2)·鄭順朋(1)·柳庸謹(1)·朴世燾(4)·孔瑞麟(2)·韓忠(3)·李清(4)·鄭膺(1)·張玉(2)·尹衢(1)·沈連源(4)·任權(1)·朴祥(8)·尹漑(1)·金正國(4)·李浚慶(2)·安珽(2)·申潛(8)과의 교유 정황이 드러나 있다.

람들이 혹시 공이 남을 해치고 재물을 탐한다고 참소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40)</sup>

조광조와 이렇게 허물없이 대하는 사이였건만 『企齋集』 안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를 통해서도 신광한이 처해있던 상황의 조심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金淨의 堂姪이었던 金天宇가 신광한에게 『冲菴集』의 간행을 위한 시문의 刪削과 편차의 제정을 부탁했는데, 바로 실행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예민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金淨의 堂姪인 金天宇가 홍문관의 應敎가 되었는데 하루는 나에게 김정이 남긴 약간의 시문을 들고 와서 말하기를 “나의 숙부 元沖公[김정]은 젊을 때부터 문장이 매우 높고 학문을 좋아하여 이론바가 매우 깊습니다. (중략) 근래에 보아하니 조정 에 선비의 기운이 조금씩 생겨나서 공론 또한 행해지고 있으니 冲菴[김정]의 시문이 이 때에 채록되기를 바랍니다.” (중략) 이에 받아서 놓아두었다. 늘 책상 위에 놓아두고서 탄식하며 감상하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다. 아직 편차를 정하지 못했는데 金天宇가 세상을 떠났다. (중략) 유고가 도리어 상자에 보관된지 또 몇 년이 흘렀다.<sup>41)</sup>

김천우가 홍문관의 應敎가 된 것은 1545년(명종 즉위년)<sup>42)</sup>이다. 김천우의 몰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대략 1547년(명종 2)경으로 추정된다. 결국 『충암집』은 신광한의 손에 의해 간행되지 못한 것이다. 1545년 받은 김정이 남긴 시문들은 신광한에게 보관되어 있다가 公州牧使 許伯琦에게 보내

40) 申光漢, 『企齋集』 卷14, 趙士秀 「文簡公行狀」, “……公素與趙光祖善 相與講劇切磋 有誤 公正色責之曰 非我其誰正之 光祖每改容謝曰 吾之所以敬愛公者爲是也 光祖常嘆服曰 設使公在他國 人或譖公以技害貪求 吾不信之……”

41)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2b면, 「冲菴集序」, “……有侯之堂姪金君天宇者 爲玉堂應敎 一日 持侯之遺稿詩若文來示余曰 吾叔父元沖公 自在妙年 文章甚高 又好學文 所造尤深……近看朝廷之上 士氣稍振 公論亦行 冲菴之詩文 庶幾見採于時矣……仍受而留之 常置諸案上 嘆咤吟賞之間 歲月荏苒 未克編次 而金君天宇又至於奄忽……稿之還藏於篋笥且有年矣”

42) 『明宗實錄』, 「1545年 8月 30日條」, “……金天宇爲弘文館應敎……”

지고<sup>43)</sup> 결국 허백기의 손에 의해 1552년(명종 7)에 공주에서 목판으로 간행되며 신광한은 그 서문만을 담당했던 것이다. 遺稿 전편을 7년여의 시간동안 소장하고서도 간행에 적극적인 뜻을 펼치지 않은 것은 그만큼 그가 처해있던 상황이 예민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신적인 지향이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묘사화 이후 사림파의 주요 인물은 김안국·김정국 형제였다. 이들 형제는 조광조·김정 등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조광조 등이 보여준 비타협적 강경론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sup>44)</sup> 곧, 전통적인 인습과 舊制의 革去 노력은 급진적 성격의 조광조 계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성리학적 윤리질서·통치질서의 수립을 꾀하려는 노력은 실용주의적 성향을 띤 김안국 계열의 온건파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이다.<sup>45)</sup> 이러한 개혁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급진적 개혁을 추구했던 조광조 일파는 극형에 처해졌던 것에 반해 온건적 개혁을 추구했던 김안국 일파는 파직의 징계에 그치게 된다. 신광한은 급진적·온건적 성향을 지닌 사림파들과 두루 사귀었지만 그 정치적 행보는 온건적인 성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亦知衆所好 衆人이 좋아함이 다름을 알기에  
 偏傷君子情 군자의 마음이 유독 슬프다  
 欲扶吾道直 내 도의 바른 길잡이 원하나  
 宜有俗間驚 속세를 놀라게함 마땅하리라

43)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2b면, 「沖菴集序」, “……者公州牧許公伯琦抵書與余曰 吾得沖菴遺稿若干卷 鳩材倩工 已臨首事 似聞公家有全稿藏焉 望亟搜付 俾得校正其舛訛 且請序于卷端以記其事 辭甚殷勤 嗟嗟乎稿之不幸失金君 又何幸得公於今耶 天之果不薄於善人 而終能成就之如是夫 遂封寄其稿 以卒金君之志 又美許牧之勇於爲善而不懈於扶樹斯文 樂副其詩……”

44) 우응순,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1집, 한국한문학회, 2002, 120면.

45) 李秉炘,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 一潮閣, 1984, 167-168면.

事業歸彝鼎    이제 일은 종묘 보고 하게 될테니  
 心期在遠程    마음 기약 먼 길에 있게 될걸세  
 此行觀禮樂    이번 행차 예악을 살펴보니까  
 還覺別離輕    이별이 별 것 아님 되려 깨닫네<sup>46)</sup>

김안국은 1532년(중조 27)에 복직 되었으니 신광한과는 대략 5-6년의 차이를 두고 앞서서 조정에 들어갔다. 이 시는 당시 서울로 향하는 김안국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남아있는 사림의 頷首가 20여년의 향촌 생활을 청산하고 복직을 하는 것은 사림파들에게는 경사 중의 경사였다. 시를 통해 홀로 남겨진 자의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어조를 싣고 있는 것은 김안국의 出仕를 반가워 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禮樂’이 바로 서서 나라의 기강이 확립될텐데 개인적인 ‘別離’의 아쉬운 마음이야 도리어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안국은 신광한에게 있어서 단순한 교유를 넘어선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였다. 김안국의 동생인 김정국과 신광한은 사마시 동년방이었고, 나이 또한 동년배였으니 신광한은 김안국을 자신의 형처럼 섬겼다. 항상 “김안국은 내가 섬기는 분이다.”<sup>47)</sup>라고 自任할만큼 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컸다. 여주지역에서 함께 거처하면서 시로 안부를 주고 받았고, 경치 좋은 곳에서 모여 酒宴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김안국의 정자인 泛槎亭에 기문을 적어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김안국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여 “더불 이 없음 슬퍼 한바탕 울고 홀로 떠남 애석해 무리져 온다. 백성 마음에 빠져 죽을 듯하고 하늘 기둥 기울어질까 두렵다.[一哭悲無與 群蟲惜獨行 民情如胥溺 天柱恐同傾]”<sup>48)</sup>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여과 없이 내비쳤던 것이다.

46) 申光漢, 『企齋集』 卷7, 319a면, 「送金宰相國卿赴京」

47)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1d면, 「雲庵上人詩軸序」, “梨湖吾所師事者”

48) 申光漢, 『企齋集』 卷2, 247b면, 「挽金判府事(安國)」 頷聯·頸聯

또한 기묘사화 당시 服喪 중이어서 화를 피했던 朴祥과의 교유시 또한 보인다. 신광한이 여주에 우거할 당시 박상은 忠州牧使로 있었는데, 신광한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주는 등 물질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기묘년에 충주 목사로 있을 때, 趙光祖가 北門의 화를 당하자 당시의 선비들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공[박상]이 모두 돌봐주니 金世弼·李紆·李延慶과 같은 사람들이 다 가서 의지하였다. 朴祥이 하루는 여강에 갔다가 金安國과 申光漢이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 여주 목사 李希輔를 찾아가서 쌀 백 섬을 빌려 두 사람을 구제하였다.<sup>49)</sup>

박상이 신광한 뿐만 아니라 기묘사화 이후 정치 없이 떠돌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묘사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직을 잃고 각지로 흩어져서 앞 날을 모색해야 했던 어려운 시기에 관직에 남아있던 박상은 향촌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맥이었던 것이다.

매 한 마리를 키웠었는데, 늙고 병든 것의 요양을 위해서였지 보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거친 채소만으로 곤란했는데 문득 관아의 풀무에 매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으니 朴祥을 따라서 그것을 구했다.<sup>50)</sup>

박상은 향촌에서 맞닿뜨리는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광한에게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신광한은 박상을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sup>51)</sup>으로 부르면서 각

49) 許筠, 『惺所覆瓿藁』 卷23, 「說部」 2, 「惺翁識小錄」 中, 335b면, “己卯歲 方爲忠州牧 靜庵罹北門之禍 一時士類無所歸 公悉爲經紀 故金省洞(世弼)李陰崖(紆)李灘叟(延慶) 俱往依之 公一日來呂江 見金慕齋 申企齋窮居 見主牧安分(李希輔)公 乞米百斛 貸而調兩公”

50) 申光漢, 『企齋集』 卷2, 250a면, 「嘗畜一鷹 爲養老病 非爲玩也 既失此物 困於寒菹 卽聞見繼于官鞵 從朴使君(祥)求之」

별히 했으며,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안부를 나눴던 것이다.

人琴久已亡 사람과 거문고 없는 지 오래  
歲月倏云去 세월은 갑자기 훌쩍 흘렀네  
塵寰一何卑 속세는 어찌 그리 낮기만 한지  
黃鵠未高舉 고니가 아직 높이 날질 못했네  
奇哉此老禪 기이토다 여기 있는 늙은 스님은  
何地得此語 어느 땅서 이 말들을 얻어왔는고  
酬詩隔一世 수창하긴 한 세대가 떨어지지만  
寄吾元賓與 우리들의 제자에게 부쳐줘야지<sup>52)</sup>

乞詩를 위해 찾아왔던 道崇上人의 시축에서 오래전 묵은 朴祥의 手迹을 발견한 것이다. 이미 朴祥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그 詩文을 대하자니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썬나라 王徽之가 그의 형 王獻之가 죽었을 때 왕헌지의 거문고를 연주하고는 조화로운 소리가 나지 않자, “아, 사람과 거문고가 모두 사라졌구나.”라고 탄식하였다는 고사를 차용하여 자신이 친형처럼 좋아했던 박상의 죽음과 그의 시문을 더이상 만나지 못함을 새삼 서글퍼하고 있다. 尾聯에서 韓愈와 막상막하로 칭해졌던 제자 李觀의 字로 능력있는 후배들, 제자들을 상징하면서 우리의 세대는 이제 저물어가니 그 명맥을 후배들이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기묘사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신광한의 도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또한 기묘사림들은 그의 정치적 재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집단이기도 하였다. 기묘사림으로 분류되는 一群 외에 鄭士龍·朴祐·崔益齡·李弘幹·尹思翼과의 교류시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신광한과 사마시 동년방이다. 이들의 성향은 기묘사림 출신의 官人들과는 또 달리 분류할 수

51)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1d면, 「雲庵上人詩軸序」, “訥齋吾所善”

52) 申光漢, 『企齋集』 卷3, 278a면, 「次亡友訥齋韻 書道崇上人詩軸」

있는데, 온건적 성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李弘幹은 趙光祖·金淨 등과 교유할 때 그들의 편협하고 과격함을 늘상 경계하였고, 尹思翼은 훗날 乙巳士禍 때 李芑에 동조하여 “趙光祖는 부관참시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士類에 해를 입히기까지 했으니 모두 급진적 개혁을 반대하고 현실적 타협을 주장했던 이들이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정사룡과 박우와의 교유는 남달랐는데 특히 정사룡과는 시문으로 그 이름을 다투었다. 당시 사람들이 “신광한은 모든 시체를 다 구비했지만 정사룡은 오직 칠언율시만을 잘 짓는다”라고 평한 데에 대해서 정사룡이 “그의 여러 시체가 어찌 나의 율시 하나를 당해내리요”<sup>53)</sup>라고 자부했다는 기록에서 作詩를 놓고 벌이는 양자간의 미묘한 대결 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차운시 중에는 정사룡의 시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같은 韻으로 詩才를 겨뤄보려는 의식 또한 살필 수 있다.

近代詞場孰主盟	근대 들어 사장에서 누가 맹주 되었던가
湖翁企老最先鳴	호음옹[정사룡]과 기재옹[신광한]이 가장 앞서 울리었네
夢中邂逅同追賞	꿈속에서 서로 만나 함께 감상하였지만
豈許斯文在後生	어찌 사문 말을 책임 내게 허여한단 말기 <sup>54)</sup>

金尙憲이 꿈 속에서 정사룡과 신광한을 만난 것을 시로 적은 것이다. 후대 문인에 의해 16세기 詞場의 맹주로 정사룡과 신광한이 꼽히고 있는 것이다. 李濟臣 또한 『淸江詩話』에서 “그 用事와 措意가 동일하였으되 시어를 쓰는 방법은 아주 달랐다. 평생 두 사람의 기상을 상상할 수 있는데 천연스럽고 독특한 것은 쉽게 우열을 논할 수 없다.”<sup>55)</sup>라고 신광한과 정사룡을 병칭하고 있

53) 洪萬宗, 『小華詩評』, “企齋於詩 各體俱備 湖陰獨善七律 湖以不及企 而湖嘗曰 申公各體 豈能敵吾一律哉”

54) 金尙憲, 『淸陰集』 卷3, 041b면, 「夢與湖陰企齋同賞」

55) 李濟臣, 『淸江詩話』, “其用事措意一也 而立語骨法頓殊 平生兩家氣像可想 而天然崢嶸 未易甲

는데, 이들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詩才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기묘사림들과의 교유와는 달리 신광한에게 있어서 정사룡과의 교유는 온전히 신광한의 시에 대한 안목에 기인한 것이며, 자신의 詩才를 겨룰 수 있는 맞수로서 정사룡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朴祐와의 교유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朴祐는 신광한이 6위로 급제했던 1507년(중종 2) 사마시에서 장원으로 합격했던 인재이다. 신광한은 박우와 지속적인 교유를 나누었는데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지칭하면서 그가 나를 진작시킨다<sup>56)</sup>고 하였다. 『企齋集』에 전하는 박우와 나눈 세 편의 聯句<sup>57)</sup>를 통해서도 서로간 詩才를 겨루며 교유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官人들과의 교유 역시 기묘사림을 중심으로 하는 도학과와의 교유, 사마시 동년방을 기반으로 하는 문인들과의 교유, 모두에 있어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광한은 정신적 지향은 도학에 두었으나 타고난 文才를 표출하려는 내면의식 또한 그에 못지 않게 강했다. 따라서 이러한 文才를 십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재기를 이루려 했던 것이다.

### 3) 守領 및 處士 門徒

신광한의 교유시 안에는 그가 여주에 낙향한 14년 동안 지역을 담당했던 관리들과의 교제를 살펴볼 수 있는 시들이 있다. 여주목사로 부임했었던 金安鼎(15), 張漢公(1), 李希輔(1), 李純(2)과 나눈 시 작품들이 『企齋集』에 전한다. 특히 김안정과의 교유가 눈에 띄는데, 김안정의 귀경 후에도 교유가 계속 이어졌으니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乙也”

56)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2, 413d면, 「次佔畢齋韻 書普願禪師詩軸」, “……今年 師又訪余於海上 袖持二物 軸一簡一 軸是佔畢齋遺韻 簡是吾同年石軒寄余也 且勸余相和 噫 佔畢吾所欽也 石軒吾所善也 師之來振我也 豈但登音之喜而已也……”

57) 申光漢, 『企齋集』 卷6, 310b면, 「與昌邦同賞古館梅花」; 「聯句」; 「凌波臺二十韻」

또 다른 한편으로 김안정은 김안로의 형이었으며, 신광한은 김안로의 조카 사위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안로는 기묘사화로 趙光祖 일파가 몰락한 뒤 발탁되어 이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곧이어 아들 金禧를 孝惠公主와 혼인시켜 권력을 독점하였던 인물이다. 신광한은 김안로가 동호에 保樂亭을 짓고 그 題詩를 청한 것에 대해 「保樂堂」이라는 시로 답한 적이 있다.

聞說華堂結構新	듣자하니 화려한 집 새로 지었다 하는데
綠窓丹檻照湖濱	푸른 창과 붉은 난간 호숫가에 비치겠지
雲山亦入陶鈞手	구름 산도 도자공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月笛還宜錦繡人	달 피리는 비단 입은 사람에게 마땅하네
進退有憂公保樂	진퇴함을 걱정하며 그댄 낙을 지속하소
行藏無意我全眞	출처함에 뜻 없는 난 참됨 보전 하려하네
風光點檢須閑熟	시 짓는 것 한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
可使何人佐上賓	누구를 불러다가 손님 자리 권하겠나 <sup>58)</sup>

시에서 保樂亭의 화려한 모습을 묘사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상한 흥취가 “도자공의 손아귀[陶鈞手]”와 “비단 입은 사람[錦繡人]”에게 독점되었다고 기롱하고 있다. 頸聯에서 김안로를 ‘公’으로, 자신을 ‘我’로 대비시켜 권력에 탐닉하는 김안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시 김안로는 이 별장을 짓느라 남의 토지를 많이 빼앗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신광한이 더욱 반발했던 것이다. 이 시는 후대에도 김안로를 기롱한 시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신광한은 이처럼 김안로의 행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비판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형인 김안정과 깊은 교유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것은 그의 개방적인 교유관계와 유연한 정치 감각의 일면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광한은 또한 尹友衡, 李虛谷 등과 三三九九會를 구성하기도 하였고, 朴璨

58)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48d면, 「保樂堂」

의 집에 자주 모여 시회를 벌였다. 또한 盧楫의 별장[慶莊]에 지은 十一亭에 기문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을 五言律詩 10수로 연작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의 사마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여주의 선비들로 생각되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다. 신광한의 시안에서 이들은 君, 處士, 秀才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니 여주 지방을 근거지로 살아가던 生員 또는 進士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신광한 밑에서 함께 유람하고 강학하면서 신광한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의 지지기반을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갔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들과 여주를 기반으로 교류를 나누었던 구체적인 정황은 시 세계에 잘 드러나 있어서 그의 의식세계를 살피는 일환으로 Ⅲ장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신광한의 구애됨이 없는 넓은 교유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가계의 배경은 勳舊를 기반하고 있었고, 그의 정치척 지향은 士林과 함께 하였으나 교유활동에 있어서는 士林派와 勳舊派를 區分하지 않는 폭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유에 있어서는 그 폭을 넓혀갔던 사교성은 기묘사화 후 그의 保身に 큰 힘으로 작용하였으며, 처신에 있어서도 중도를 유지하는 균형감을 지니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Ⅲ. 申光漢 文學의 時期別 樣相

#### - 己卯土禍 以後 作品을 中心으로

사대부들의 처세는 出과 處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양자는 상반되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한 사람에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sup>59)</sup>. 중앙의 관료로 관직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나라에 충성하는 신하로서의 소임은 다할 수 있으나 전원으로 은퇴하여 자연의 순수함 속에서 타고난 천성을 기르고자하는 선비정신은 결여되므로 두 상황에 대한 갈등이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각 상황을 어떻게 향유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식세계가 드러나게 된다. 신광한은 관료로서의 꿈을 꾸었으나 그 이상이 좌절되자 자신의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향촌에서 우거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신광한에게 있어서 출처의 갈등이란 주로 處하면서 出에 대한 希求를 담아내는 양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신광한이 처해있던 상황의 민감함으로 인해서 出에 대한 회구를 드러내는 방식은 직설적 기법을 지양하게 되었다. 삼척 부사로 재임하던 기간에 지어진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자조적 정서와 탈속적 분위기, 여흥 원형리 우거기간에 지어진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자기 위안의 어조와 정치적 재기에 대한 의지 등은 모두 出에 대한 회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기와 주변 정황에 따라서 표현방식의 적극성이 달리 드러났을 뿐 그 지향하는 바는 한결 같이 관인의식에 기반한 出에 대한 회구였다.

또한 작가가 처한 地理的 位置와 자연 환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작가의 작품 세계에 투영되는데 특히 신광한에게 그가 머물렀던 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정치적인 실각 후 만나게 된 공간-京畿道 驪興[여주]과 江原道 眞珠[삼척]-이 신광한에게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이 공간은 정치적으로는

59)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360면.

훗날을 도모하는 근거지가 되었으며, 문학적으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주고 작가의 속마음을 은근하게 투영해 내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 실의 후 재기를 꿈꾸면서 지낸 기간 동안 작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문학의 향유였다. 문학 작품의 창작이 零落한 작가에게 주었던 긍정적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破閑의 도구였다.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조정을 떠나 향촌에 은거하면서 겪게 되는 무력감과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도구로서 작가는 시와 문장을 지었다. 독서와 작문, 이 두 가지는 향촌 선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사였으며 무기한의 향촌생활을 慰安하는 취미였던 것이다. 둘째로, 교제의 수단이었다. 前述하였듯이 신광한은 폭넓은 교유관계를 가지고 있던 문인이었다. 가풍의 영향으로 勳舊大臣들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으며, 立志에 따른 선택적 교유집단으로 新進士林들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유 양상은 그가 정치적 守勢가 불리했을 때 그를 구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주었다. 따라서 伸冤復權을 꿈꾸던 신광한에게 풍부한 인맥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소중한 寶庫였다. 따라서 그는 지속적인 次韻과 贈詩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文才 표출의 기회였다. 조정에 죄를 얻어 물러난 관료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자신의 가치를 부각시켜서 그 공백을 중앙에서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신광한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빼어난 문장력이었다. 실제로 그가 復職한 후에 비중을 갖고 여러 번 담당했던 일 중의 하나가 明使 및 倭臣을 담당하는 업무였다는 사실도 이것을 입증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신광한은 정치적 실각 이후 다량의 문학 작품을 남겼던 것이다.

『論語』에서 보이고 있는 공자의 입장이 “말은 뜻을 전달하면 그만”<sup>60)</sup>이라는 데에 있었던 만큼 道學을 중시하던 사림파들 역시 문장에 공을 들이는 것

60) 『論語』, 「衛靈公」, “子曰 辭達而已矣.”

을 지역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그들과 從遊했던 신광한에게서 나타나는 多作 양상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신광한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아남은 기묘사림들 중에서 金安國·金正國과 같은 이들에게서도 보이는 공통적인 현상이며 사회를 겪고 낙향한 선비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치된 경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광한은 정치적인 좌절을 겪은 후, 작품 창작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그가 기거했던 두 공간은 그에게 작품 창작의 장으로서 작용하였다<sup>61)</sup>. 곧, 진주[삼척]와 여흥[여주], 이 두 지역은 신광한이 자신의 문학 세계 구축에 있어서 진일보의 계기를 만들어준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己卯土禍 직후인 1520년(중종 15)을 起點으로 하여 그 이후 신광한의 생애를 三分하였다. 정치적 좌절-은둔과 활로 모색-출사를 통한 경제 실현은 신광한의 삼척부사 재임시절-여주 원형리에서 우거한 시기-복직 이후와 시기를 같이 한다. 곧, 신광한에게 있어서 정치적 좌절기-모색기-재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문학작품을 삼분한 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관인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의 양상에 주목한 결과이다. 각 시기에 드러나는 시 작품의 주된 정조와 자연을 대하는 시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광한의 관인의식이 어떻게 변모하면서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가 거처했던 지역들이 그의 작품 세계에 미친 영향을 아울러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산문 작품을 併用하여 분

61) 京畿道 驪興은 신광한 시 작품 창작의 주무대가 된다. 신광한의 문학 작품들에 창작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재집』 수록 차례가 창작 시기순으로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驪興에서 지어진 정확한 작품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의 생애와 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작품들이 寓居期에 지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신광한은 江原道 三陟에 대해 「眞珠軒記」에서 “觀止於此 難爲山水也[여기에서 보는 것을 마칠 것이니 산수를 말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여 그 풍광을 극찬했으며, 『企齋記異』에 수록되어 있는 「崔生遇眞記」는 삼척의 頭陀洞天 무릉계곡을 배경으로 주인공 최생의 신선체험을 허구화한 것이다. 이 두 지역이 작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석함으로써 논의를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광한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관인문학적 성격이 다량의 문학 작품 창작을 통해 세련되게 드러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신광한의 작품 세계를 일관하고 있는 의식적 지향을 밝힌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가지며 더 나아가 신광한 뿐 아니라 당시 기묘사화로 실각하였지만 목숨은 扶支한 여러 문인들의 복잡한 심리상이 드러난 16세기 문학의 특징적 국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 政治的 挫折

### 1) 自嘲的 情緒의 表出

재야에 있던 사림들이 조정의 관료로 진출하여 하나의 勢를 형성한 것은 15세기 성종대부터였다. 이러한 흐름은 신광한이 살았던 16세기에 또 그대로 이어져서 성종이 훈신들의 영향력 하에서 왕권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림들을 견제 세력으로 키웠던 것처럼 중종 역시 중종반정 이후 비대해진 공신들의 영향력 하에서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권 초기 사림세력을 비호하였다. 己卯土禍라는 역사적 사건 역시 그 핵심을 단순화시켜 보면 제한된 要職과 特權을 어느 세력이 더 많이 점유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묘사화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현량과의 시행과 위훈삭제 논의는 모두 人事 문제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다.

신광한이 살았던 중종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했다. 중종반정 이후 재변이 없는 해가 없었다는 중종의 自嘆<sup>62)</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918년(고려 태조 원년)부터 1550년(조선 명종 5)까지 발생한 27,900회의 자연재해

62) 『中宗實錄』, 「26年 5月 14日條」, “傳曰 自反正後 如此災變 無歲無之”

중에서 1501년(연산군 7)-1550년(명종 5) 사이에 6,533회(23.4%)가 집중되어 있을 정도<sup>63)</sup>로 이 시기의 자연재해와 민생 파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가뭄·홍수·역질·병충해 피해 등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극심한 자연재해는 민심을 동요하게 하고 민생을 피폐하게 하니 이에 대한 조정의 고민은 상당하였다.

16세기에 천재지변 및 그로 인한 災異가 발생했을 때 그 대응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된 사항은 임금된 자가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恐懼修省이었다.<sup>64)</sup> 또한 恐懼修省과 맥을 같이 하여 거론되었던 것은 인사의 조치, 즉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었다. 이것은 재변 발생을 잘 못된 인사를 하늘이 譴告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생긴 변화로서 이러한 인식은 성리학의 ‘修己治人’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sup>65)</sup>

중종 10년 5월, 여름철인데도 심한 우박이 내리자 중종은 求言을 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변이 일어난 것은 어느 것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할 수는 없으나 인사가 잘못된 바에 유래하여 생긴 것이다. 求言을 下詣하고 減膳 撤樂하는 것이 옳다.<sup>66)</sup>

이에 대해 이조정랑 金正國은 상소를 올려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친히 視事에 임하여 매일 群下를 접하고 현인을 뽑고 능력 있는 자를 쓰고 정성을 다해 위임하고 樞要를 잡아 작은 것들은 생략하여 각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sup>67)</sup>

63) 김범, 「朝鮮 中宗代 歷史像의 특징과 그 의미」, 『韓國史學報』제17호, 2004, 40면 참조.

64) 李泰鎭은 「고려-조선중기 천재지변과 天觀의 변천」, 『한국사상사 방법론』, 소화, 1997, 124면, <표3-9>에서 “중종 즉위년-20년간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분류표”를 제시하였는데 모두 549건의 자연재해에 대해 각각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14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통해서 恐懼修省[219회]과 인사조치(논의)[90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 李泰鎭은 「고려-조선중기 천재지변과 天觀의 변천」, 『한국사상사 방법론』, 소화, 1997, 126면.

66) 『中宗實錄』「10年 6月 癸亥條」,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자연재해는 16세기 사림의 정계 진출의 분위기와 修己治人이라는 성리학적 신념과 흐름을 같이 하면서 자연스레 人事 문제로 연결되었다.

신광한 역시 人事 문제와 관련된 인재 등용에 대해 예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을 비롯한 사림들이 정치적으로 실각하자 그 좌절감이 상당하였다. 신광한은 己卯土禍가 일어난 후 탄핵을 받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는데, 己卯土禍로 인해 대부분의 同志를 잃었고 이로 인해 관료로서 지향하던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워졌으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형국이었다. 게다가 己卯土禍의 여파로 조정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림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일 것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sup>68)</sup> 이른바 살아남은 사림파였던 신광한은 運身이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삼척 부임시의 경험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企齋記異』 수록 소설 작품 중에서 『崔生遇眞記』에는 인재 등용과 관련된 작가의 불평심이 은근하게 드러나 있다.

『崔生遇眞記』의 주인공인 최생은 「龍宮會眞詩」 30韻을 읊는데 시 중에

九年水唐堯	구년 홍수 唐堯帝와
七載旱商湯	칠년 가뭄 商나라 湯은
無非恭帝命	상제의 명령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이
一一爲黔蒼	일일이 백성을 위했다 <sup>69)</sup>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왕이 거둬 음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생은 이치에 통달한 자라고 말할 만하오. 그렇지 않소? 세상의 유학자에는 그 임금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이 있어, 水災와 旱災를 하늘의 운수에 맡기는데 만일 수재와 한재를 하늘의 운수로 여기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공들여 행하지 않는다

67) 『中宗實錄』, 「10年 5月 癸卯條」 참조.

68) 『中宗實錄』, 「14年 12月 14日條」 참조.

69) 申光漢, 『企齋記異』, 「崔生遇眞記」

면, 어찌 요·탕을 훌륭하다고 하겠소? 요·탕은 능히 수재와 한재를 막았으니, 어찌 근심하였겠소? 하늘의 운수는 그러므로 다스림과 가르침이 아주 분명하여 큰 양과 넘치는 음이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요와 탕이 애써 노력한 것이오. 하는 것이 어둡고 어리석으면 물이 마르고 산이 무너짐이 있는 것이오. 이런 까닭에 幽王과 厲王은 그것을 경계해야만 했소. 모든 것이 상제의 어짐과 사랑에서 나오니 덕이 없는 내가 공경해 밝힐 바이오. 당시 임금의 살피지 않아서 이에 하늘과 단절되었으니 매우 애통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세상의 교화가 쇠퇴하고 도덕이 은미함으로부터 河圖와 洛書의 비밀은 오래되었소. 음양과 오행의 감응함을 어찌 따를 수 있겠소? 그러하니 백성의 삶은 괴로운 것이오.<sup>70)</sup>

『崔生遇眞記』 소설 내에서의 언급이지만 신광한이 자연재해를 天災가 아닌 人災로 인식하고 거듭되는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정자가 인심을 돌아보고 修身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상의 유학자에는 그 임금에게 아첨하는 자가 많이 있어, 水災와 旱災를 하늘의 운수에 맡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천재지변을 人災로 받아들이면서 임금이 仁政을 펼 수 있도록 보필해줄 바른 인재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어지는 洞仙의 발언을 통해 뜻을 펼 수 있는 길이 막힌 자가 부득이하게 선택하게 되는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洞仙은 오래도록 슬피하다가 말했다. “나는 이 까닭으로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려 하지 않고 하늘의 淸和함의 곁에 거처하기 이미 삼백 년입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아름답고 위엄스런 시를 읊어, 인하여 고향의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옛 도시를 지나치자니 번민과 침묵에 빠져들어 한없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신선술을 배워 속세를 초월함이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sup>71)</sup>

소설 안에 등장하는 신선의 목소리를 빌려 속세를 초월하는 것이 스스로

70) 申光漢, 『企齋記異』, 『崔生遇眞記』

71) 申光漢, 『企齋記異』, 『崔生遇眞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하여 처한 것임을 은근하게 밝히고 있다. 16세기에 종종 신임을 받았던 사림파들은 당시 빈번했던 천재지변에 대한 해결책으로 恐懼修省과 합리적인 人事를 주장하면서 개혁정치와 정계진출을 꾀하였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실천적인 관료의 길을 갈 수 없게 되었던 신광한이 취했던 자세는 『崔生遇眞記』의 洞仙과 다르지 않다. 자연 속에 자신을 내맡기고 현실로부터 무심해지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마음이 편하지 못했으니 늘 “빈민과 침묵에 빠져들어 한없는 탄식”만 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인식하는 자조적 정서가 삼척부사 부임 시절 지었던 시 작품들 속에 드러나 있다.

삼척에 부임한 이후의 작품들은 贈詩 및 차운시가 주를 이룬다. 당시 신광한은 심사가 편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지어진 시 속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울분의 표출은 찾아보기 어렵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金淨(1486-1521)의 시에 보이는 “바다물결 천겹으로 막아섰으니 봉래산은 한꿈 속서 찾아볼밖에 임금님 그리나 뵈 수 없으니 날 알아 주는 이 하늘이리라[溟浪千重隔 蓬山一夢傳 思君不可見 知我者其天]”<sup>72)</sup>나 奇遵(1492-1521)의 “눈 있으나 무엇을 볼 수 있으며 발 있으나 어디를 갈 수 있는가?[有眼何所覲 有足何所投]<sup>73)</sup>·“홀로 세상 비교할 데 없는 고통 받고 보니 그 때에 죽지 아니함이 평생에 한이 되네[獨受世間難比苦 他時不死恨生平]”<sup>74)</sup>와 같은 노골적인 표현은 신광한의 작품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기묘사림 중에서 被禍로 큰 타격을 입고 유배된 이들의 작품에서는 울분이 문면에 노출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부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어조도 묻어나는 데 반해 신광한의 작품에서 이러한 어조는 거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이 시기 신광한의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

72) 金淨, 『冲庵集』 卷3, 164면, 「夢」

73) 奇遵, 『德陽遺稿』 卷3, 314a면, 「悲城頭」 27-28句.

74) 奇遵, 『德陽遺稿』 卷2, 304a면, 「次仲耕所寄韻」 尾聯.

선, ‘고독’·‘고립’의 정서가 전체적인 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고독하고 적막한 분위기는 시인의 외로움을 표출하는 동시에 속세와 동떨어진 탈속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다음으로는 자조적 어조가 드러나 있다. 被禍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작품 속에서 비판적 어조·울분의 정서가 절절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신광한의 시에는 자조적 어조·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것은 뜻을 같이 한 이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 자신이 처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相逢團坐碧江頭	푸른 강변에서 만나 단란하게 앉았노라니
去後沙邊跡恐留	우리 떠난 후엔 모래가에 발자국만 남으리
千載一歸華表鶴	천년 만에 화표주엔 학이 와서 앉았으니
去家誰識作仙遊	누 알리오 집 떠나서 신선 놀음 하는 것을 <sup>75)</sup>

서로 만남[相逢]을 계기로 作詩하였으면서도 起·承句를 통해 곧바로 이별의 쓸쓸함, 고독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만나서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국엔 홀로 남아 그 자취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삼척에서 이루어진 만남은 곧 긴 이별을 예정하는-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 수 없는-만남이었다. 당장 하루 앞의 일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시인에게는 ‘만남’의 반가움보다 ‘이별’의 비애감이 더 강하게 자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젊은 날에 도를 품고 그 해 서로 만났는데 오늘 이 날 하늘 끝서 옷깃 가득 적신다 오[青春藏義當年會 此日天涯淚滿襟]<sup>76)</sup>처럼 문면에 이별의 슬픔을 노출시킨 많은 시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의도치 않게 행해지는 술한 이별에 대한 슬픔을 절절하게 자각하면서도 시를 통해 ‘울분’과 같은 과격한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다. 轉·結句에서 오히려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관심을 환기

75) 申光漢, 『企齋集』 卷5, 293a면, 「相逢」

76) 申光漢, 『企齋集』 卷5, 293a면, 「海上口占 別京洛故舊」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선’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漢나라 遼東 사람 丁令威가 靈虛山에서 仙道를 닦아 천년 만에 학이 되어 고향 성문 앞에 있는 華表 위에 앉았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이 있는 삼척을 정령위가 신선을 닦던 공간과 일치화시키고 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직에 처하고 있는 자신의 고된 처지를 ‘신선놀음[仙遊]’으로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무리는 도학정치를 표방하던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무기력한 태도를 노정한 것이다. 무력하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은 다수의 기재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은 도학정치를 펼쳐 보이려던 이상과 훈구 세력의 집권 하에서 녹을 받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과 괴리를 초탈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된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초월적 경지를 끌어와서 시 속에 삼입함으로써 스스로를 현실에 무심한 존재로 설정함으로써 무기력한 자아상을 만들어냈다. 또한 정치적 이상이 좌절된 현 상황을 自力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時運으로 인식한 것이다.

寥落寒鷄報五更	적막한 속 새벽닭은 오경 시각 알리는데
想應隨日事俱生	생각하니 해가 떠야 온갖 일들 생겨나네
世間幾箇眞男子	이 세상에 진짜 남자 몇 명이나 되겠는가
爲孝爲忠兩責成	효도하고 충성하는 두 책임을 이룰 자가 <sup>77)</sup>

새벽녘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지은 시이다. ‘쓸쓸하고 적막하다[寥落]’는 시어는 『關東錄』 소재한 시들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起·承句에서 시인은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는 닭 울음소리에 눈을 뜬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서 천지자연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시인은 해가 뜨고 날이 밝아야 만물이 생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이어서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새벽을 통해 시인은 암울한 현 상황을 연상

77) 申光漢, 『企齋集』 卷5, 295a면, 「聞鷄鳴有感」

한다. 그러나 연상하는 것에서 신광한의 행동력은 끝나고 만다. 轉·結句를 통해 그가 슬픔을 느끼는 단계에서 생각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서 어둠을 걷어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대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세상에 진짜 남자 몇 명이나 되겠는가[世間幾箇眞男子]”라고 자문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효자와 충신의 두 역할을 동시에 해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있다. 당시 신광한은 아버지의 봉양을 이유로 힘써 외직을 구하여 삼척에 온 상태였다. 그의 현실도피에는 ‘孝’라는 구체적인 명분이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해[君主]가 잠겨 있는 상황에서는 忠臣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따라서 자신은 비록 ‘진짜 남자[眞男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효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세상에서의 책임을 免避하고자 한 것이다.

山中日日苦無營	산 속 생활 매일매일 일 없음이 괴로운데
雪盡園林春復生	눈 녹으니 동산 숲엔 새 봄 다시 이르렀다
燒燭檢書聊自喜	촛불 밝혀 문서 보며 그런대로 만족하니
世間那得更商名	세상에서 다시 무슨 이름 팔기 바라겠나? <sup>78)</sup>

起·承句에서 외진 곳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 고달프지만 이런 궁벽한 곳의 숲에도 새 봄의 기운이 깃들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엿보고 있는 것이다. 轉·結句에서는 비록 閑職이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에 그런대로 적응해 가니 세상의 명성은 바랄 것이 못된다고 읊고 있다. 앞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현실 비판·울분은 찾아볼 수 없고 도리어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넘어선 자족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신광한은 이 시기 자신의 처지를 天命으로 받아들이면서 時運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으로 고뇌를

78) 申光漢, 『企齋集』 卷5, 296c면, 「書堂偶成」

승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살아남은 자의 충정을 발휘하는 방편을 관료로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시기 신광한의 시에서 보이는 정서는 고독감·비애감이 주조를 이루며 그 이상으로 감정을 발전시킨다거나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는 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관료로서 自任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료로서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에 머무른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훈구와 사림 어떤 것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이상과 현실, 양자 사이의 간극과 그것에 수반되는 자괴감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력한 자아상을 형성하였으며, 신선놀음을 즐기며 세상일에 무심한 도가적 사유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을 작가의 도가에 대한 심취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스스로의 고뇌감을 승화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도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집착성에 매력을 느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짧은 호흡으로 써내려가는 절구시에서 비애감과 체념의 정조만을 문면에 노출시켰다면 편폭에 여유가 있는 고시를 통해서도 작가의 심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我有一銅鏡	구리거울 하나가 내게 있는데
鑄成在何年	어느 때에 만든 건지 알 길이 없네
質以百鍊剛	재질은 단련하여 매우 강하고
體似秋月圓	모양은 가을 달처럼 둥글다
當初瑩無塵	처음엔 맑기가 티 하나 없어
洞照徹天淵	환하기 하늘 연못 비춘듯했다.
能窮物妍媸	사물의 美醜를 다 비취내려
爲是空中懸	이 때문에 공중에 달아뒀는데
誤落青樓女	기방의 여자에게 잘못 떨어져

朝暮臨丹鉛	하루 종일 꾸미는데 사용되었네
靑樓千娥媚	기방에는 예쁜 여자 많고 많지만
一一爭妍嬋	하나같이 더 예쁘려 다투고 있네
出入衆懷袖	오고 가며 소매 속에 다들 품으니
遂恐中心遷	죽대마저 흔들릴까 두려웠다고
應如蟻食月	마치 개구리가 달을 삼킨 듯
皎質埋深煙	밝은 자질 안개 깊이 묻혀버렸네
我欲易百金	백금을 주고라도 바꾸려 하나
誰肯相爲先	누라고 서로 먼저 하려 하리오
願將本體明	바라건대 본체를 밝게 하여서
刮與光復鮮	깎아내어 빛 다시 선명케 되면
還能照萬物	도리어 만물을 비추게 되니
照我丹心前	일편단심 내 마음도 비춰주겠지 <sup>79)</sup>

구리거울[銅鏡]을 읊은 시이다. 구리거울에 자아를 투영하여 시인이 겪은 상황을 빗대어 서술하고 있다.

1-8구에서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1-4구에서는 구리거울이 가진 본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5-8구에서는 구리거울의 공평무사함을 말하고 있다. 본바탕은 여러 번 단련하여 강하고 모양은 가을 달처럼 둥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세속의 자잘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교우관계 또한 원만하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하여 사물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비춰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무리를 지어 ‘편 가르기’보다는 매사를 기준에 맞게 판단하려고 했던 자신을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9-14구는 구리거울이 겪은 시련을 적은 것이다. 잘못해서 기방[靑樓]에 떨어지니 온종일 가식과 마주하고 투기의 틈바구니에 끼여 거울 자체의 본성을

79) 申光漢, 『企齋集』 卷5, 291c면, 「擬古」

잃을까 두렵다는 것이다. 신광한의 현실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다. 자신의 관직 생활을 간신들이 가득하고 서로간의 견제가 심한 조정에 잘못 떨어진 것[誤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못된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현실 인식은 정확하게 하고 있으나 인식의 단계를 실천의 단계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나약하고 무력한 지식인으로 상정함으로써 하지 않는 것[不爲]이 아닌 할 수 없는 것[不能]의 양상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쫓대마저 흔들릴까 두려웠다오[遂恐中心遷]”로 집약되는 그의 심리 상태는 행동력이 결핍된 시인의 자아상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5-18구에서 “마치 개구리가 달을 삼킨 듯[應如蟆食月]” 암흑에 잠겨버린 세상이라서 밝은 자질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밝은 자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암흑 속에 묻혀버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전 모습을 되찾아 오고 싶지만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레 짐작은 이미 天命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즉, 天命이 나에게 내려지지 않았으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道가 드러나지 않는 암흑기를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22구에서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신광한이 다시 조정에 들어와서 건의한 것이 없고 오랫동안 文衡을 맡았으나 후학들을 권장한 것이 없었다.”<sup>80)</sup>라고 기록했던 사관의 평처럼 당장은 무력한 관료로, 기회주의자로 비판받겠지만 스스로 수양하며 인고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도 실현될 것이라는 신념을 내비치고 있다. 자신의 충정[丹心]에 대한 평가는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광한이 자신을 무력한 지식인으로서 상정하면서까지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었음을 알 수 있

80) 『明宗實錄』, 「1553年 1月 4日條」, “……及其復入 無所進白 久典文衡 未有獎進後學之事……”

다. 같은 지치주의 이상을 지향하면서도 급진적 개혁론자보다는 온건적 합리론자에 가까웠던 그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 2) 自然 玩賞을 통한 慰勞

신광한은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탄핵을 받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중종실록』을 참고해 볼 때 신광한이 삼척에서 지낸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가 관직을 제수 받은 것은 1520년(중종 15) 1월 13일인데<sup>81)</sup>, 그 이듬해에 辛巳誣獄이 일어나자 그 여파로 인해 1521년(중종 16) 7월 15일<sup>82)</sup> 삭탈관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부임이었지만 삼척이라는 공간, 그리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신광한 문학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신광한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도리어 문학적으로 이 시기는 신광한에게 새로운 地平을 열어주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신광한은 자신의 복잡한 심사를 작품 창작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불평심을 해소하였다. 다만 그가 처했던 一觸即發의 불안하고 위급했던 특수 상황은 관료로서의 포부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없도록 강제하였으니 자연스레 이 시기 지어진 그의 작품들 속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연경관을 통한 자기 위로 및 현실 수용의 의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작품 창작의 배경에 삼척이라는 공간-좀 더 넓게 보면 강원도 지역-이 주는 탈속적인 분위기와 삼척이 지닌 수려한 경관이 相乘效果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다음에서는 1520년(중종 15) 삼척부사로 부임하면서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는 『關東錄』<sup>83)</sup>을 중심으로 신광한이 보였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81) 『中宗實錄』, 「15年 1月 13日條」, “... 申光漢爲三陟府使.”

82) 『中宗實錄』, 「16年 7月 25日條」, “上曰, 鄭順朋 申光漢 柳仁淑 李成童 朴英 柳尙齡 李傳孫可遞也.”

한다.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산문 작품들도 함께 인용하면서 서술을 전개하겠다.

삼척부사 시절 지은 시를 모아 놓은 『關東錄』에는 모두 88題 97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앞서 밝혔듯이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들의 次第가 연대순 編次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착간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關東錄』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 중에서도 1520년 삼척부사 시절에 지은 시로 보기 어려운 시들이 있다.<sup>84)</sup> 『關東錄』 수록 작품들 가운데에서 作詩 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곳곳을 지나면서 풍광을 읊은 시와 親友들과 관련된 차운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록된 시 중에 古詩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심회를 내비치고 있는 시들이 14首에 달한다. 이와 같이 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각기 다르더라도 다수의 시 작품 안에 탈속적 정취가 배어 있으며 강호를 동경하고 유람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자연 속에 침잠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어 내는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점에서 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關東錄』에 수록되어 있는 시 작품들 중에는 신광한이 삼척으로 부임하는 길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대상화하여 읊은 시들이 있다. 그 여정을 「眞珠軒記」를 통해 살펴본다.

정덕 15년 봄 정월에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으로 나갈 것을 힘써 구하여 眞珠府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 (중략) 이 해 중춘, 서울을 떠났는데 삼월 초하루를 넘겨서야 부임하였다. 여정의 지나는 곳마다 강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진실로 매우 많았다. 星摩嶺을 타고 觀音峽을 넘어 桃源을 거치고 花遷을 지나서 頭陞嶺에 올랐다. (중략) 진주부와 령[두타령]과의 거리는 겨우 40여리이다. 두타령을 내려와서

83) 申光漢, 『企齋集』 卷5, 『關東錄』

84) 대표적으로 「送趙甥季任令公之任濟州(士秀)」(1540년作으로 추정)와 「挽朴參議(世蓊)」(1541년作) 등을 들 수 있는데, 문집 편찬 과정에서 착간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광한의 개별 시들의 창작 연대에 대한 고증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진주부로 들어갔다.<sup>8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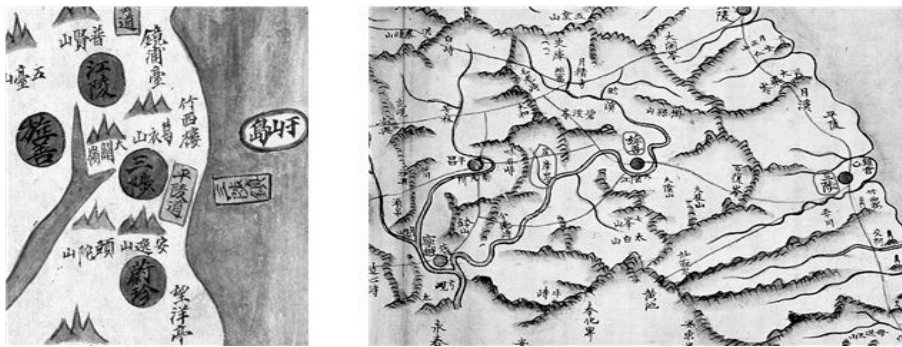
桃源은 강원도 旌善의 옛 이름이며, 眞珠 역시 강원도 三陟의 옛 이름이다. 윗 글을 통해 1520년(중종 15) 삼척부사로 부임하는 길에 지나는 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음력 2월에 서울을 출발하여 달이 바뀌어서야 도착하게 된 짧은 길이었다. 당시 신광한은 기묘사화를 겪으면서 뜻을 같이한 이들을 모두 잃은 신세였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己卯人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으니 그 처지는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이같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정치적 격변을 맞으면서도 신광한은 결국 保身하였고, 더하여 모친의 봉양을 핑계 삼아 외직으로 나갈 것을 힘써 구하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실천적 지식인을 꿈꾸었던 관료로서 가지게 되는 자괴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關東錄』에 담겨 있는 시 작품을 살펴보면 자조적 정서의 표출을 통해 무기력한 자아를 형상화하고,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다른 측면으로는 탈속적 분위기를 시 속에 담아냄으로써 시인 자신이 있는 곳을 속세와 일절 끊어진 공간으로 묘사해내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절경을 자랑하는 강원도 지역을 지나가면서 작가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을 속세와는 단절된 신선세계처럼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신광한의 소설집 『企齋記異』 수록 작품들 중에서 崔生의 용궁체험을 작품화한 「崔生遇眞記」의 배경을 이곳[삼척]으로 삼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신광한은 신선세계와 같은 풍광을 바라보고 즐기는 데에서 그칠 뿐, 자연과 하나가 되어 物我一體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을 벗 삼아 유람하고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관료로서의 임무를 염두에 두어 그 소망을 유보하는 태도를

85)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眞珠軒記」, 470c면, “……正德十五年春正月 以親老便養 力求補外 得宰眞珠古府 …… 是年仲春 離京師 越三月初吉來莅 其途道所經江山瑰觀 固已衆矣 而至於踰星摩歷觀音峽 穿桃源 過花遷 登頭陞嶺 …… 府之距嶺纔四十餘里 下嶺始入府 ……”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척으로 상징되는 강원도 지역의 塵埃를 씻어낸 참 자연의 모습은 시인에게 속세에 대한 미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고, 좌절된 심사에 위로가 되어 주었지만, 정작 시인은 그 자연 속에 은둔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관료가 일시적인 위안을 삼는 공간으로서 삼척은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었던 것은 틀림없다. 그렇기에 시인은 한편으로는 자연의 완상을 통해 실의한 처지를 위안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물에 의탁하여 그 풍광을 읊는 과정 속에 자신의 관료적 포부를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내비침으로서 시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냈던 것이다.



<輿地圖 - 江原道>86)

「眞珠軒記」에서 언급한 성마령 → 정선 → 두타령 → 삼척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여러 장의 고지도를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높고 험준한 성마령과 산세를 타고 뻗어나간 관음협곡을 지나면 강릉과 삼척의 분기점인 정선과 마주한다. 이곳에서 삼척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두타령을 오르게 되고, 40리쯤 더 가면 삼척 시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신광한은 이곳들을 지나면서 지

86) 左：刊寫者未詳，刊寫年未詳，刊寫地未詳，『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61-8.  
右：刊寫者未詳，朝鮮後期，刊寫地未詳，『輿地圖』，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61-25.

은 시들을 『關東錄』에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緣雲躋石路透遲      구름 따라 바위 올라 구불구불 길 가는데  
 獨鶴高飛羽翻垂      외로운 학 높이 날며 날개 깃을 드리운 듯  
 莫道星磨天下險      성마령이 천하에서 험준하다 말하지 마오  
 世間何地是平夷      세상에 어디인들 평탄한 곳 있겠는가?<sup>87)</sup>

신광한이 삼척으로 부임해 가는 여정을 따라 지은 시 중에서 가장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는 시이다. 이 시는 「眞珠軒記」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언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꼽았던 星磨嶺을 넘으면서 지은 시이다. 성마령은 현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과 정선군 정선읍과 북면 경계에 있는 가리왕산에 위치하고 있다. 성마령은 정선군과 경계를 이루는데 하늘에 꽂혀 있는 듯한 형세라서 얻게 된 이름이라고 한다.<sup>88)</sup> 이 고개를 넘으면 곧바로 정선군이 나오는데 옛부터 서울에서 관리들이 정선으로 발령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넘던 고개로 유명하다. 칩칩한 산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맑은 강이 더할 나위 없는 경관을 뿜내지만 그곳을 넘는 길은 험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따라서 외직으로 발령 받아 행차하던 관리들은 속세와 동떨어진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동시에 험준한 길을 지나며 僻地로 부임하는 착잡한 심경이 한층 강해졌던 것이다. 고려말 시인 許少由가 “들쭉날쭉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다[犬牙當路]”<sup>89)</sup>라고 표현했듯이 별과 맞닿았다[星磨]고 불리는 성마령은 이곳을 지나서 영동 지역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큰 관문이었으며 시련과 같은 여정이었다.

起·承句에서는 구불구불 드러난 험준한 산길이 얼마나 높은지를 묘사하고

87) 申光漢, 『企齋集』 卷5, 290b면, 「躋星磨嶺」

88) 서울大學校 奎章閣, 『江原道邑誌』 卷6, 『平昌郡邑誌』, 4-5면, 「山川」, “星磨嶺 在郡東四十五里 旌善郡界 形勢挿天故名”

89) 徐居正, 『東文選』 卷15, 「旌善郡次韻」

있다. 또한 ‘올라가다[躋]’·‘높다[高]’, ‘구름 따라[緣雲]’·‘외로운 학[獨鶴]’과 같은 표현을 통해 높고도 험하여 속세와는 단절된 고립의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轉·結句에서는 “성마령은 천하에 험준한 곳이다.[星磨天下險]”라는 통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외직에 부임하는 관리들이 울면서 넘는다는 성마령이건만 작자는 되려 이곳은 세상의 험난함에 비하면 건널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마령을 넘어가는 일은 신광한에게도 분명히 고되고 힘겨운 여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지들의 슬한 被禍를 目前에서 마주하고 돌아선 시인에게 있어서 성마령의 고된 행차는 그 마음의 짐에 비하면 오히려 약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共道春遊好	봄놀이 좋다고 다들 말하니
翩然我獨來	홀쩍 나 혼자서 찾아 왔도다
花陰隨日轉	꽃 그늘 해 따라 옮겨 다니고
山勢逐江回	산 형세 강 좇아 빙 둘러있네
每惜流芳歇	꽃향기 열어짐 아쉬워했고
頻嫌去馬催	말머리 재촉함 불만이었지
不如還柱杖	도리어 지팡이 머물러서
留跡印蒼苔	이끼에 자취를 남김만 못하리 <sup>90)</sup>

詩題에서 말하고 있는 바위 골짜기[岳城峽]는 觀音峽을 가리킨다. 『眞珠軒記』에서 仲春에 서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으니 시인이 관음협을 지날 때에는 봄이 한창이었을 것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 金弘郁(1602-1654)은 관음협을 묘사하여 “펼친 계곡 천년 지난 석벽들로 빙 둘러고 강물 가엔 구름 만 길 뿌리 채로 박혀 있다.[開峽千年蟠石壁 臨江萬仞插雲根]”라고 하였고 “내 바람은 뗏목 타고 참 근원을 묻는걸세[乘槎吾欲問眞源]”<sup>91)</sup>라고 읊었다. 이를 통해서

90) 申光漢, 『企齋集』 卷5, 290c면, 「過岳城峽」

91) 金弘郁, 『鶴洲集』 卷1, 015b면, 「度觀音峽」

이곳에 펼쳐져 있는 풍광이 아름답고 웅장하여 마치 神仙境을 보는 듯 했었  
우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首聯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봄 경치를 만났건만 자신은 혼자 있다  
[我獨]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上句에서 “봄놀이가 좋다[春遊好]”는 세상 사람  
들의 말을 소개하고 있지만, ‘봄놀이[春遊]’라는 것은 여럿이 함께 자연을 즐  
기는 것이다. 그러나 시인은 홀로 자연을 찾아왔고 또 지나쳐가야 하는 상황  
이다. 頷聯에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을 읊고 있다. 꽃그늘도 해를 따라 움  
직이고, 산의 형세도 강에 기대어 둘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 경물도 서로  
짝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존재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담히 그려내고 있  
다. 頸聯에서는 봄 경치는 한순간이라 이내 사라질 것인데 공무로 지나는 길  
이라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처지임을 말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이렇게 지팡이  
를 돌리는 것이 아쉬워서 속세와 떨어져 이끼 낀 외진 곳에 자신의 자취를  
남기겠노라고 호기를 부려본다. 그러나 제목에서 보듯이 결국은 지나가는 것  
이다. 首聯에서 예비 되었던 ‘여럿, 함께’의 이미지를 가진 ‘봄놀이[春遊]’에  
‘나 혼자[我獨]’가 대비되어 그 고독감을 더하고 있다. 「躑躅磨嶺」 시와 마찬가지로 고독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이곳에 있고 싶지만  
비록 좌천되어 가는 외직의 길이라도 관료로서의 사명감을 흐트러뜨리지 않  
는 작자의 심사가 읽어진다.

山氣雲如在	산 기운 구름이 옆에 있는 듯
燒痕綠已回	火田에는 푸른 빛이 이미 왔구나
客中驚節序	나그네라 계절 바뀐 놀라게 되고
林外繫虬虺	숲 저쪽에 지친 말을 매어 두었다
溪柳含滋暗	시내 버들 촉촉하게 그늘져 있고
村花隔野開	마을 꽃은 들관 저쪽 활짝 피었다
聊同謝家樹	謝家 玉樹 같은 그대 함께 있어서
登眺此徘徊	여기 이곳 올라와서 서성거리네 <sup>92)</sup>

이 시는 지은 곳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산길을 말 타고 가다가 봄 풍경에 느낌이 있어서 사촌 동생의 아들 趙俊秀에게 준 것이다. 앞의 삼척의 지명이 제시된 시들과 연이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때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름 떠있는 산골 마을 火田에 봄 빛이 푸르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에 함께 있는 조카의 나그네의 심상을 대변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심사를 토로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봄이 무르익고 있는 마을 내려다보며 자연 경관에 동화 되면서 작자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표현한다. 결국 謝氏네 훌륭한 자제 같은 조카와 함께 자연 속에 편안해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煙火何年到	속세 사람 어느 해에 이르렀는가
江山此處奇	자연 경관 이곳이 빼어나도다
良疇春井井	좋은 밭 봄 되어 반듯 닦이고
花木雨離離	꽃 나무 비 맞아 무성하도다
已喜初來日	처음 이곳 왔던 날 너무 좋아서
難忘再過時	다시금 지날 때도 잊기 어렵네
自慙簪紱累	부끄럽다 관직에 매여 있으며
空有老農期	쓸데없이 늙은 농부 되겠다는 계 <sup>93)</sup>

관음협을 지나면 정선을 分岐點으로 하여 강릉과 삼척으로 나뉜다. 이 시는 정선을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속의 티끌이 전혀 없는 곳, 人工이 아닌 자연 그 자체의 공간으로서의 정선을 흠모하고 있다. 훗날 신광한은 정선의 수령 金守卿에게 보낸 시에서 “일찍 삼척 부사 되어 영동 지역 지날 적에 잠깐 무릉도원 속의 신선 자취 밟았었네[曾刺眞珠過嶺東 小桃源裏躡仙蹤]”라고 회상하면서 정선의 풍광을 “숲 속에는 꿀벌들의 벌집 온통 하얗었고 서리 뒤의 돌배나무 많은 열매 붉었었

92) 申光漢, 『企齋集』 卷5, 290d면, 「歇馬道傍 示表姪趙(俊秀)」

93) 申光漢, 『企齋集』 卷5, 290d면, 「再過桃源」

지 화려한 배 저물녘에 푸른 강에 띄워두고 옥통소의 맑은 소리 맑은 달을 울렸도다[林間崖蜜千房白 霜後山梨萬顆紅 綵鷓晚浮江碧處 玉簫清徹月明中]<sup>94</sup>)라고 탈속적 정취가 물씬 배어나는 곳으로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신광한의 정선에 대한 흥미를 알 수 있으며 빼어난 자연 속에 흠뻑 빠져서 완상하는 시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頷聯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읊고 있다. 天惠의 寶庫 정선이건만 그 아름다움에 더하여 계절까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 것이다. 산과 들에 온통 봄기운이 만연하여 생기를 뿜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頸聯에서는 예전에 노닐었던 기억을 언급한다. 당시 노닐 것이 너무도 좋았기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것이다. 시인의 생각은 尾聯을 통해 집약되어 드러난다. 이곳 풍광을 짝하여 놀고 싶어서 자신이 관료면서도 시골농부 되겠노라 희망함이 부끄럽다는 것이다. 은일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이 문면에 드러나 있지만 내심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놓지 못하는 작가의 의식이 역시 함께 표출되어 있다. 尾聯의 下句에서 사용한 ‘쓸데없이[空]’라는 글자는 당장의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는 표현이다. 곧, 늙은 농부[老農]로서의 소박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자신은 관직에 매인[簪紱累] 상황에 놓여 있다고 관료로서의 사명을喚起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 詩題에서의 ‘다시 지나가다[再過]’와 頸聯 “처음 이곳 왔던 날 너무 좋아서 다시금 찾아오니 못 잊어서라[已喜初來日 難忘再過時]”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이 정선을 이미 왔던 적이 있다는 有經驗의 정황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신광한이 정선을 찾은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企齋集·別集』에 수록되어 있는 다른 시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살펴본다.

淸江白石尙依然      맑은 강물 흰 자갈은 아직 예전 그대로라  
遙拜靈君禮百神      신령님께 절을 하고 모든 신께 예 갖추네

94) 申光漢, 『企齋集』, 400b면, 「寄旌善宰金同年(守卿)」中 頷聯·頸聯

再入鳳城人不識    도성 오기 두번쨌길 사람들은 모르겠지  
 孰分塵世夢非眞    어느 누가 진세 꿈의 참과 거짓 구분하리<sup>95)</sup>

이 시 역시 「再過桃源」과 마찬가지로 신광한이 삼척부사로 부임하는 길에 정선을 지나면서 지은 시이다. 정선의 깨끗함, 淸淨無垢함을 읊고 있으며, 특히 ‘맑은 강물[淸江]’·‘흰 자갈[白石]’이라는 시어는 그러한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켜 주고 있다. 이 시 또한 ‘아직 예전 그대로라[尙依然]’·‘도성 오기 두번째[再入鳳城]’와 같은 표현을 통해 정선에 행차한 것이 처음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有經驗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사용한 것일까? 詩題를 인용함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본다.

계유년 여름, 꿈에 낯선 곳에서 놀았었다. 경진년 봄에 삼척에 수령이 되어 나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 정선에 들렀는데 강산을 지나는 곳마다 놀랍게도 예전에 왔던 곳 같았다. 두렵게 여기고 이상하게 생각되었는데 곧 지난 날 꿈에서 화려하게 놀던 곳이었다. 아! 사람의 거취가 아마도 이미 운수에 있었던 것인가?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적다.<sup>96)</sup>

시제를 통해 이 시가 이른바 데자뷰(deja vu) 현상을 詩化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有經驗을 암시한 시적 표현들이 한결 재치 있게 느껴진다. 그 꿈속 광경이 너무도 선명하여 꿈을 끝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최초의 행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광한은 눈앞에 펼쳐지는 仙境이 예전에 꿈속에서 놀던 곳과 똑같았다고 하면서 꿈이라는 허구의 세계와 지금 자신이 지나고 있는 정선이라는 곳의 공간을 同一化하고 있다. 아울러 꿈에서 보았던 공간이

95)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2, 409a면, 「癸酉夏, 夢遊異境. 庚辰春, 出守三陟. 行入旌善, 江山所歷, 恍若昔至. 惕然異之, 乃舊日夢華遊也. 噫. 人之去就, 豈有數存焉. 戲書一絕云.」

96)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2, 409a면, 「癸酉夏, 夢遊異境. 庚辰春, 出守三陟. 行入旌善, 江山所歷, 恍若昔至. 惕然異之, 乃舊日夢華遊也. 噫. 人之去就, 豈有數存焉. 戲書一絕云.」

현실에 존재함을 말함으로 자신의 꿈 속 체험이 완전히 虛無孟浪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신광한은 자신의 소설집 『企齋記異』에 수록되어 있는 「崔生遇眞記」라는 작품을 통해 臨瀛[강릉]에 사는 崔生의 용궁 체험을 형상화 하면서 작품의 배경으로 眞珠府[삼척]의 서쪽에 있는 산, 頭陀山을 설정하고 있다. 강릉과 삼척의 경계선에 있는 곳이 바로 정선이다. 그렇다면 「崔生遇眞記」 속의 최생이 봤던 아름다운 경치와 최생이 경험한 용궁에서의 화려한 놀이들은 계유년에 꾸었던 꿈 속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sup>97)</sup>

꿈을 소재로 하고 있는 記夢詩에 대해 이월영<sup>98)</sup>은 “기몽시는 꿈을 꾸고 깬 후 그 꿈의 인상·충격·의미를 잡아두기 위해 지은, 꿈을 소재로 한 시로, 제명을 일단 「기몽(記夢)」으로 삼은 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치수<sup>99)</sup>는 “이른바 ‘夢’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시 속에 단순히 ‘夢’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시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을 기술한 시이다.”라고 구분하였다. 유기혜는 詩題에 ‘夢’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詩句에 ‘夢’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기몽시를 분류하였다.<sup>100)</sup>

신광한의 위의 시를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을 기술한’ 시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작자의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과 유사한 장면을 꿈속에서 보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꿈속 이야기를 詩化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치수의 二分法을 따른다면 이 시는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은 신광한의 문학세계에 仙境을 끌어들

97) 유기옥은 『申光漢의 企齋記異 研究』(한국문화사, 1999), 67면에서 “작가의 夢遊 체험과 강원도를 지나면서 느낀 봄의 배경을 바탕으로” 『安憑夢遊錄』을 지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安憑夢遊錄』보다는 『崔生遇眞記』가 배경적 유사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98) 이월영, 「기몽시(記夢詩) 연구」, 『語文研究』 52, 語文研究學會, 2006. 123면.

99) 이치수, 「陸遊詩研究」, 國立臺灣大學, 1990. 183면. “所謂夢詩可分爲二類. 一類是在詩中使用‘夢’字的詩, 這一類詩大致不包括作夢的具體內容. 另一類詩記述夢的內容. …… 這兩類雖同名, 但其意義則不同.”

100) 拙稿,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研究」, 『漢文古典研究』 16輯, 한국한문고전학회, 64면에서 재인용.

는 ‘門’이 되어 주었기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자가 怪力亂神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듯이<sup>101)</sup> 유가적 입장에서 怪異·勇力·悖亂·鬼神의 일은 언급하기를 피하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先人들의 문학 작품 안에는 피이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적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선비 등 지식인들의 의식세계 자체가 성현의 말씀이나 文以載道的인 입장에서 수신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꿈을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102)</sup> 己卯士林의 記夢詩는 이러한 사유기반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의 시작품 속에 산견되는 것이므로 더욱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sup>103)</sup>

山東花已紅	산 동쪽 꽃들은 이미 붉은데
山西雪尙白	산 서쪽 쌓인 눈 아직 하얗네
陰陽隔一嶺	음양은 고개 하나 사이에 두고
寒暖異消息	추위 더위 다른 소식 들려준다네
艸木豈恩怨	초목의 은혜 원한 어찌 있는가?
造化豈厚薄	조물주는 어찌 대우 달리 하는가?
惟其有榮悴	그들에게 피고 시듦 있는 이유는
所以開又落	피어나고 떨어질 때 되어서겠지
鬱鬱嶺上松	무성한 두타령 위 저 소나무는
蒼翠舊顏色	비취빛 예전 모습 그대로라네
西枝寒不彫	서쪽 가지 추위에도 시들지 않고
東風吹寂寞	동쪽 바람 불어와도 고요하구나
徘徊撫長條	배회하며 긴 가지를 어루만지니
歲暮欣有托	세모에 의지할 데 있어 좋구나 <sup>104)</sup>

101) 『論語』, 「述而」 “子不語怪力亂神.”

102) 홍순래, 『꿈으로 본 역사』, 중앙books, 2007, 207면. 참조.

103)拙稿,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研究」, 『漢文古典研究』 16輯, 한국한문고전학회, 65면.

104) 申光漢, 『企齋集』 卷5, 291a면, 「詠頭陞嶺上長松」

정선을 지나 삼척 시내로 들어가기 직전, 두타산을 읊은 시이다. 「眞珠軒記」에서 두타령과 삼척 시내를 고작 40여리라고 하였는데 40리는 오늘날의 15km 가량의 거리이니 매우 근접한 거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두타산은 현재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계에 위치한 산으로 태백산맥의 主峰을 이루는 산이다.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 지방이 나뉘는데 기후와 풍토 등 여러 면에서 환경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인의 눈에 들어온 두타령에서의 풍광도 동·서로 나뉘어 달리 보였던 것이다.

신광한이 이곳을 지났을 때는 음력 2월말이었으니 봄이 한창일 때였다. 그러나 산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쪽의 풍경과 서쪽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동쪽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붉은 빛이 감돌아 한창 봄을 알리는데 서쪽에는 아직도 하얗게 눈이 쌓여 겨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4구에 서는 같은 두타령에 속해 있으면서 경계를 이루어 다른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는 자연의 오묘한 현상을 읊고 있다. 5-8구에서는 왜 이렇게 동·서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를 생각하던 시인이 이 또한 天理임을 自得하고 있다. 동쪽에 피어난 꽃이나 서쪽에 피어난 꽃은 모두 조물주가 만들어낸 생명체인데 무슨 은혜·원한의 구분이 있어 어떤 초목에는 후하게 대하고 다른 초목에는 박하게 대하겠느냐고 自問自答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니 生滅盛衰 또한 그 이치대로 진행되는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1-8구에 이르는 표현을 통해 신광한의 복잡한 내면과 自慰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지금 兩立하여 대립하고 있는 세력들도 처음에는 모두 風雲의 뜻을 품고 국정에 보탬이 되는 관료로서의 꿈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세력들은 득세하여 실권을 장악하였고 다른 세력들은 실세들의 견제를 이기지 못하고 제 뜻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채 零落하고 만 것이다. 같은 초목이건만 봄과 겨울로 나뉘는 모습에서 같은 신하이지만 영달과 쇠락의 길로 나뉘어버

린 나라를 연상한 것이다. 이어서 시인은 그 所以然을 天命에서 찾고 있다. 즉 시인은 꽃의 피고 쭉의 원인을 외재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았다. 동쪽은 따뜻하고 서쪽은 추웠기에 꽃의 有無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개화할 때가 되어 개화하였고 낙화할 때가 되어 낙화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임지 부임을 목전에 두고 신광한은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동지들이 被禍된 직후, 그들을 그렇게 만든 조정의 녹을 받으며 生을 유지한다는 것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마음의 부담은 임지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커졌던 것이다. 시인은 7-8구를 통해 모든 사물에 흥망성쇠에 관한 각각 다른 운명이 부여되어 있듯이 자신이 죽음을 면한 것 또한 自力으로 이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뜻을 은근하게 말하고 있다.

이어서 9-12구를 통해서 시인은 두타령에 서 있는 長松으로 시선을 옮긴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있는 소나무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상기하고 그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 양쪽에 걸쳐져 있는 소나무는 서쪽의 매서운 바람과 동쪽의 온화한 기운을 모두 온몸으로 받아내며 한결같은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동지들을 잃은 좌절감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조정의 녹을 받아 임지에 부임하는 신광한 자신의 신세와 倣似한 것이다. 사물의 성쇠가 만일 외재적인 것에 달린 것이라면 동쪽 꽃은 만개하고 서쪽 꽃은 시들었듯이 양 경계에 걸쳐있는 소나무 역시 동쪽 가지는 푸르고 서쪽 가지는 시들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나무는 한결같이 한 색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天命이 부여한 제각기 다른 性이 있는 것이고 그 부여받은 性대로 주어진 도리를 다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관료로 自任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의 형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만 해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마지막 13-14구에서는 모두와 동떨어져 홀로 남겨졌지만 소나무를 벗삼아 마음을 달래본다고 말하고 있다. 13구는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나오는 “외

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대노라[撫孤松而盤桓]<sup>105)</sup>를 차용한 것이며, 14구는 『論語』, 「子罕」의 “날이 추워진 이후에 송백이 시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柏之後彫也]<sup>106)</sup>를 끌어온 것이다. 속세의 일에 무심하고자 하는 마음과 관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광한의 내면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 복잡한 심사를 누르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제 몫을 다하는 것을 하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좌절을 겪은 직후, 신광한에게서 보이는 자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을 떠나 삼척의 부임지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들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시를 살펴본 결과 ①속세를 벗어난 神仙境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있다는 점, ②그곳에서 유람하고픈 희구를 드러냈다는 점, ③하지만 자연에 침잠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자연을 통한 자기 위안에 인식이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삼척으로 대표되는 강원도 지역의 산수 경관을 완상하는 행위를 통해서 작가는 관료로서의 좌절감을 위로받았으며, 이것을 세련된 문학 창작 활동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작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隱遁과 活路 摸索

### 1) 政治的 再起에의 信念

삼척부사에서 파직되고 어머니의 상을 당해 高陽에서 3년간 侍墓살이를 마친 후에 신광한이 경기도 여흥에서 본격적인 우거생활을 시작한 것은 1524년

105) 陶潛, 『陶淵明集』 卷5, 「歸去來兮辭」.

106) 『論語』, 「子罕」.

(중종 19), 그의 나이 41세 때였다. 이후 14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계진출의 활로를 모색하는 기간이었다. 신광한의 「行狀」을 살펴보면 신광한은 邵雍의 사상·문학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별히 『易』, 소옹의 象數易學에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07)</sup> 게다가 後述하겠지만 신광한이 『易』에 매료되고 침잠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본장에서는 신광한이 가졌던 象數易學에 대한 깊은 관심은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활로를 모색했던 신광한의 삶의 태도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연결고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광한의 『易』에 대한 관심은 어디에서 기인하며 왜 하필 소옹의 학문과 사상에 매료되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선행할 필요를 가진다. 신광한은 소옹의 대표적 저서인 철학 저술서 『皇極經世書』와 시문집 『伊川擊壤集』을 접하고 경도하였다.<sup>108)</sup> 특히 소옹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陰陽 交易의 원리, 변화와 생성의 원리에 감응 받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文廟에 親祭하고 明倫堂에 나아갔다. 講書官에 나누어 나가 경서를 강론하였다. 大司成 柳雲이 『易』의 도를 논하였는데, 곁들이는 사례가 곡진하게 통하였고, 여러 경서들을 두루 보아 막히는 것이 없었으며, 또 ‘仁’자의 뜻을 극진하게 논하였다. (중략) 執義 金希壽·司成 柳溥는 한갓 입으로 읽었을 뿐이었다. 弘文館 校理 申光漢도 글에 연연해 논설할 뿐이었다.<sup>109)</sup>

1517년(중종12) 신광한 나이 34세 때에 명륜당에서 강론할 때의 모습이다.

107) 申光漢, 『企齋集』 卷14, 374a면, 趙士秀 「文簡公行狀」, “長於易學 捷於推數 嘗讀經世書 有所未達 仰而思者七日七夜 假寐有老人容儀甚偉 自稱邵子 告其所未解 惕然而覺 豁然有得”

108) 신광한이 소옹의 저서를 읽었다는 경황적 근거는 拙稿, 「企齋 申光漢의 意識世界에 대한 一考察」, 『漢文學論集』 제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9-13면에 상세하다.

109) 『中宗實錄』, 「1517年 9月 21日條」, “親祭文廟 御明倫堂 分進講書官 講論經書 大司成柳雲 論易之道 旁引曲通 出入諸書 無所阻礙 又極論仁字之義……執義金希壽 司成柳溥 徒口讀而已 弘文館校理申光漢 亦因文論說”

이 때만 해도 신광한의 『주역』에 대한 이해는 문장의 의미를 겨우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字意만을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易』에 신광한이 단시간에 침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양 교역의 원리와 변화 생성의 원리가 당시 신광한이 처했던 상황과 맞물려 그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음양·오행·만물을 象과 數라는 고유한 기호를 통해 객관화 하려고 시도 하였던 소옹은 이들이 서로 交易하면서 운행하는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 였다. 程頤가 당위적인 관점에서 陽·強을 중요시하고 陰·柔를 폄하·억제 하면서 陰과 陽의 대립적 의미에서 易理를 풀어갔다면 소옹의 象數易은 작용 하는 陰陽의 상호 작용하는 이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특징을 가진 다.<sup>110)</sup> 이렇게 소옹은 음과 양을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즉 양이 극에 다다르면 음이 자라나고, 음이 극에 다다를수록 양이 점점 자라나 끊임없이 순환·반복되는 이치를 가진다고 생 각하였다. 따라서 지금 궁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여 통하게 되고 그러 다가 다시 궁해지는 순환 반복적인 질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소옹 사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111)</sup>

자신과 신념을 같이하던 동지들을 모두 잃은 채 묵묵히 인고의 삶을 살아 야 했던 신광한에게 소옹이 주장하였던 陽이 다하면 陰이 이르게 되고, 陰이 극에 다다를수록 다시 陽이 생성되는 陰陽 交易의 원리와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을 반복한다는 주장은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되었다. 지금 이 혼란기를 陽이 다하여 陰이 이르게 된, 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 식하고 이러한 혼란기를 인내하고 나면 다시 陽이 자라나는 형세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110)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479면, 518면.

111) 이호숙, 「17-18세기 노론계 문인의 소옹의 시문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 학회, 2008, 181면.

少小學孔子	어려서 공자를 배워온 이래
老大無異師	장성해도 딴 스승 삼지 않았네
前言謂可法	이전 말씀 본받을 만하다 여겼고
往行謂可追	지난 행실 추종할 만하다 했었네
昭哉精一心	밝도다 정일한 성인의 심법
萬古罔云墜	만고에 무너지지 않을 듯하니
慙慙經與籍	심오한 경전과 전적들이
奚但紙傳爲	어찌 종이로만 전해진거라
將以效當時	그 때를 본받고자 하였었는데
孰知非所宜	마땅치 않을 것 뉘 알았겠나
明明忽自惑	밝게도 갑자기 의심케 되니
若受聖賢欺	성현이 속임수 쓴 것 같구나
莊周逃世士	장주는 세상을 피한 자인데
晚欲往從之	늦게나마 그를 좇아 가려네
仲尼如可作	중니가 만일 다시 살아난다면
請復辨狐疑	의혹됨 다시금 따져 묻겠네 <sup>112)</sup>

위의 시는 기묘사화 이후 여주 원형리 은거 초기에 지어진 작품이다.<sup>113)</sup> 위의 시에서 신광한은 성인의 삶대로 세상을 바꾸려던 마음이 좌절된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공자만을 공부하며 그를 배우려고 애썼던 신광한이었다. 그러한 성인의 말씀이 책으로만 전해지면 의미가 없다고 여겨 知行合一의 신념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진심을 외면했고 자신의 동지들을 다 잃었으니 이제는 세상을 외면하며 살겠다는 원망 섞인 어조가 드러나 있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좌절시킨 혼란한 사회 속에서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광한은 기존과는 다른 인식의 틀이 간절히 필요했을 것이다. 음양을 대립적인 측면에서 보아

112) 申光漢, 『企齋集』 卷2, 245c면, 「古風」

113)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194면.

陽을 陰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陰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던 기존의 의리학적 관점을 유지한다면 신광한은 선의 무리를 몰아낸 악의 무리를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신광한이 기묘사화 기간 동안 동료들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사화 이후 죽을 때까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보를 보인다.<sup>114)</sup> 즉 그는 당시의 혼란기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인정하였던 듯하다. 이러한 그의 복잡한 심리가 “장주는 세상을 피한 자인데 늦게나마 그를 좇아가려네[莊周逃世士 晚欲往從之]”로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다.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공자의 학문을 버리고,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지향한 장자의 삶을 표방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 신광한이 陰陽交易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乾坤來往信如環	건곤이 왕래함이 진실로 고리 같은데
動靜須從此日看	동정이 따라감을 이 날에 보는구나
萬物始胎陽始復	만물 처음 잉태하자 陽 비로소 돌아오고
一冬初至雪初殘	막 冬至 이르르니 눈 그제야 스러지네
難將眇眇知時變	작디 작은 것으로 계절 변화 알기 어려우니
誰體綿綿認善端	이어짐을 체득해서 선의 단서 알 이 누군가?
戒僕莫應商旅過	중에게는 장사치에 응대하지 말라 하고
自家猶得閉柴關	나 스스로 집에 앉아 사립문을 닫아거네 <sup>115)</sup>

이 시는 눈 오는 동짓날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읊은 시이다. 首聯·頷聯에서는 겨울의 정점, 다른 한 편으로는 봄의 시작이기도 한 동짓날에 陰과 陽이

114)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189면.

115) 申光漢, 『企齋集』, 260b면, 「至日雪 偶吟」

교차되고 動과 靜이 착종됨을 관찰하며 느낌을 적은 것이다. 頸聯에서는 陰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陽의 시간이 돌아오듯, 악의 기미들이 선의 단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周易』 復卦의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아서 장사치와 여행자가 다니지 못하게 한다.”<sup>116)</sup>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陽이 처음 자라나는 미약한 때이니 이것을 기르기 위하여 안정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易』에 대한 관심과 소옹의 陰陽 交易의 원리·변화와 생성의 원리에 대한 흥미 양상이 드러나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신광한은 「五經論」에서 오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차례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는데

성인의 책 중에 큰 것으로는 五經만한 것이 없다. 그 차례는 『易』·『書』·『禮』·『詩』·『春秋』인데 세상의 다스림 또한 이와 같다. 『易』은 王道를 드러낸 것이고, 『書』는 王政을 실은 것이고, 『禮』는 王教를 기록한 것이고, 『詩』는 王化를 말한 것이고, 『春秋』는 王法을 부쳐둔 것이다. 도가 내려가면 정치 또한 쇠미해진다. 정치가 쇠미해지면 가르침 또한 미약해진다. 가르침이 미약해지면 교화가 없어진다. 교화가 없어지면 법이 문서에 의지하게 된다. 법이 문서에 의지하게 되면 천하에 훌륭한 다스림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河圖에서 획이 일어나서 獲麟에서 絕筆하였다는 것이 심오하도다.<sup>117)</sup>

라고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신광한이 五經을 중시했으며 그 차례를 『역』을 으뜸으로 하고, 『춘추』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五經의 순차와 치세의 이치가 상통함을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을 의미하는 河

116) 『周易』, 復卦, “象曰 雷在地中復 先王以 至日閉關 商旅不行 后不省方”

117)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80c면, 「五經論」, “聖人之書之大者 不過曰五經 其次則曰易 曰書曰禮曰詩曰春秋 而世之治亦如之 易闡王道 書載王政 禮記王教 詩言王化 春秋寓王法 道降而政亦衰 政衰而教微 教微而化亡 化亡而法寓於書 法寓於書而天下無善治 故畫起於河圖 筆絕於獲麟 微矣哉”

圖에서 획이 처음 그어진 것과, 공자가 『춘추』를 쓰다가 西狩獲麟의 구절을 끝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 마땅한 이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五經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易』에 그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옹은 『황극경세서』에서 “『역』은 三皇으로부터 시작하고, 『서』는 二帝로부터 시작하며, 『시』는 三王으로부터 시작하고, 『춘추』는 五霸로부터 시작한다.”<sup>118)</sup>라고 하였으며, 또한 “성인의 네 가지 창고는 『역』·『서』·『시』·『춘추』를 말하는데 禮樂이 그 사이에서 융성하고 쇠퇴한다.”<sup>119)</sup>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소옹의 이러한 五經에 대한 가치 부여가 신광한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광한의 表姪 趙士秀(1502-1558)가 지은 「文簡公行狀」에서는 신광한의 『易』에 대한 관심, 특히 소옹의 상수역학에 대한 관심을 언급한 기사가 보인다.

(진략) (신광한은) 易學에 뛰어났으며, 수를 헤아림에 민첩하였다. (邵雍의) 『皇極經世書』를 읽은 적이 있는데 통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러러 생각하는 것을 칠 일 밤낮으로 하였다. 선잠에 들었는데 용모와 행동거지가 매우 기이한 어떤 노인이 자칭 邵子라고 하니, 그에게 통달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는 바로 깨닫게 되었으며 환하게 얻음이 있게 되었다. (후략)<sup>120)</sup>

신광한이 易學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으며, 특히 소옹의 『황극경세서』를 읽고 그것에 침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洪暹(1504-1585)이 지은 묘지명<sup>121)</sup>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의 학문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118) 邵雍, 『皇極經世書』卷13, 「觀物外篇」上, “易始于三皇 書始于二帝 詩始于三王 春秋始于五霸.”

119) 邵雍, 『皇極經世書』卷11, 「觀物」53, “聖人之四府者 易書詩春秋之謂也 禮樂汚隆于其間矣”

120) 申光漢, 『企齋集』卷14, 374a면, 趙士秀 「文簡公行狀」, “……長於易學 捷於推數 嘗讀經世書 有所未達 仰而思者七日七夜 假寐有老人容儀甚偉 自稱邵子 告其所未解 惕然而覺 豁然有得”

121) 申光漢, 『企齋集』卷14, 384c면, 洪暹 「卒推誠定難衛社功臣輔國崇祿大夫靈城府院君兼領經筵知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贈諡文簡申公墓誌銘」, “……明乎易理 力於數學

자료가 된다.

신광한은 소옹의 『황극경세서』를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소옹의 학문을 깊이 이해했으며 더 나아가 소옹의 철학을自得하여 자신의 사유 체계의 한 틀로 삼았다. 신광한의 상수역학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운문보다는 산문에서 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편쪽의 방대함으로 전문을 수록하지는 못하고 집약적으로 드러난 단락을 소개하고 그 大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신묘년 7월 13일 여중이 와서 알려주기를 “아!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 채소밭에 오이가 열렸는데 한 꼭지에 두 열매가 달려서 합쳐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형상이 확연하니 제가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한 번 가져다가 살펴보니 과연 그 말과 같으니 진실로 크게 이상한 것이었다. (중략) 오이는 본래 셋으로 나누어지는 물건인데, 지금 두 개의 오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은 두개가 하나가 된 것이면서 여섯이 합해진 형상일 것이다. 두개가 하나가 된 것은 음양이 조화되어 하나가 된 것이다. 여섯이 합해진 것은 上下사방이 한 가지가 되어 합해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 (중략) 지금 나는 때에 버림을 받아서 야인이 되었다. 비록 呂安의 농사법과 邵平의 오이심기를 배웠지만 孔子가 비루하게 여긴 바가 되니 상서로움을 감응시키기에 충분한 선덕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이가 합쳐지는 기쁨이 야인의 밭에서 생겨났으니 유독 어째서인가?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말하기를 “음양이 조화롭고 상하 사방이 동화되는 것은 진실로 야인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때에 어진 자가 나와서 위로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아래로 민심을 순하게 하여 사방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임금의 덕을 보필할 수 있으면 조화로움이 위로부터 생겨나고, 민심을 순하게 할 수 있으면 조화로움이 아래로부터 생겨난다. 위아래가 조화로워지면 음양이 조화롭게 되고, 음양이 조화롭게 되면 나뉘

---

嘗見邵子皇極經世書 有所未達 思索幾六七日 至廢寢食 忽於夢寐間 遇一神人教之甚悉 覺來便覺豁然 數學自此大進 公之力於性理之學 皆此類也……”

어졌던 것이 합해질 수 있으니 사망 또한 따라서 조화로워진다. 조화롭기가 이 경지에 이르면 풍년이 넉넉하고, 세도가 빛남을 보게 될 것이니 먹던 것을 뱉고 기뻐하고 땅을 두드리며 노래할 것이니 어찌 야인의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sup>122)</sup>

「圃田合歡瓜說」이다. 이 글이 지어진 신묘년은 1531년(중종 26)으로 신광한이 파직된 때[1521년(중종 16) 7월 25일]로부터 10년이 되던 해이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날, 문득 지난날을 돌아켜보니 10년여의 시간들이 새삼 큰 무게로 다가온다. 이에 자신의 텃밭에 자란 ‘奇形 오이’를 매개로 자신의 내면 생각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이 글은 여종이 오이 밭에서 한 꼭지에 두 개가 같이 달려서 붙어버린 기형적인 오이를 발견한 것에서 시작한다. 그냥 신기하게 보아 넘길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신광한은 날카롭게 분석해 나가고 있다. 오이는 본래 한 꼭지에 한 개의 오이가 달리며, 한 개의 오이는 세 쪽으로 쪼개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두 개의 오이가 하나로 합쳐지고, 각각 세 쪽씩 여섯 쪽으로 나뉘어졌어야 할 오이가 한데 붙어있는 형상에서 陰陽의 조화와 六方의 합일을 도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시각은 일반인과는 사뭇 다른 것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일반인으로 대별되는 여종은 다른 오이와 모양이 다른 기이한 이 오이를 이상하고 꺼림칙하게 여겨 버려 버렸다. 그러나 신광한은 여기에서 조화와 합일의 원리를 발견해 낸다. 그는 뿌리가 다른 두 개의 벼가 이삭을 하나로 맺었던 현상 [穎禾]은 周公의 덕을, 보리가 양 갈래로 났던 것 [兩岐麥]은 張堪의 善政을,

122) 申光漢, 『企齋集』 卷1, 479d면, 「圃田合歡瓜說」, “辛卯七月之十有三日 有女奴來告 且曰噫 吾見異矣 西圃之田有瓜焉 一帶兩實 合而爲一……瓜本三分之物 而今者兩瓜合而爲一 此兩一而六合之象歟 兩一者 陰陽和而爲一也 六合者 上下四方同而合也 茲獨非祥耶歟……今余棄於時而爲野人 雖學呂安之灌園 邵平之種瓜 已爲孔氏之所鄙 而又無善德足以感召吉祥者 而瓜之合歡 生於野人之田 獨何歟 徐又自解之曰 陰陽和而上下四方同者 固非野人之事也 安知今之時有賢者出 能上輔君德 下順人心 以同四方者乎 能輔君德則和自上生 能順人心則和自下生 上下和則陰陽和 陰陽和則分者可合 而四方亦從而和 和而至於此 將見豐年穰穰 世道熙熙 舍哺而嬉 擊壤而歌 豈非野人之祥也歟……”

가지가 이어진 나무[連理木]는 威寧 연간의 태평성대에 대한 休徵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텃밭에 자라난 오이 역시 상서로운 조짐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내 자신같이 시대에 버림받아 野人이 된 사람에게 이러한 吉兆는 과분하니 아마도 위로는 임금의 덕을 보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켜서 사방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현인이 나올 징조가 아닐까 라고 기대하고 있다. 임금의 덕을 보좌할 수 있는 즉 화합이 위로부터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즉 화합이 아래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음양이 화합되는 형상이어서 오이 두 개가 합쳐져 하나가 된 것이다. 음양이 화합하면 나뉘어졌던 모든 것들이 합해지게 되니 이것이 여섯으로 쪼개져야 마땅할 오이가 한데 붙은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인 것이다. 이렇게 현인이 나와서 善政을 베풀면 시골 마을에 사는 서민들도 모두 땅을 치며 즐거워 노래할 것이니 이러한 연유로 시골 마을 오이 밭에 이와 같은 休徵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적 사물의 제 현상에서 그 현상을 만들어내고 완성시키고 있는 數를 발견해내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것을 선천적 자연 질서로까지 확대시켜 끌어 나가는 그의 象數的 분석 사유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象數的 분석 사유를 통해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결국 休徵, 임금을 잘 보필할 賢人이 등장할 것이라는 하늘의 뜻이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신광한이 자신은 野人이니 이러한 상서로운 조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 오이가 자라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텃밭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고의 역발상이 일어난다. 표면적으로 걸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작가는 그 상서로운 조짐이 자신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광한은 자신을 不賢者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다만 때에 버림을 받은 野人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미천하여 多能했던<sup>123)</sup> 孔子에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다. 賢

123) 『論語』, 「子罕」,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者의 출현을 바라는 마음의 이면에는 좋은 때를 다시 만나 작가 자신이 그 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懷才不遇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배어있는 것이다. 이 글을 통해 신광한은 자신의 정치적 재기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개인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하늘의 뜻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자연의 순리대로 陰의 때가 지나고 陽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믿음 아래 하늘의 뜻이 드러나 있는 數的 표상을 밝혀내는 일에 매료되고 위안을 받았던 것이다. 休徵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여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행위를 통해 정치적인 활로를 끊임없이 모색했던 이 시기 작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다음은 盧槩이 原城 서쪽 慶莊이라는 곳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청하자 그 이름을 ‘十一亭’으로 지어주면서 그 연유에 대해 밝힌 「十一亭記」라는 글이다.

(전략) 나는 ‘十一亭’이라고 그에게 지어주었다. 盧生이 사의를 표하고 나서 그 뜻을 청하니 나는 또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一이라는 것은 數의 시작이고, 十이라는 것은 數의 이루어짐인데, 정자는 하나요, 경치는 열이어서이다.”라고 하였다. (中略) 盧生이 말하기를 “정자 하나, 경치 열가지에 주인 된 자도 있어야 하니 이것은 열둘이요, 열하나가 아닙니다. 歐陽[歐陽修]의 六一이 또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이러한 종류가 아니다. 정자는 하나요, 경치는 열이요, 주인은 하나이니 ‘一十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열둘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저 정자는 주인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경치는 주인에게서 완성되었으니 하나를 가지고 십일에 이른 것이니 어찌 그 수가 그들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十이라는 것은 河圖의 수인데, 河圖의 수 55에서 반드시 5를 제거한 연후에야 大衍이 이에 이루어진다. 곧 一十一의 수도 마땅히 주인의 一을 제거한 후에야 정자의 이름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 정자의 이름은 이미 數에 제한되어 있었으니, 계곡을 만나고 만나지 못함도 또한 어찌 命

이 아니었겠는가? 數와 命을 내가 또한 어찌하겠는가? 일단 그 주인 자리를 비워 두고서 하나[정자]에 의지하여 그 열 가지[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다.<sup>124)</sup>

신광한은 노즙의 정자 이름을 정자가 하나, 정자에서 바라보이는 절경이 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십일정’이라고 지어주었다. 이에 대해 노즙은 구양수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즉 구양수가 집에 소장하고 있는 책만 여권, 삼대 이래 金石·遺文을 모아 기록한 것 천여 권, 가야금 하나, 바둑판 하나, 술 한 병이 늘 자신과 함께 하고 있기에 사물 다섯과 자신을 합쳐서六一로 자호를 삼은 것을 반증으로 삼은 것이다.<sup>125)</sup> 즉 정자와 자연 경관 사이에는 그것을 주재하고 있는 정자 주인이 있을 것이니 ‘십일정’이 아닌 ‘십이정’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는 그럴 듯한 반문이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각각을 다른 개체로 보아 ‘일십일(정자/경치/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한데 뭉뚱그려서 ‘십이’라고 말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다. 즉 정자라는 것도 주인이 발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고, 절경이라는 것도 주인이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니 그들 사이의 층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인이 없었다면 정자도 절경도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니 그 근원적인 것을 과생적인 것과 한데 아울러서 묶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24)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75c면, 「十一亭記」, “余以十一答之 盧生拜而請其義 余又答之曰 一者數之始也 十者數之成也 亭一也 景十也……生曰 一亭十景 有主者在 此十二 非十一也 歐陽之六一 亦可謂證矣 曰 非此之類也 亭一也 景十也 主人一也 謂之十一則可 謂之十二則不可 今夫亭始於主人 而景成於主人 以一至於十一 豈非有數存於其間乎 十者 河圖之數也 河圖之數五十五 必除其五 然後大衍乃成 則一十一之數 宜除主人之一 然後亭之名始得而成也 嗟夫 亭之名既囿於數 則山溪之遇不遇 亦豈非命也哉 數與命也,吾且柰何哉 姑虛其主 寓諸一而斲其十可也……”

125) 歐陽修, 『文忠集』 卷44, 「六一居士傳」, “客有問曰 六一何謂也 居士曰 吾家藏書一萬卷 集錄三代以來金石遺文一千卷 有琴一張 有碁一局 而常置酒一壺 客曰 是爲五一爾奈何 居士曰 以吾一翁老於此五物之間 是豈不爲六一乎[객이 물기를, “六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사가 대답하기를 “제 집에 소장한 책이 만 여권이고, 삼대이래 金石·遺文을 모아 기록한 것이 천여권입니다. 가야금 하나와 바둑판 하나가 있고, 술 한 병이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이 물기를 “이것은 五一[다섯가지가 한결같이 있다.]일 따름이니 어찌할 것인가?” 거사가 대답하기를 “나 이 늙은이가 이들 다섯 물건들 사이에서 늙어가고 있으니 이 어찌六一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한 단계 더 나아가 河圖의 수 五十五에서 眞元의 수 5를 제외한 후에야 大衍 수 50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곧 一十一의 수도 마땅히 그 근원이 되는 주인 一을 제거한 후에야 정자의 이름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정자의 이름은 이미 자연 법칙에 의해 그 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수가 운명적으로 한 주인과 맞닥뜨리게 됨으로 인해 하나의 象으로 형상화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즙에게 ‘一十一’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절충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주인 자리인 ‘一’을 비워두고 ‘십일정’으로 命名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광한은 「十一亭記」의 서두에서 산골짜기의 뛰어난 경치들은 외진 곳에 많아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시인들, 은자들에 의해 우연히 드러나게 되니 이들이 때를 만나지 못하고 산수를 만나는 것은 천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곧바로 노즙은 시인도 아니고 은자도 아닌데도 이러한 절경을 마주치게 되었다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sup>126)</sup> 따라서 細察해보면 결국 신광한이 정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주인자리인 ‘一’을 비워둔 행위는 정자의 주인은 시인이나 은자가 되어야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것이며, 노즙을 천명에 부합하는 정자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인 것이다. 이 역시 지금은 한갓 유생인 노즙을 주인으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절경을 제대로 드러내줄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다른 한 편으로 후대의 학자 金昌協(1651-1708)의 「三一亭記」를 떠오르게 한다. 김창협은 그의 큰아버지 金壽增(1624-1701)이 지은 정자가 보통의 건축물과는 달리 기둥이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 기문을 지었다.三一이라는 이름은 김수증이 세 기둥은 天·地·人 三才를,

126)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75c면, 「十一亭記」, “吾觀山溪佳致多在於窮僻之間 而爲騷人隱士之所遇 如柳之愚溪 騷而遇者也 李之盤谷 隱而遇者也 夫騷與隱 非人之遇 乃山溪之遇也 不遇於時而遇於山溪 亦不可不謂之命也 原城之西偏 有地曰慶莊 山溪之佳 古未有遇者 盧生濟仲遇之 盧不騷不隱而遇於山溪 既遇不遇之山溪 作亭於其間 請名於余”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대마루는 一理로 형상화하여 이름한 것이다.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정자가 이와 같은 철학적인 의미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세 개의 기둥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정자 터에 반듯하지 못한 바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세 개의 기둥밖에 세울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김창협은 이와 같이 이름을 붙이고 나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에 순응하여 지은 것이 마침 삼재의 이치에 맞아 떨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를 통해 천지간의 모든 사물은 數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象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象數學의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수라는 것은 사물마다 조금씩 달라서 일관성이 없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실상은 그 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생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sup>127)</sup>

「三一亭記」는 『麗韓十家文鈔』에 선택되어 수록되어 있는 김창협 산문 중의 명문이다. 이보다 2세기 가량 앞서서 김창협과 대동소이한 발상으로 정자의 이름을 지었던 신광한의 사고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선천적으로 자연 속에 주어져 있는 數와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 象으로 표현되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니, 상수학적 사고의 단초를 열었던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신광한 산문에 드러나 있는 소용 象數學의 관련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신광한에게 있어서 象數學에 대한 관심은 數로 형상화되는 諸現象들이 천명에 부합하는 인재가 출현하는 시대의 도래-자신이 쓰임 받는 시대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한다-와 陰陽이 교차하며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나나니벌이 배추벌레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설[蝶羸化螟蛉說]」<sup>128)</sup>에서는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순환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

127) 김창협의 「三一亭記」에 드러나 있는 상수학적 면모에 대해서는 이호숙, 「17-18세기 노론계 문인의 소용의 시문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학회, 2008, 182-189면에 상세하다. 본고에서의 논의도 그 내용을 참조·정리하여 서술한 것임을 밝혀 둔다.

내고 있으며, 「시초점을 칠 때 하나를 빼서 걸어두는 것에 대한 변론[揲蓍除掛一辨]<sup>129)</sup>에서는 상수학적 접근을 통해 진원의 수, 태극을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 치밀하게 변론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문들은 신광한이 소옹의 사유를 작품 창작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소옹 흠모 양상이 주로 신광한이 원형리에 우거하면서 창작한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가 처해 있던 난감한 상황과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광한은 소옹의 『황극경세서』 뿐만 아니라 시문집인 『이천격양집』도 읽었는데, 이것은 『기재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신광한의 산문이 주로 소옹 철학에 대한 폭넓은 수용을 드러내고 있다면, 신광한의 시문은 소옹 애호의 경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구체적 작품을 통해서 그 양상을 살펴본다.

연작시는 세계와 자아에 대한 통일되고 체계적인 인식과 정서를 표현하기 보다는 자유롭고 繼起的인 思惟를 多聲的으로 표현하는 시체로서 성리학자들에게 즐겨 이용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옹의 「首尾吟」 135수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러한 연작시는 주제가 단일하거나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나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감흥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sup>130)</sup> 『기재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작품을 살펴보면, 신광한은 누대·별장 등에서의 絶景을 꼽기 위한 방편으로 연작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1)</sup> 이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창작된 장편 연작시는 그의 문집에 세 작품이 존재하는데, 그 중 두 작품이 소옹의 시를 차운한 시 「次邵堯夫年老逢春韻 十三首」와 「和邵堯夫首尾吟 八首 逸其餘」라는 사실

128)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79b면, 「螺贏化螟蛉說」

129) 申光漢, 『企齋集』·『文集』 卷1, 469a면, 「揲蓍除掛一辨」

130) 안대희,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76면. 참조.

131) 申光漢, 『企齋集』 卷7, 314a면, 「詠歸堂十詠」.; 『企齋集』·『別集』 卷2, 411b면, 「竹西樓八詠韻」.; 『企齋集』·『別集』 卷3, 420a면, 「題畫馬屏八絶」.; 『企齋集』·『別集』 卷3, 429c면, 「企齋八詠」.; 『企齋集』·『別集』 卷5, 445b면, 「盧處士(櫟)慶莊十詠」.; 『企齋集』·『別集』 卷5, 449c면, 「十詠」. 이 외에도 다수 있으나 지면의 제약으로 다섯 수가 넘는 장편 연작시 작품만을 소개하였다.

은 주목할 만하다.

이 중 우선 소옹의 「年老逢春」을 차운한 「次邵堯夫年老逢春韻」 중 4번째 수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연작시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나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연작시가 이 작품에서는 작자의 심경을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年老逢春做好春	늘어서 만난 봄이 정말 좋은 봄날이니
十年今幸脫迷津	십년 만에 다행히도 헤매던 길 벗어났네
煙雲烏鵲無烽火	구름 덮힌 오압산엔 봉화 켜 일 없어졌고
花木元亨有主人	꽃 나무 편 원형리엔 주인만이 남아있다
永日獨吟枯戰筆	종일토록 읊조리나 힘찬 필력 말랐으니
晴窓相對炷爐薰	날 맑은 창 마주 하며 향 피우려 불 돈을 뽀
風光優我閑如許	자연 풍광 후덕하여 나 이렇게 한가하니
誰辦當時未死身	그 때 죽지 못한 이 몸 어느 누가 분별하랴? <sup>132)</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재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시들은 그 창작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작품 내에 여흥의 元亨리가 등장하고 있으니 우거 기간 동안 지은 작품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수련에서는 관직에서 벗어난 시적 화자가 한가로이 봄날을 맞이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신광한은 1507년(중종 2)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1513년에 承文院博士에 등용되어 본격적으로 환로에 들어섰다. 따라서 십년 만에 다행히도 ‘헤매던 길[迷津]’을 벗어났다고 한 것은 바로 1519년 기묘사화의 어려움을 겪고 관직을 잃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그가 여흥 원형리에 자리를 잡고 칩거를 시작하던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에서는 여흥의 산, 오압산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곳에 무료하게 홀로 남아있는 주인, 즉 작자 자신을 그리

132) 申光漢, 『企齋集』 卷3, 267b면, 「次邵堯夫年老逢春韻 十三首」 其四.

고 있다. 경련에서는 일 없는 가운데 시를 읊조려보고자 하나 예전만큼 웅건한 기상이 나오지 않으니 그냥 차분히 앉아서 향을 돋우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다. 미련에서는 조물주가 너그러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기묘사화 때 동지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 남은 자신이지만 자연 속에 묻혀 있으니 그런 생각들은 다 무의미해 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 속에 묻혀서 속세의 복잡함을 다 잊고 살아가는 모습은 실천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보면 극도로 나약하고 무책임한 정서일 것이다.<sup>133)</sup> 하지만 신광한의 처지에서 당대 현실을 갈등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자연의 순환 질서 속에 자신을 내맡기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장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이 「年老逢春」 13수는 소옹의 시 13수를 그대로 받아 창작한 것이며, 소옹이 사용한 운자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sup>134)</sup> 내용적으로는 신광한은 이 시를 통해 봄날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묘사해 내면서, 그 속에서 쓸쓸하게 속세에서 누렸던 명성을 잊고, 정치적 패배의 울분도 망각한 채 현실 초탈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시적 화자를 그려내고 있다.<sup>135)</sup> 이와는 조금 다르게 소옹의 「年老逢春」은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변해가는 자연경관의 변모 양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훑어 비교해보면 이 시는 내용 면에 있어서는 ‘늙어서 봄을 만났다[年老逢春]’라는 상황의 동질성

133) 윤채근은 신광한의 중간자적 현실 이해 양상을 지적하며 그가 현실에 대한 심각한 역사적 이해의 결핍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천적 용기의 부재는 도학파로서의 그의 위치에 큰 오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189면 참조).

134) 소옹의 「年老逢春」을 차운한 사람으로는 사마광을 들 수 있는데, 그도 3수만을 차운하였을 뿐이다. 조선에서이 시를 차운한 작가는 신광한이 유일하다. 신광한은 소옹의 시의 차례를 그대로 유지하여 차운하였으며 소옹의 其九의 작품을 신광한은 其十一에서 다루고 있다. 모든 연의 압운한 글자를 그대로 따서 사용하였으며, 수련의 1구 마지막 글자도 그대로 차용하였다. 예외가 보이는 부분은 其六의 首聯 花[소옹 시의 경우 拖], 其十三의 頸聯 陳[新], 尾聯 身[君]의 세 글자 뿐인데 이 또한 고의로 운자를 바꾸어 쓴 것으로 보기 보다는 판본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35) 其一에서는 아름다운 봄 경치를 묘사하면서 蕭蕭·惻惻의 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쓸쓸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其二의 ‘거문고 이미 줄 없는데 구태여 줄 끊겠는가[琴已無絃敢斷絃]’, 其三의 ‘조물주가 불공평함 만들었다 말들마소[莫道天公賦未平]’, 其六의 ‘이 몸 밖의 헛된 명성 무엇에다 쓰러는가[身外浮名是甚麼]’ 등 곳곳에서 제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 현실에 무감해지고 싶어 하는 그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외에는 별다른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 듯 하다. 늙어서 만난 봄에서도 신광한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적 정서를, 소옹은 철리적인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와 같이 원형리 우거기에 지어진 신광한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현실에 무심한 태도는 기묘사화 직후의 작품들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와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그가 신원복직이 되어 자신의 포부를 현실화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의 작품들 속에서 일관되게 노정되는 태도이기도 한 것이다. 다만, 신광한이 여흥에 정착한 1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민했던 조정 내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져 가는 분위기가 되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신광한 역시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작품 내에도 그러한 의식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광한은 소옹의 「年老逢春」은 全韻을 차운하였고, 「首尾吟」은 135수<sup>136)</sup>의 장편 연작시이기 때문에 그 중 8수만을 차운하여 「和邵堯夫首尾吟」을 지었다. 그러나 詩題 아래에 ‘그 나머지는 일실되었다.[逸其餘]’라고 부기된 것으로 보아 「和邵堯夫首尾吟」 또한 보다 많은 首의 작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명대 徐師曾은 「文體明辯序說」에서 “수미음이란 것은 같은 구절을 첫 구와 끝 구에 모두 쓰는 것이다. 이 체는 다른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고, 오직 송나라 소옹의 문집에만 있다.”<sup>137)</sup>라고 하였다. 「首尾吟」은 소옹이 安樂窩에 머물면서 6-7년에 걸쳐 지은 작품으로 그의 나이 60세 때(1070년)에 완성하였다. 이 시는 七言詩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매편의 첫 구와 마지막 구가 “요부가 시 읊기를 좋아함이 아니니[堯夫非是愛吟詩]”로 되어 있다. 각 편은

136) 「首尾吟」은 소옹의 『擊壤集』 卷6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에는 135수라고 하였는데 실제 수록된 것은 134수이다.(鄭珉, 「尤庵 先生 <首尾吟> 134수 管竅」, 『한국사상과 문화』 4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40면 참조).

137) 徐師曾, 「文體明辯序說」, “首尾吟者 一句而首尾皆用之 此體他集不載 唯宋邵翁有之”(鄭珉, 「尤庵 先生 <首尾吟> 134수 管竅」, 『한국사상과 문화』 4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40면에서 재인용).

유기적인 결합이 없이 그 때 그 때 보거나 떠오르는 단상들을 표현하였는데, 때 편 제2구의 마지막 3자가 ‘○○時’로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그 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sup>138)</sup> 즉, 수련에서 ‘시 읊기는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한 때이기에 예외적으로 시를 읊는다.’라고 시를 시작하고 함련·경련에서 ‘○○한 때’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하며, 미련에서 결론을 짓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신광한도 이러한 소옹의 시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和邵堯夫首尾吟」을 지었다. 비록 8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전체적인 주제의식 및 각 편 사이의 유기성을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소옹에 대한 애호를 읽기에는 충분하다. 특별히 1수-5수까지의 시들에서 그 주제가 소옹과의 연관성이 뚜렷함을 찾아볼 수 있다.<sup>139)</sup> 其一에서 소옹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을 언급하고, 其二-其五에서는 소옹의 여러 사상들을 풀이하는 것을 시의 주제로 삼고 있다.<sup>140)</sup> 신광한의 여타 시에는 哲理詩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시에서는 소옹의 사상에 입각한 철리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지면의 제약 상 其一과 其五만을 살펴본다.

先生非是愛吟詩	선생은 시 읊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却恨堯夫生異時	소옹 선생 다른 시대 태어남이 한이로다
已矣莫如長已矣	그만두자 길이 그만둬야 낫건마는
思之不置又思之	그리움을 놓지 못해 더욱 그립네

138) 김남기, 「『首尾吟』의 수용과 雜詠類 連作詩의 창작 양상-宋時烈과 金昌翁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29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67면.

139) 其六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애모하는 마음[慕父時], 其七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念母時], 其八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愛子時]을 각각 그 주제로 하고 있다. 其一에서 其五와 이후 세 수의 작품 사이에는 주제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단절이 읽히는 바, 이들 사이에 시편이 일실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140) 其一: 소옹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함에 안타까워서[堯夫生異時], 其二: 陰陽動靜의 때를 살펴 보고 나서[陰陽動靜時], 其三: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었음을 떠올리면서[包羲畫卦時], 其四: 경천위지의 때를 만나서[經天緯地時], 其五: 도를 음미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味道時]를 주제로 다섯 수를 지었다.

百三十五空遺律      백 삼십 오 시편만을 남기고 가셨는데  
 事物人天盡入題      만물 사람 모든 천리 시 속에 다 들었구나  
 珍重昔賢難可作      소중한 옛 현인을 다시 보기 어려우니  
 先生非是愛吟詩      선생은 시 읊는 것 좋아해서 아니라고<sup>141)</sup>

首聯에서는 소옹 선생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학문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마음이 발로가 되어 작시를 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頷聯에서는 그가 없는 세상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읊고 있다. 孔子는 『論語』에서 已矣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봉황새가 오지 않으며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지 않으니 나는 다 끝났다.”<sup>142)</sup>라고 말한 것에서 두드러지듯 ‘已矣’는 더 이상 성왕의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곤 하였다. 이 시에서는 더 이상 소옹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신광한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으니 소옹에 대한 짙은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각을 그만하고 싶어도 그리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경련에서는 소옹이 남긴 「수미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남긴 135편의 장편 연작시 속에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천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리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이러한 현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시를 맺고 있다. 자신이 시 짓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소옹을 이 시대에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자신으로 하여금 시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先生非是愛吟詩      선생은 시 읊는 것 좋아하지 않는데  
 詩是先生味道時      시 읊기는 선생이 도 음미할 때일세  
 語大不唯包覆載      큰 것으로 말하자면 천지 감쌀 뿐 아니고

141) 申光漢, 『企齋集』 卷9, 343a면, 「和邵堯夫首尾吟 八首」 其一.

142) 『論語』, 「子罕」, “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

至微那得小毫絲      은미한 것 이르자면 터럭과 실이 작다하랴?  
 精中便識心和性      은미한 것 곧 心과 性임을 알겠고,  
 麤處難遺食與衣      큰 것으로는 食과 衣를 빼놓기가 어렵네  
 如此生來如此死      이와 같이 태어나서 이와 같이 죽으니  
 先生非是愛吟詩      선생이 시 읊는 것 좋아해서 아니랴오<sup>143)</sup>

이 시의 주제는 ‘吟道’에 있다. 도를 음미하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이 作詩의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頷聯에서는 『中庸』의 “군자의 도는 넓고 은미하다. (中略)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능히 신지 못하며, 작은 것을 말할진댄 천하가 능히 깨뜨리지 못한다.”<sup>144)</sup>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즉 도의 쓰임은 하늘을 덮고 땅을 실어낼 정도로 광대하고, 도의 본체는 털 끝의 미세함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미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頸聯에서는 작은 것으로는 心과 性을 들고, 큰 것으로는 食과 衣를 거론하고 있다. 道를 음미하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음이 깊어져가는 작가의 모습인 함련과 경련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尾聯에서는 삶과 죽음에 초탈한 작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得道하는 순간 짧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 대해서는 전연 구속됨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和邵堯夫首尾吟」 중 두 수를 살펴보았다. 소옹에 대한 애호를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사상에 대해 신광한이 침잠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사실 소옹을 받아들인 문인들은 조선시대의 문인들만 대략 훑어보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정통 유학에서 벗어난 이학자 중에서 소옹만을 주자가 다소 인정했으므로 조선조 유학자들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광조를 서슴없이 질정하고, 기묘사림과 『성리대전』을 함께 강학하는 등 사림과 행적의 중심에 서있었던

143) 申光漢, 『企齋集』 卷9, 343a면, 「和邵堯夫首尾吟 八首」 其五.

144) 『中庸章句』, “君子之道 費而隱……故君子語大 天下莫能載焉 語小 天下莫能破焉”

145) 李勝洙,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 양상 연구-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1호 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84면.

신광한에게서 程頤로부터 “空中樓閣과 같다”<sup>146)</sup>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은 소옹을 수용한 양상이 발견된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신광한이 하필 소옹을 그 흠모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의 문제는 기묘사화를 겪은 후 그가 처하고 있었던 난감한 상황과 소옹의 陰陽消長의 원리를 연관시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소옹 흠모 양상은 신광한이 경기도 여흥에 우거한 기간에 지어진 작품들 속에 집중되어 있고, 그의 상수역학에 대한 관심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광한의 소옹 흠모 양상은 그가 처했던 정치적 입지와 무관하지 않으며, 소옹의 음양교역의 원리는 신광한의 再起에 대한 신념을 확고하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옹 사상에 대한 경도로부터 신광한의 사상적 기반과 신념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의 卜居 과정에 대한 고민으로부터는 재기에의 신념에 기반한 구체적 행동들을 찾아낼 수 있다.

옛부터 先人들은 좋은 조건을 갖춘 집을 찾아 이사를 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李重煥(1690-1752)이 『擇里志』<sup>147)</sup>에서 말한 터 잡이의 4대 조건-地理·生利·人心·山水-은 비단 한 시대에만 국한하여 만들어진 기준은 아닐 것이다. 신광한도 파직된 후 서울을 떠나 鄉村에 칩거하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이 거처할만한 곳을 물색했을 것이며, 결국 경기도 驪興 지역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14년간 생활하였다.

조선전기 특히 16세기 향촌 생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립 또는 사족이 향촌에 在地的 기반을 두고 생활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유배나 은거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향촌에서 지내게 된 경우이다.<sup>148)</sup> 이 두 가지 경우 중 신광한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46) 李勝洙,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 양상 연구-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1호 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182면.

147)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대저 살 터를 잡는 때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에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에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은 아니다.[大抵卜居之地地利爲上 生理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148) 최재남,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韓國漢詩研究』 16집, 한국한시학회,

다음에서는 신광한이 정치적 실각 후 경기도 여흥에 정착하려고 한 이유를 추론해 봄으로써 당시 그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고, 전면에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의 希求를 살펴본다.

신광한의 향촌 생활은 향촌에 在地的 기반을 두고 생활하면서 자연과 同化 되는 삶을 지향했던 여타 문인·관료들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신광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강요되지 않은 선택적 귀향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 기득 세력들에 의한 암묵적 강요로 빚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賜死되거나 流配刑을 받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30대의 젊은 나이로 “어리석고 망령되다[愚妄]”라는 죄목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 悲哀와 挫折感이 어땠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扶支하기 위해 同志를 배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또한 당장 物議가 두려워 運身할 수 없는 상황만으로도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지향하던 스스로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을 것이다.

은거지를 경기도 여흥으로 결정한 신광한의 고민 안에는 歸京에 대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신광한은 당시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伸怨復權에 대한 希求를 문면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다. 하지만 여흥으로의 낙향은 중앙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터를 잡음으로써 정보력을 유지하고, 근접 지역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킴으로써 빠른 서용의 기회를 찾으려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

몇 몇의 시작품을 통해서 그의 좌절감과 歸京에 대한 희구를 엿보기로 한다.

名利場中膝未降	명예 이익 벼슬 좇아 무릎 붙일 틈 없다가
白頭今復倚南窓	흰 머리로 이제 다시 남쪽 창에 기대었네
新居生理成微業	새 집에선 생계 위해 작은 일들 꾸리려니

---

2008, 67면. 참조.

故國煙花隔大江	서울의 봄 경치는 큰 강물에 막혀있네
心折停雲迷去路	갈 길 잃게 하는 멈춘 구름에 마음 꺾이고
意闌春酒豔深缸	술독에 넘쳐나는 봄 술에 생각 막히네
傳聲莫道無魚雁	소식 전할 기러기와 잉어 없다 하지 말라
天上池中足有雙	하늘 위와 연못 속에 두 마리면 족한 것을 <sup>149)</sup>

東江相公은 東江子, 곧 金安老(1481-1537)를 지칭한다.<sup>150)</sup> 신광한과 함께 賜暇讀書를 했으며<sup>151)</sup>, 관직 생활을 하거나 유람을 함에 있어 함께 하는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sup>152)</sup> 이 시는 신광한이 여흥에 거주한지 5년이 넘어선 1527년(중종 22) 가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53)</sup> 당시 李荇(1478-1534)은 「仲秋有懷之什 奉寄清心使君 兼示東江子」라는 시를 지어 金安鼎(1476-1533)·김안로에게 보냈는데 이 시에 대해 김안로가 21편의 차운시를 지어 여주에 있는 큰 형[김안정]과 金安國(1478-1543)·신광한에게 보낸 것이다. 김안로는 시 속에서 “은혜롭게 함께 독서당에서 혀를 놀려 강독했고 목마르면 차 술 데워 강물 소리 들었었네[恩共書堂翻講舌 渴澆茶鼎聽鳴江]”<sup>154)</sup>라고 하였는데, 신광한이 자신의 경험과의 교차점을 발견하고는 관직기를 회상하면서 지은 것이다.

149) 申光漢, 『企齋集』 卷2, 250c면, 「東江相公用江韻 作三七篇 篇中二韻 有寄意於某者 且賦讀書堂昔年事 亦因其意復之 [동강상공이 강(江)운을 사용하여 시 21편을 지었다. 시 속에 두 운은 어떤 것에 뜻을 부친 것이었으니, 또한 독서당에서의 지난 일들을 적은 것이다. 나 또한 그 뜻에 답하였다.]」 其一.

150) 金安老, 『希樂堂稿』 卷3, 307b면, “지금 나의 귀양지가 동강에 있으니 이 때문에 또한 동강자라고 불렀다.[今余謫地有東江 故亦號東江子]”

151) 金安老, 『希樂堂稿』 卷3, 309a면, 「又用前韻七首」, “국경[김안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당에서 함께 했으며, 한지[신광한]은 가장 마지막에 와서 함께 했다. 오래지 않아 내가 당상관에 오르게 되어 떠나왔다.[國卿 終始與同於讀書堂 漢之 最後來同處 未久 余陞堂上去]”

152) 위의 시, 其二 “조화가도 퇴근해도 서로 만나 함께 하니 讀書堂 雲母窓도 같이 갔었다오 은행 나무 숲 이룬 곳 북쪽 절을 유람했고 그물 쳐서 잉어 잡으며 동쪽 강을 완상했다 (후략)[朝回相遇卽相降 同去讀書雲母窓 鴨脚堆林遊北寺 琴高薦網賞東江…]”

153) 金安國의 『慕齋集』 수록 시들은 대부분 저작 시기순으로 되어 있다. 같은 운으로 지어진 시 「以營小墅, 往留梨湖. 次李擇之韻, 寄驪江金太守震卿.」(『慕齋集』 卷5, 097c면.)가 丁亥年(1527)에 수록되어 있다.

154) 金安老, 『希樂堂稿』 卷3, 309a면, 「又用前韻七首」 其五·其六.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頷聯과 頸聯이다. 頷聯에서 새로 정착한 여흥에서의 삶을 “생계 위해 작은 일들 꾸린다.[生理成微業]”라고 표현하면서 “서울의 봄 경치[故國煙花]”를 그리워하고 있다. 자연과 동화되어 농사꾼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작은 일들[微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있는 서울[故國]을 다시 그려보지만 한강[大江]에 가로 막혀 소식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와의 물리적 거리는 비교적 가깝지만 작가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상당했던 것이다. 頸聯에서는 “마음 꺾인다[心折]”·“생각 막힌다[意闌]”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작가의 좌절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워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그 시름을 잊기 위해 부질없이 술잔만 당기게 되는 것이다. 歸農하여 자연과 同化되는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歸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自嘲的 語氣 속에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歸京에 대한 의지와 서울 소식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는 것이다.

堪笑詩魔未可降	가소롭게 시 짓는 병 떨쳐내지 못한지라
十年功業在燈窓	십 년 동안 공들인 일 등불 앞에 다 있다.
罇前忽得羽書檄	술자리서 새 깃 꽃은 급한 전갈 문득 받아
醉裏如聞飛渡江	취중에도 나는 듯 강 건너는 것 들리는 듯.
敢把長槍挑屈宋	감히 긴 창 가지고서 굴원·송옥 도발하라.
勢成高屋建瓴甕	높은 집에서 물 향아리 기울이는 형세로다
毛錐未敵盟壇血	붓 놀리는 솜씨로도 굳이 혈맹 필요 없이
肉袒宜銜璧一雙	어깨를 드러내고 구슬을 물게 되리. <sup>155)</sup>

이 시 역시 江韻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27년(중종 22) 가을 작품으

155) 申光漢, 『企齋集』 卷2, 249b면, 「承示靑鶴相公仲秋夜有懷之什 兼奉梨湖相公 用其韻 衍爲五篇 輒復效顰 寄呈使君案下 非敢爲詩 欲不負勤教云爾」

로 추정된다. 긴 창[長槍]으로 대표되는 武力과 굴원·송옥[屈宋]으로 대표되는 文勢를 병칭하여 무력으로는 문세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뛰어난 문장 실력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인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굴원·송옥, 두 시인을 언급해서 때를 만나지 못한 비애감을 은근하게 내비치고, 그들의 작품이 후대에 인정을 받았듯 자신도 ‘높은 집에서 물 항아리 기울이는[高屋建瓴]’ 기세로 다시금 세상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尾聯에서 극대화되고 있는데 ‘毛錐’는 ‘붓끝’을 나타내는 것으로, 頸聯의 ‘長槍’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시어<sup>156)</sup>이다. 文筆만으로도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포부는 시어 ‘毛錐’를 ‘毛遂의 송곳[錐]’으로도 바라보게 한다. “내가 진작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송곳 전체가 다 빠져나왔을 것[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sup>157)</sup>이라던 毛遂처럼 신광한 역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자신을 알아봐주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우거가 은둔이나 절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강한 출사 의지를 내면에 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신광한의 시 작품 중에서 위와 같이 출사 의지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시 그가 처했던 상황이 세상의 이목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광한의 시작품에 작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문집 수록 차례 또한 연대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의 창작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의 내용과 시 속에 등장하는 교유 인물 등으로 추정해볼 따름이다. 몇 편의 시만으로 그가 여흥으로 卜居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156) 『舊五代史』卷107, 「史弘肇列傳」, “安朝廷 定禍亂 直須長槍大劍 若毛錐子 安足用哉”

157) 『史記』卷76, 「平原君虞卿列傳」, 16, “……有毛遂者 前自贊於平原君曰 遂聞君將合從於楚約 與食客門下二十人 偕不外索 今少一人 願君即以遂備員而行矣 平原君曰 先生處勝之門下 幾年於此矣 毛遂曰 三年於此矣 平原君曰 夫賢士之處世也 譬若錐之處囊中 其末立見 今先生處勝之門下 三年於此矣 左右未有所稱誦 勝未有所聞 是先生無所有也 先生不能 先生留 毛遂曰 臣乃今日請處囊中耳 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末見而已 平原君竟與毛遂 偕十九人 相與目笑之 而未發也……”

는 쉽지 않지만 그의 시 속에 드러나 있는 출세 지향적 성격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 등을 통해 伸怨復權에 대한 希求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지 때문에 서울 가까운 향촌에서 서울을 염두에 둔 태도<sup>158)</sup>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신광한이 여흥 卜居는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향촌 문화 세력이 형성되어 가고 있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재기에 서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一群의 문화 세력과의 연대도 고려했던 것이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은 사서에 따라 다양하다. 『기묘당적』에는 93인, 『기묘록보유』에는 129인, 『기묘제현전』에는 220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학포집』의 「기묘당금록」에는 131인, 『전고대방』에는 160인이 수록되어 있고,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95명 정도라는 연구도 있다.<sup>159)</sup> 이들은 대부분 30세 전후의 의기 왕성한 시기로 이제 딱 벼슬길에서 뜻을 펼칠 즈음이었다. 이들 중에서 극형을 받거나 유배지로 이송된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비록 신체적인 속박은 받지 않았으나 하루아침에 同志를 잃고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는 內傷을 입은 채 세상의 이목을 피해 은거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梁彭孫(1488-1545)은 능주[전남 화순], 柳成春(?-?)은 해남, 權撥(1478-1548)은 안동, 李迨(1483-1536)는 밀양, 李耜(1480-1533)는 음성으로 이주하는 등 사람들은 전국 각지로 자신의 고향을 찾아 散居하였다.

이 때 서울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경기도 일대에 은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재 신광한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신광한이 여흥 지방으로 자리를 잡기 한 해 전[1520년(중종 15) 봄], 기묘사화로 파직된 慕齋 金安國 또한 이천의 注村에 卜居하였다. 그는 선영의 땅을 팔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관직에의 복귀를 기대한 움직임이었다.<sup>160)</sup> 김안국으로 인하

158) 최재남,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韓國漢詩研究』 16집, 한국한시학회, 2008, 68면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 문인으로 金安國·金正國을 들었는데, 신광한도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다.

159)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128면.

160) 김안국은 1520년 경기도 이천 주촌에서 향촌생활을 시작한 후 1525년 봄과 1526년 두 차

여 여주는 16세기의 중요한 문화공간이 되었으며, 그와 뜻을 같이 하던 同志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다.<sup>161)</sup> 신광한을 비롯하여 李長坤(1474-1519)[경기도 驪江]·金正國(1485-1541)[경기도 高陽]·尹漑(1494-1566)[경기도 坡平]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향촌에 거주하던 처사 및 문도들·낙향지를 관할하던 수령들·기묘사화로 인해 은거하고 있는 官人 출신들·경기도 소재 사찰의 승려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하나의 향촌 문화 세력을 만들어 갔다.<sup>162)</sup> 명망 높은 문인들이 서울과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자 상대적으로 기득권층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김안국이 驪江에 있을 때 이자가 충주에서, 공[이장곤]이 우만에서 신흥사로 와서 함께 모였다. 당시 국정을 전횡하던 김안로가 내쳐진 중신들이 한곳에 모여 국사를 논한다고 여겨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sup>163)</sup>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物議를 빚게 되는 상황이었다. 신광한이 “내가 파직된 후로 여주에 집을 짓고 사람 일에 마음을 끊으니, 글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가까이할 것이 없었다.”<sup>164)</sup>라고 한 것이나 김안국이 1528년(중종 23) 겨울 여주 英陵에 당도한 왕의 행렬을 보고도 “물의를 두려워 행궁으로 배알하지 못하고 멀리서 행차만 바라보며 四拜를 올렸다.”<sup>165)</sup>라고 한 것만 봐도 이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형벌을 받은 죄수의 몸

---

례에 걸쳐 가족을 이끌고 상경하여 정치적 再起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사가 여의치 못해 벼슬길은 열리지 않았으며, 두 번의 상경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161)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382-383면. 참조.

162) 김안국이 중심이 된 경기도 이천·여주 지방의 교류상황과 교류인물들에 대해서는 拙稿,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475-476면이 참고가 된다.

163) 趙寅永, 『雲石遺稿』 卷17, 348b면, 「右贊成琴軒李公 諡狀」, “……又按月汀漫錄 曰慕齋在驪江 陰崖李公紆 自忠州 公自牛灣 來會于神勒寺 賊臣金安老謂罷散重臣 會于一處 議國家事 將致之重罪”

164) 申光漢, 『企齋集』 卷1, 480d면, 「從父兄文景公二樂亭集序」, “……予自罷廢而來 家于驪上 絕意人事 雖文墨亦無所親……”

165) 金安國, 『慕齋集』 卷5, 103a면, 「戊子冬十月, 車駕幸驪州, 拜省英陵. 臣安國畏物議, 不得祇謁于行在所, 遙望行塵, 稽首四拜. 感而有作」

은 아니지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으니 행동반경이 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遊覽과 作詩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나갔고, 비슷한 경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은 이들은 풍치 좋은 곳에 앞 다투어 別墅를 건립하였다. 학문에 정진하고 문우들과 교류하는 안식처로 삼기 위함이었는데 이곳에서 문화 세력을 형성하여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sup>166)</sup> 이들은 親友의 별서에 記文을 지어주거나, 堂號를 지어주면서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상대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였으며, 향촌 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주기도 하였다.

뗏목이라는 물건은 재목으로는 사람에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니, 비록 莊周가 이른 散材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목 중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이르는 것일 것이다. (중략) 요행히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배를 대신하게 되는 임무를 맡게 되는 일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뗏목이라는 물건은 재목 중에 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쓰임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이는 바로 장주가 이른 재목으로 쓰이는 것과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이호의 물이 넘실거리 하늘과 하나가 될 때가 되면 공은 작은 두건에 간편한 옷을 입고 정자 위에 앉아, 환한 봄날 바람이 잦아들거나 맑은 가을날 달이 밝으면 때때로 이 뗏목을 타고서 부평초나 갈매기와 더불어 떠다니면서 인간 세상을 모두 잊고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라. 쓰임이 없는 쓰임은 여기에 이르러 더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sup>167)</sup>

166)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129-130면. 참조.

167) 申光漢, 『企齋集』 卷1, 472a면, 「泛槎亭記」, “……夫槎之爲物 材而不爲人所用者也 雖非莊周之所謂散材 而亦可謂材之散者也……幸爲人所得 則用以代舟楫之任者百一焉 然則槎之爲物 材之幸者也 而用生於不爲用 此正周之所謂材與不材之間者也……方其湖水渺然 與天爲一 公幅巾便服 坐于亭上 或春明而風定 或秋清而月朗 時乘此槎 與浮萍鷗鳥 泛泛乎相忘於人世而不相屬也 夫不用之爲用 至此又無以加矣……”

김안국은 별서 곁 이호에 작은 정자 하나를 짓고 泛槎亭이라고 명명하였다. 위의 글은 신광한이 慕齋 金安國의 정자인 범사정에 적은 기문이다. 김안국이 정자를 泛槎亭이라 칭한 이유에 대해 적고 있다. 혹자가 범사정의 ‘泛槎’는 공자가 말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띄우겠다.[道不行, 乘桴浮于海]”<sup>168)</sup>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부정하고 새로운 견해를 펴고 있다. 혹자가 말한 ‘뗏목을 띄운다[泛槎]’의 의미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혹자가 『論語』를 인용하면서 ‘乘桴’를 ‘道の不在’로 파악한 데에 대해 신광한은 뗏목을 구성하고 있는 原資材, 즉 그 나무를 ‘散才’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莊子』의 개념을 끌어 설명하고 있다. 『장자』에서 말하는 散木은 인간들에게 베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 본성을 유지하는 존재이다.<sup>169)</sup>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목들은 결국 베이게 되니까 오히려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신광한은 『논어』에서의 ‘乘桴’가 아닌 『장자』의 ‘散材’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김안국 당신은 지금 정치적으로 버려져서 마치 보잘 것 없는 뗏목의 신세 같지만 원래 ‘쓰이지 않는 쓰임’이야말로 진정한 쓰임이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은근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위로는 김안국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작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自慰의 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신광한의 문집에는 이 「泛槎亭記」 외에도 앞에서 인용했던 유생 盧楸(?-?)의 정자에 ‘十一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적은 기문도 수록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광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전하는 시작품이 많은 김안국<sup>170)</sup>은 자신의 문집 안에 李綱[歸來亭]·尹彥卿[所逸亭]·閔推[靜

168) 『論語』, 「公治長」,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 由也好勇過我 無所取材”

169) 『莊子』, 「山木」, “莊子行於山中 見大木 枝葉盛茂 伐木者 止其旁而不取也 問其故 曰 無所可用 莊子曰 此木以不材 得終其天年……”

170) 김안국의 교유 인물 범위가 신광한의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유 상황 또한 완전하게 같은 조건이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유 인물 범위와 교유 양상에 있어 상당 정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신광한의 경우 시작품에 연대 표기

逸亭]·金孟和[幽逸堂]·權貺[快逸亭]·鄭世雄[見碧亭]·崔凌[逸觀亭]·柳順源[優哉亭]의 별서에 이름을 지어주며 지은 시들을 여러 편 싣고 있다<sup>171)</sup>. 또한 이장곤의 호를 ‘寓灣’으로 지어주게 된 경위<sup>172)</sup>도 남기고 있는데 이렇듯이 시기 향촌 생활을 함께 누렸던 이들은 서로의 별서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호를 지어주면서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글을 교환하는 이러한 행위가 소극적 교유의 한 형태였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명승지를 유람하고 시를 짓는 것은 적극적인 교유 형태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은 주로 향촌에 거주하고 있던 처사나 유생들과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시를 짓고 강론하면서 소규모의 문화적 공동체·동질 집단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김안국의 경우, 경기도 이천에 所在한 嚴用順(?-?)의 정자 六槐亭을 중심으로 모여 정기적으로 시회를 열었다. 육괴정이라는 명칭은 모재 김안국·葵亭 姜瀾(1492-1552)·溪山 吳慶(?-?)·退休 任肅臣(1512-1588)·斗文 成聃齡(?-?)·南塘 嚴用順의 여섯 선비가 우의를 기리는 뜻으로 정자 앞에 여섯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여섯 명의 선비들을 세상에서는 ‘槐亭六賢’이라고 했다고 한다.<sup>173)</sup> 이와 같은 정기적인 모임은 신광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三三九九年年會      삼진날과 중구일은 해마다 오건마는  
舊約猶存事獨非      옛 약속은 남았는데 만날 일은 글러졌네  
芳草踏青今日是      꽃다운 풀 답청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가 없어서 자칫 우거기의 작품이 아닌 것을 牽強附會할 위험성이 있기에, 가급적 저작 시기가 분명한 작품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설명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저작 시기가 분명한 김안국 작품의 일부를 예시하였음을 밝혀둔다.

171) 拙稿,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172) 金安國, 『慕齋集』 卷6, 118c면, 「寓灣公次前韻以送 復走筆次寄」 夾註, “李二相希剛公罷官寓居驪州之祐灣 自號祐灣病叟 余謂祐非江湖之雅稱 請改爲雨灣 公不受曰 美則美矣 涼涼冷冷非宜於病骨 余嗔其狃俗而却推 復請改以躡字以戲之 公知其調已 又却而不 最後請改以寓字 公拊掌欣然曰 是真 於我 改號寓灣叟 詩以及之 故余 三字之意 和復以戲之”

173) 『利川市誌』 卷2, 「인물과 문화유산」,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2001, 141면. 참조.

淸罇浮白故人違	맑은 동이 흰 술을 옛 친구가 저버렸네
風前燕語聞初嫩	바람 앞의 제비 소리 가너리게 들리고
雨後花枝看亦稀	비 내린 뒤 꽃가지 또한 보기 어렵네
茅洞丈人多不俗	모동의 장인이야 속된 사람 아니라서
可能無意典春衣	봄옷을 전당잡힐 뜻이 능히 없겠는가 <sup>174)</sup>

韓致淵은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의 저작시기를 계사년(1533년(중종 28)) 3월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75)</sup> 이 때는 신광한 나이가 오십이 되던 해였고, 향촌 생활을 시작한지 12년차에 접어드는 해였다. 首聯을 통해서 삼진날과 중구일에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한 약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詩題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월 삼진날 모동의 박대구 덕장[朴燦]에게 부치다. 일찍이 허곡의 이군[未詳]과 평촌의 윤생[尹友衡]과 함께 三三九九會를 결성하기로 약조하였는데, 이제 허곡은 병이 들고 평촌은 강 건너에 있어 이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는 모동만 남았다. 우연히 읊시 한 수를 지어 보인다.<sup>176)</sup>

신광한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三三九九會’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구성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시는 許筠의 『惺叟詩話』에서 ‘淸暢’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는데<sup>177)</sup> 신광한의 『기재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제를 참고하여 보면 모동에 사는 박찬·허곡에 사는 이군·평촌에 사는 윤우형이 ‘三三九九會’를 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유는 “元亨里·虛谷·坪村 세 마을에서 예전부터 ‘三三九九會’를 가져왔었다.[元亨

174)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54c면, 「三三日 寄茅洞朴大丘德璋 曾與虛谷李君 坪村尹生 約爲三三九九之會 今者 虛谷有疫 坪村阻水 能繼此會者 獨茅洞在 偶成一律 以示之云」

175) 韓致淵, 『海東釋史』 卷48, 「藝文志」.

176) 註 174) 참조.

177) 許筠의 『惺叟詩話』에서는 이 시를 「三月三日寄朴大立[삼월 삼진날에 박대립에게 부침]」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朴大立이 아닌 朴大丘, 즉 朴燦에게 보낸 시로 보인다.

虛谷 坪里三村,舊有三三九九之會.]”<sup>178)</sup>라고 한 데에서도 확인된다.<sup>179)</sup> 그러나 이와 동일한 시가 十淸軒 金世弼(1473-1533)과 陰崖 李耔(1480-1533)의 문집에도 보이면서 ‘三三九九會’의 구성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김세필과 이자의 기록을 살펴본다.

企齋[申光漢]가 陰崖[李耔]와 十淸先生[金世弼]과 함께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介山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해마다 늘상 하였다. 뒷날 신광한과 이자, 두 사람은 와서 모였는데 선생[김세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벗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시를 지어 朴大丘[朴燦]에게 부친다.<sup>180)</sup>

가정 12년[1533, 癸巳](54세) 3월에 申企齋[申光漢]과 함께 介山에서 만났다.

(선생[李耔]은 十淸[金世弼]·企齋[申光漢]와 함께 3월 3일과 9월 9일에 介山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기를 해마다 늘상 하였다. 이 해 重三日에 선생[이자]와 기재[신광한]은 와서 만났으나 십청[김세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말하였다. 『기재집』을 살펴건대 3월 3일 茅洞의 朴大丘[燦]에게 시를 보내 말하기를 (시 내용 생략) 라 하였으니 이 날 지은 것이다. 선생[이자] 또한 시를 지었을 것이나 산일되어 전하지 않는다.)<sup>181)</sup>

詩題에 따라 頷聯의 ‘故人’이 가리키는 사람이 다르게 되어 흥미롭다. 『기재집』의 기록에 따르면 몸이 불편한 李虛谷과 거리적으로 떨어진 尹坪村이 될

178)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44c면, 「元亨 虛谷 坪里三村 舊有三三九九之會 丙申九月初六日 預作申會之約 至八日 乃聞妹婿奉羅牧續夫之逝 九日 悄坐悼懷 感念存沒 有作」

179) 이 외에도 「李虛谷和三三日詩韻見寄 復步以酬」·「重陽日 招李虛谷 尹坪村」·「李虛谷和寄九日詩二首 復步其韻」·「三月三日 招尹 李兩君 同與踏青」·「癸巳三三日 寄茅洞朴瑞山 兼示虛谷李君 坪村尹君」 등의 시에서 이들의 만남이 지속적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80) 金世弼, 『十淸軒集』 卷4, 272b면, 「三月三日 寄茅洞朴大丘(燦)」 夾註, “企齋 與陰崖及十淸先生 約以三月三日 九月九日 會于介山 歲以爲常 後申 李兩公來會 而先生已下世 不堪山陽之懷 作此詩 寄朴大丘”

181) 李耔, 『陰崖集』, 071a면, 「年譜」, “十二年癸巳(先生五十四歲) 三月 與申企齋(光漢) 會于介山 (先生與十淸企齋 約以三月三日九月九日 會于介山 歲以爲常 是年重三 先生及企齋來會 而十淸已下世 不堪山陽之懷云 按企齋集 三月三日 寄茅洞朴大丘燦詩曰……卽是日作也 先生似亦有詩 而逸而不傳)”

것이며, 다른 두 기록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金世弼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시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통하여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신광한이 ‘三三九九會’를 결성하여 교유를 지속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결국 김세필·이자와는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는 약속만 했을 뿐 세상의 이목과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그 모임이 성사되지 못했고, 경기도에 거주하던 유생인 이허곡과 윤우형과는 지속적으로 실제 모임을 성사시켰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만남과 작품의 창작활동은 당시 경기도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의 部面을 이루었을 것이며 상황적 동질감을 공유하는 한 방식으로 역할 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신광한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소옹 사상의 흐름 양상에 주목하고 그가 14년간의 우거기 동안 소옹의 상수역학에 집중하였던 것은 신광한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적 재기의 신념을 유지하는데 소옹의 음양교역의 원리가 긍정적인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뒤이어 정치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서울과 근접해 있는 경기도 여흥으로 卜居하고 작품 속에 歸京에의 의지를 담아내었으며, 一群의 향촌 세력과 교유를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즉, 소옹 사상에의 경도는 그의 정신적 지향을 보여주는 측면이라면 여흥으로의 卜居는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신광한이 거주하던 지역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구체적인 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驪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유정황과 신광한의 활동상을 살피고자 한다. 기묘사화 직후 삼척 지역에서 지어진 시 속에서의 自然이 완상물로써 작가 자신을 위로하고 현실정치로부터의 무심해 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면, 우거기의 自然은 신광한에게 있어서 교유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媒介物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2) 自然을 媒介로 한 交遊

다음에서는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문인 집단들의 유람과 시창작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흥 지역-원형리 기재·청심루[팔대수]·신록사-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① 元亨里의 企齋



<사진 左: 元亨里의 현위치 / 中: 企齋 터 추정 위치 / 右: 天民川의 현위치>

신광한은 1524년(중종 19) 낙향한 후 成均館 大司成으로 복직하는 1538년(중종 33)까지 14년간 여흥의 元亨里에서 생활하였다. 元亨은 『周易』 乾卦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에 속하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좇아 살면 크게 길하다는 의미이다. 예기치 않은 불운을 만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시절 신광한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신광한이 거주했던 원형리는 현재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元富里 일대로 추정되며, 그 앞을 지났다는 天民川은 청미천으로 改名된 것으로 보인다.

집을 ‘바란다[企]’고 이름한 것은 무엇을 바란다는 뜻인가? 나의 조부[신숙주]를 바란다는 것이다. 나의 조부는 당을 希賢[어진이를 본받기를 바란다]이라 지었는데, 내가 나의 집을 企齋라고 이름하여 나의 조부를 바란다 하였으니 어진이를 바라는 것이다. 어진이를 바라는 것은 성인을 바라는 것이요, 성인을 바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는 것이니, 바란다고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바라서는 아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바라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라고.<sup>182)</sup> (후략)

신광한은 원형리에 企齋를 짓고 自號로 삼았으며,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北宋의 周濂溪가 말하기를 “성인은 하늘을 본받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을 본받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을 본받기를 바란다.[聖希天 賢希聖 士希賢]”<sup>183)</sup>고 하였는데, 신광한 역시 현인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확장시켜 결국 하늘을 본받고자 하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어진이를 본받고, 성인을 본받고, 하늘을 본받기 위해서 그가 힘썼던 것은 독서요, 독서를 통한 私淑이었다. “책에는 어진 사람이 있으니, 어진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바라게 되고, 책에는 성인이 있으니, 성인을 보게 되면 그를 바라게 된다.”<sup>184)</sup> “나의 집 안에 향초 하나와 거문고 하나, 책 만권이 있다. 때때로 향을 사르고 거문고를 타며, 거문고를 놓아두고 책을 읽으니, 그 또한 바라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sup>185)</sup>라고 한데에서도 역시 책을 읽고 강학하며 세월을 잊으려 하던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幽人早起營何事      은거한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을 경영할까  
清曉銷香護性靈      맑은 새벽 향 사르며 性靈을 보존하네

182) 申光漢, 『企齋集』 卷1, 471d면, 「企齋記」, “齋以企名 何企也 企吾祖也 吾祖名堂以希賢 吾名齋以企 企吾祖 所以希賢也 希賢則希聖 希聖則希天 非企之所可及也 然則企不可爲歟 曰將無所不企也……”

183) 朱熹·呂祖謙, 『近思錄』 卷2, 「爲學」, “濂溪先生曰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184) 申光漢, 『企齋集』 卷1, 471d면, 「企齋記」, “書有賢焉 見賢焉則企之 書有聖焉 見聖焉則企之”

185) 申光漢, 『企齋集』 卷1, 471d면, 「企齋記」, “吾齋之中 有香一炷 有琴一張 有書萬卷 時或焚香而鼓琴 捨琴而讀書 其亦有所企乎”

朝日上時虛幌白      아침 해 떠오를 때 텅 빈 장막 환해지고  
宿雲收處遠山青      묵은 구름 걷힌 곳엔 먼 산이 푸르러라<sup>186)</sup>

원형리에서의 생활을 읽을 수 있는 시이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시간적 배경은 역동성과 닿아 있다. 무엇인가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무엇인가 깨달으면 그 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날이 밝기도 전부터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sup>187)</sup>이다. 그러나 이 아침, 은거한 이[幽人]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자신 속에 침잠하여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보존하려 애쓸 뿐이다. ‘밤사이 쉬면서 양심이 싹튼다고’<sup>188)</sup> 성현도 말했듯이 작가는 전연 俗氣가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사물들이 제 物色을 찾게 되는 아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企齋라는 곳은 신광한이 생활하던 사적 공간으로서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장소로서 기능하였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찾아오는 이와 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다만 청심루나 신록사 등의 명승지와는 달리 企齋는 개인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류한 인물들은 至親들에 국한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深冬寒幌雪飄緗      깊은 겨울 찬 휘장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永夜青燈耐寂寥      긴긴 밤에 청등 켜고 쓸쓸함을 감내했네  
質自有人方試斲      자질도 사람 있어야 시험 삼아 따져보고  
木能無朽可加雕      나무도 썩지 않아야 조각할 수 있는거네

186) 申光漢, 『企齋集』 卷7, 319c면, 「企齋曉坐」

187) 『尙書』, 「湯誓」, “伊尹乃言曰 先王昧爽丕顯坐以待旦……”; 『孟子』, 「離婁下」, “周公思兼三王以施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

188) 『孟子』, 「告子上」,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從師莫怪空垂橐      스승 따라 빈털터리 됨 꺾이치 마시게나  
 求益元非在掘苗      이익 얻음 원래 조장해서 되지 않는다오  
 識路疾驅收汗馬      길 알아야 바삐 몰아 날쌔 말을 얻을거고  
 佇看游刃發硯刀      칼을 놀려 날이 선 칼 되어감을 지켜보리<sup>189)</sup>

1526년(중종 21) 겨울, 여흥으로 조카사위가 찾아와서 신광한에게 배웠는데 그 때 지어준 시이다. 스승으로서, 벼슬길의 선배로서 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사람이 존재해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조각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의 평가도 나무가 존재해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본질이 있는 후에야 수식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니 본바탕을 다지는 데에 충실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실의한 늙은이라 베풀어 줄 것이 없으나 이 모든 것이 人事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精進한다면 반드시 날쌔 말[汗馬]과 날 선 칼[硯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신광한은 비록 정치의 일선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좌초되었지만, 향촌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이 훗날 기묘사림들이 復權하는 기반이 되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萍水重逢亦有時      부평처럼 떠다녀도 다시 만날 때 있겠지  
 夜闌秉燭不勝悲      밤 깊도록 등 밝히고 슬픈 마음 못 가누네  
 傾心各盡杯中酒      속마음은 잔 가득한 술에다가 쏟아내고  
 對面還吟夢裏詩      얼굴 맞대 꿈속에서 지은 시를 되려 읊네  
 花硯可能謀後會      花硯 땅서 도모한들 뒷날 모임 되겠는가  
 空林終擬訪前期      空林寺를 찾겠다던 이전 약속 지키려네  
 春風一杖猶堪策      봄바람에 죽장 짚고 말 채찍질 해 가리니  
 見說名山是俗離      이름난 산 俗離山이 그리 볼 만 하다던데<sup>190)</sup>

189) 申光漢, 『企齋集』 卷3, 259d면, 「丙戌冬 姪女婿尹生來余學 以示之」

三從兄인 申潤輔(1483-1558)가 원형리에 방문했을 때,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쓴 시이다. 신광한은 동쪽 못의 봄물[東池春水]·울정의 밝은 달빛[栗亭明月]·남쪽 밭의 농요[南畝農歌]·노석의 고기잡이[露石釣魚]·평리의 아스라한 꽃[坪里煙花]·천민천의 먼 배[民川遠帆]·오압산의 저녁햇살[鴨山秋色]·관야의 갠 눈[鶴野晴雪]을 企齋 八詠<sup>191)</sup>으로 꼽을 만큼 기재에서 보이는 자연 풍광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함께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자연 경물들을 읊으며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지금 이별하면 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인연이기에 가는 밤이 더욱 서글프고 뒷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花硯은 ‘꽃벼루’, ‘꽃별’이라 불렀던 오늘날의 江原道 橫城郡 屯內面 石門里 일대를 말한다. 아마도 原州牧使를 역임했었던 신윤보가 그 지방의 花硯땅에서의 재회를 기약하였던 듯하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뒷날 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이전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空林寺 방문이나 지켜볼 계획이라며 속리산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니 그곳에도 가보고 싶다고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空林寺는 忠北 槐山郡 靑川面 沙潭里에 있는 절이며 忠北 報恩郡에 있는 속리산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게다가 靑川은 큰 형과 누이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이었다.<sup>192)</sup> 신광한은 두 누이를 보지 못한채 39년을 보냈으니<sup>193)</sup> 靑川에 가고 싶은 마음이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광한은 여흥의 기재에서 강학을 하며 후진을 양성했으며, 이따금 술자리를 마련하여 회포를 풀고 至親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던 것을 알 수 있다.

## ② 淸心樓와 八大藪

淸心樓가 처음 지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1,200년

190)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431a면, 「保恩宰三從兄斐卿 來訪元亨村墅 夜對書示(卽申潤輔)」

191)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3, 429c면, 「企齋八詠」

192)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52c면, 「爲省伯兄一姊二娣 向靑川……」

193)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53b면, 「不見二姊三十九年 謁罷 書一絕 示姪輩」

대 초에 활동하던 李奎報(1168-1241)의 시에 강루가 나오고, 1,200년대 후반에 朱悅(?-1287)이 청심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800여년 전에 건립되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사진 上: <해동지도> 여주목 청심루 부분(18세기 중엽 제작)

下左: 청심루터 (現 경기 여주읍 창리 여주초교 건물 뒤편 소재)

下右: 청심루터 맞은편으로 보이는 八大藪 터 (現 공터)>

위의 <해동지도>에서도 보이듯 청심루는 여주 관아 안에 있던 건물이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명한 선비들만 청심루를 소재로 하여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194)</sup> 청심루는 현재 여주초등학교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청심루터’라는 표석만 남아있다. 『世宗實錄地理志』를 참고하면 “八大藪는 驪江 북쪽에 있는데, 옛날부터 貝多藪라 일컬

194) 조성문,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1면. 참조. 조성문의 발표문은 청심루와 팔대수의 유래에 관해 이해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만하다.

었다”<sup>195)</sup>고 하는데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넓은 늪이 형성되었던 이곳은 민물조개가 많이 잡혔다고 하여 조개늪[貝多藪]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팔대수는 현재 여주의 북서편 짜리산 산자락부터 북내면 현암리와 북내면 오학리 남측 남한강변에 이르기까지 평탄하게 동서로 길게 펼쳐진 고수부지와 경작지 일대로 추정된다.<sup>196)</sup>

청심루와 맞은편으로 보이는 팔대수는 여흥 지역의 대표적 명승지였다. 신광한은 이곳에서 諸君들과 주연을 벌이며 시를 짓곤 했다.

樓下魚龍亦解降	누대 아래 어룡들도 숨어있기 그만두니
使君爲政敞雲窓	고을 수령 다스림이 구름 낀 창 열어 젖힌 듯
淸心八大無邊月	淸心樓와 八大藪엔 끊임 없이 달이 뜨고
神勒黃驪不盡江	神勒寺와 黃驪縣엔 강 물줄기 끝이 없다.
焉用割鷄游利刃	닭요리에 어찌 날카로운 칼날 휘둘리오
莫須喫酒費深缸	술 뺏는데 깊은 술독 허비하진 말아야지
一炊未熟人先老	기장밥이 익기 전에 사람 먼저 늙어가니
鏡裏分明雪映雙	거울 속 양 귀밑머리 분명 흰 눈 내렸구나. <sup>197)</sup>

태평성세에 절경을 완상하며 노니는 즐거움이 문면에 드러나 있다. 여흥 지역의 손꼽히는 경관으로 淸心樓・八大藪・神勒寺・黃驪縣[驪江]을 품으면서 고을 수령이 잘 다스려 걱정할 것이 없으니 자연 경관을 벗삼아 놀아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의自嘲的 語調는 頸聯과 尾聯에서 표출된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割鷄焉用牛刀]”<sup>198)</sup>라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힘을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였으며, 東漢의 欒巴가

195) 『세종 지리지』, 「경기·광주목·여흥 도호부」, 한국고전종합 DB.

196) 장동수, 「경기 여주 팔대장림(八大長林) 복원계획」,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4면. 참조.

197) 申光漢, 『企齋集』 卷2, 250a면, 「驪江使君 用江韻 賦二律 求和」

198) 『論語』, 「陽貨」, “子之武城 聞絃歌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

황제가 하사한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내뿜어 비를 만들어서 성도 저잣거리의 화재를 진화했다는 고사<sup>199)</sup>를 들면서 술 뿜는데 술독의 술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관료로서 민생에 도움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들 그 이상을 실천할 길이 없는 신세이니 마음을 비우고 세월을 잇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귀영화를 누리 보기도 전에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정치적 좌절과 늙음에 대한 自嘆을 내비치고 있다.

이 시에서 사용된 江韻은 이행의 「仲秋有懷之什」이라는 시에서 여주의 경관을 읊는 데에 사용한 운자이다. 이행이 이 시를 지어 김안정·김안로 형제에게 보낸 이래 여주에 은거하고 있던 김안국·신광한과 여주 목사 김안정이 이 江韻을 사용하여 시를 지어 서로 교류하였다. 훗날 김안정이 임기가 되어 상경할 때 송별의 자리에서 김안국과 신광한은 모두 이 江韻을 사용하여 淸心樓 四景<sup>200)</sup> 시를 지었으니 서로간의 끈끈한 교유를 살필 수 있다.

山似高人瘦不降	산은 고상한 이 닳아 척박해도 굶하지 않고
水如明鏡冷涵窓	물은 맑은 거울 같아 차갑게 창 물들인다
鷗洲夜白沙籠月	백구 물가 밤에 밝아 모래사장 달 감싼듯
官樹霜深錦濯江	관청 나무 서리 깊어 금빛 강물 씻겨진듯
四座淸談飛玉屑	사방에서 맑은 얘기 옥가루가 흩날리고
十分名醞凸金缸	맛있는 술 가득 차서 황금동이 불룩하다
煙霞有興長留客	안개노을 흥취 있어 객을 오래 붙잡으니
鳧舄差池定幾雙	오리신발 어긋난 게 정히 몇 쌍이었던가 <sup>201)</sup>

199) 歐陽詢, 『藝文類聚』 卷78, 「靈異部上·仙道」, “神仙傳曰……爨巴者 蜀郡人也 正朝大會 巴獨後到 又不飲而南嘆 有司奏巴大不敬 有詔問巴 巴頓首謝曰 臣鄉里以臣能治鬼護病 爲臣生立廟 今且耆老皆入臣廟 不可委之 是以頗有酒色 臣適來 本縣成都市上失火 臣故嘆酒爲雨以滅火 非敢不敬 罪當可坐 詔原復坐 卽驛書問成都 成都答言 正旦失火 食時有大雨從東北來 火乃息 雨皆作酒臭”

200) 金安國, 『慕齋集』 卷5, 102c면, 「淸心樓四景 復次容齋相公韻 奉呈金震卿錢席」 夾註, “吾同年金震卿 分<sup>四</sup>不無一麾之唱 然與余湖山杯酒之歎 亦不<sup>四</sup>少 其拱滿而還朝也 祖餞梨湖之游 既不可得以牽挽 愴慘無聊之餘 謾次容齋平日寄贈詩韻 追道淸心四時登賞之興 若爲誘勸而侯留者 冀尙少淹一刻 以慰惜別無窮之意 兼爲他日弊懷不忘之資云”; 申光漢, 『企齋集』 卷2, 251b면, 「使君請賦淸心樓四詠 復用江韻」

淸心樓 四詠詩 중 한 수 이다. 같은 운으로 지어진 김안국 『모재집』 수록 淸心樓 四景詩를 참고해 보면 여주 목사 김안정이 임기가 다 되어 還朝하자 전별연을 가지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은 淸心樓詩에 대해 ‘사계절 청심루에 올라서 감상하던 흥취를 떠올리며[追道淸心四時登賞之興]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별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의 모습을 仙境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과 물을 “고상한 이[高人]”와 “맑은 거울[明鏡]”에 비유하여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리고 있으며, “백구[鷗洲]”와 “관청 나무[官樹]”를 통해 白과 靑의 색채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 이미지를 한층 더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까지 만나 시를 지으니 옥가루가 흩날리는 듯 하고[玉屑] 속마음을 터놓고서 취하도록 마시니 황금동이에 담긴[金缸] 술 마냥 그 맛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운 놀이가 점점 끝나가니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이 모임은 마음 맞는 수령과의 무기한 이별을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尾聯에서는 아쉬움의 마음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오리 신발[鳧鳥]은 後漢 때의 王喬가 葉令이 되어서 신선처럼 들오리를 타고 京師를 오가곤 했는데 그 오리를 잡고 보니 신발 한 짝만 있더라는 고사<sup>202)</sup>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 지방의 수령을 지칭한다. 신선의 땅 같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조금이라도 더 수령이 가는 걸음을 늦춰 줄 수 있다면 그 주춤거리는 모습이 도리어 惜別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前灘流月落秋江	앞 여울에 흐르는 달 가을 강에 떨어지고
夢裏寒聲滿夜窓	잠결에도 추운 소리 밤 창문에 가득하다
柔櫓暗聞漁艇過	빼걱빼걱 노를 저어 나룻배가 지나가니
圓沙驚起宿鷗雙	모래톱에 백구 한 쌍 자다 놀라 날아가네 <sup>203)</sup>

201) 申光漢, 『企齋集』 卷2, 251b면, 「使君請賦淸心樓四詠 復用江韻」 其三.

202) 祝穆, 『古今事文類聚』 續集 卷20, 437c면, 「冠履部·飛鳧鴻」, “王喬爲葉令 有神術 每月朔望 常自縣詣臺 帝怪其來數而不見車騎 密令太史 伺望之 言其臨至 有雙鳧飛來 舉羅張之 但得雙鴻”

이 시는 청심루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鄭夢周(1337-1392)가 지은 「題驪興樓」<sup>204</sup> 시의 운자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심루는 누대 가운데 방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군왕(세종·성종·중종·영조·정조)들이 능행을 하였다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객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주를 찾은 임금 이외에도 종종 선비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sup>205</sup> 이곳에서 신광한은 투숙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가을의 찬 기운이 창문 틈을 타고 드는 밤, 그 고요한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 그 靜中之動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여타의 누대와 마찬가지로 청심루도 많은 문인들이 淸心樓韻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처음 淸心樓韻[刪韻]을 누가 사용하여 시를 지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고려 시대 문신 朱悅이 「淸心樓題次韻」<sup>206</sup>에서 顏·山·間·閑을 사용해서 시를 지은 것이 보이며, 그 이후 李穀(1298-1351)·李穡(1328-1396)·金九容(1338-1384)·徐居正(1420-1488)·金宗直(1431-1492)·申光漢·鄭士龍(1491-1570) 등 많은 문인들이 이 청심루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sup>207</sup> 또한 權近(1352-1409)·鄭夢周·李荇이 지은 淸心樓詩에도 많은 문인들이 차운한 정황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여흥의 청심루와 팔대수에는 고려시대부터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차운시를 지으며 遊興을 즐겼다. 신광한도 여흥에 거주하면서 일군의 문인들과 종종 청심루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며, 모임을 마친 이후에도 차운시를 통해 청심루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交友들과 안부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203) 申光漢, 『企齋集』·『別集』卷4, 「宿淸心樓 次鄭文忠公韻」

204) 鄭夢周, 『圃隱集』卷2, 592d면, 「題驪興樓(二絶)」其二, “烟雨空濛渺一江 樓中宿客夜開窓 明朝上馬衝泥去 回首滄波白鳥雙”

205) 조성문,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6-7면 참조.

206) 朱悅, 「淸心樓題次韻」, “一輪明月湧雲端 鏡裏如逢舊識顏 寶蓋影傾雙立樹 修眉暈倒四回山 鯉傳尺素滄茫外 驪養明珠黑暗間 吟到五更更奇絶 莫教風物片時閑”(조성문 편역,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 13면. 재인용)

207) 조성문 편역,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에 수록되어 있는 청심루 시들 중에 약 35인의 작가에게서 동일한 운자를 사용한 시 작품들이 확인된다.

『驪州郡史』를 보면 1945년 8월 22일 해방의 기쁨에 들뜬 주민들이 군수[강진수]가 살던 관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 때 옆에 있던 청심루도 함께 불에 탔다고 되어 있다. 또한 「驪州牧八大藪 新起尺量田案」을 참조하면 1854년(철종 5) 3월 여주목에 있는 팔대수라는 숲 전체를 새로 개간한 후 양안을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어 팔대수도 이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sup>208)</sup> 현재 청심루는 여주 초등학교 뒤에 그 표석만 남아있으며, 팔대수는 고려대 여주부속병원 뒤쪽 고수부지 일대였다고 하나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고지도와 고전적들을 통해 그 위치만 가늠해볼 따름이다.

### ③ 神勒寺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驪州는 국도의 상류 지역에 있으며,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樂土라고 칭하여 오는데, 신록사가 바로 이 形勝의 북판에 있다. 옛날 玄陵의 王師 나옹과 한산 목은 선생과 이공 두 사람이 서로 이어 와서 놀았다. 이로부터 이 절이 드디어 畿左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사진 左: 신록사 / 右: 강월헌>

208) 조성문,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8면 참조.

기묘사화 후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 신록사를 유람하고 유숙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또한 낙향한 이들을 방문한 親友들과 함께 신록사에 들르는 경우도 많았다.<sup>209)</sup> 이들은 신록사에서 머물면서 詩宴을 벌였고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乞詩에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曾聞神勒巒爲臺	신록사는 벽들로 대 쌓았다 들었는데
此日挈舟泝水來	이 날에야 배 타고 물 거슬러 찾아왔다
初喜林間逢白塔	처음에는 수풀 사이 흰 탑 보고 기쁘다가
却慙門外踏青苔	되려 문 밖 푸른 이끼 밟으면서 부끄럽네
沈吟只愛春堪賞	음미하니 사랑할 건 봄 경치 감상 뿐
乖久休疑客不回	어긋남이 오래되어 객 안올까 의심말라
領略風光隨手去	자연 풍광 순식간에 지나감을 깨달으니
明朝江口片帆開	내일 아침 강 어귀에 조각배 띄우리라. <sup>210)</sup>

말로만 들던 신록사에 처음 찾아온 소감을 적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신록사는 벽돌 탑이 있으므로 속칭 벽절이라 한다.”<sup>211)</sup>라고 하였는데 처음 흰 탑을 보면서 ‘아! 저것이 말로만 들던 벽돌 탑이구나’ 싶어 반가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문 밖의 푸른 이끼를 밟으면서는 진작 와보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진다. 이어 지금 보고 있는 봄 경치도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니 내일은 驪江에 배를 띄워 봄 경치를 완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①

好雨留人故不晴      단비는 손 못가게 께 기미가 안보이니

209) 金安國, 『慕齋集』 卷5, 106c면, 「宿神勒寺」.; 金正國, 『思齋集』 卷1, 011b면, 「遊神勒寺 次慕齋兄題尙均師小軸韻 軸有神勒江山圖 畫甚妙 并十清軒金公碩序 詩亦甚佳」.; 朴祥, 『訥齋集』 續集 卷1, 008b면, 「宿驪州神勒寺 留別靈運」.; 金世弼, 『十清軒集』 卷4, 271b면, 「再遊神勒寺 醉題尙均師詩軸 軸中有十清金公碩詩序」 등 기묘사사람들의 신록사 유람 정황이 드러나 있는 시들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210) 申光漢, 『企齋集』 卷2, 247b면, 「春遊神勒寺(一名巒寺)」

21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京畿·驪州牧」

隔窓終日聽江聲      창 너머로 종일토록 강물 소리 듣는구나  
 斑鳩又報春消息      산비둘기 봄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주려  
 山杏花邊款款鳴      돌살구꽃 주변 돌며 꾸룩꾸룩 우는구나<sup>212)</sup>

②

初來却恨尋春早      처음에는 이른 봄에 찾은 것이 아깝더니  
 未見花開只見僧      꽃 피는 건 못보고서 스님들만 뵈어서라  
 一夜東風吹雨過      하루 저녁 봄바람이 비를 몰고 지난 후에  
 川原驚怪曉霞蒸      시내 들관 새벽노을 피어나니 놀랍도다<sup>213)</sup>

이 시들이 앞서 인용한 처음 신록사를 방문하고 지은 시와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①시와 ②시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가 와서 예기치 않게 신록사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에서 보이는 작자의 심리 상태는 오히려 유쾌하다. 부득이하게 하루 더 머무르게 된 것이지만 덕분에 봄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가진 것이다. 斑鳩라는 비둘기는 이 새가 울면 비가 온다고 하여 喚雨鳩라고도 불리는 새이다. 비에 딱혀 유숙하고 있지만 불어난 강물 소리와 산비둘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한가롭게 느껴진다. ②시에서는 단비를 한결 더 반가워하고 있다. 사실 작가는 이른 봄에 찾아와서 만개한 꽃을 보지 못해 조금 아쉬웠던 것이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단비가 세상을 적셔주어 온 들관에 알록달록 꽃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반가운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원형리를 배경으로 지은 시나 청심루 시와는 달리 신록사에서 지은 시에는 자조적 어조나 애상의 정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것은 신록사를 배경으로 하는 남아있는 시 작품들이 주로 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계절적 생동감과 긍

212) 申光漢, 『企齋集』·『別集』卷4, 436b면, 「阻雨 信宿神勒寺」

213) 申光漢, 『企齋集』·『別集』卷4, 437b면, 「宿神勒寺 夜雨 花盡開」

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레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상의 공간에서 떨어져서 자연풍광을 바라보는 경험은 물색들을 한결 더 아름답게 느끼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일탈에서 생기는 해방감이 그에게 좀 더 여유로움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주목사[김안정]가 김안국·金欽祖·鄭士龍과 신록사에서 가을 달을 완상하기로 하였다.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였으나 병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sup>214)</sup>

『기재집』에 수록된 신록사를 배경으로 한 시들이 많지 않아서 그 시들만으로는 신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교유 정황을 살피기는 어렵다.<sup>215)</sup> 하지만 신록사라는 공간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선비들 외에 타 지역의 사림들까지 모아 교유하며 함께 유람할 수 있을 만한 명승지였음은 분명하다. 이곳에서 신광한은 봄꽃을 구경하거나 가을 달을 완상하면서 친지들과 우의를 다졌으며 신록사에 머무는 승려들과도 교유하였다. 승려들은 이름난 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乞詩하여 詩軸에 보관하곤 하였으니, 신광한도 그가 시를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님들의 청에 시를 써준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러한 승려들의 乞詩 문화는 그들의 시축을 통해 서로 떨어진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自然을 매개로 하여 경기도 여흥 지역을 기반으로 지속되었던 교유의 면모를 신광한의 시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원형리의 기재는 신광한의 개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로 홀로 사유하는 면모가 주되게 보이지만 이따금 至親의 방문이 이루어지면 작시 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심루와 팔대수에서는 술한 詩宴과 酒宴이 이루어졌는데 청심루가 관아에 속해 있는

214)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5, 449a면, 「驪興金使君 與金宰相安國 金僉知欽祖 鄭僉知士龍 會 翫秋月于神勒寺 遣人相邀 病不能赴」

215) 鄭士龍, 『湖陰雜稿』 卷1, 026b면, 「過神勒寺 有懷舊遊 錄奉震卿使君」을 참고하면 실제로 모임이 성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자이다 보니 주로 여주목사의 초대를 받은 선비들과 그 선비와 함께 하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록사는 멀리 떨어진 친우들이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장소로 역할하였다. 신록사의 경관은 경기도 동쪽[畿左]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경이었으니 이곳에서 자연을 완상하면서 긴 이별의 정한을 달랬던 것이다.

### 3. 出仕를 통한 經世 實現

신광한은 1538년(중종 33) 尹仁鏡이 이조판서가 되어 기묘사화에서 화를 입은 사람들을 서용하자 成均館大司成知製敎로 복직했다. 그 후 知義禁府事·大提學·知成均館事·經筵同知事·春秋館同知事·禮曹判書의 요직을 역임하면서 관료로서 만년을 보냈다. 기묘사화로 파직된 후 끊임없이 정계로의 복귀를 꿈꾸던 신광한은 복직된 이후에는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文才의 표출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주 원형리의 삶을 그리워하는 양상, 즉 자연으로의 회귀 의식도 시를 통해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관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선비 의식의 발로일 뿐 관료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1) 官僚로의 自負와 官僚意識의 表出

『企齋集』에는 신광한이 복직한 이후, 조정 관료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에 시를 지은 契會圖詩가 4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수의 계획도시를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대제학을 역임할 정도로 당대의 문형을 장악하고 있었고 동시대 문인들에게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

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가 정치 현장의 일선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관료 문인들의 문학적 재주를 자신이 대표한다는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관료들의 모임에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정치 참여의 한 방편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16)</sup>

본 장에서는 신광한의 契會圖詩를 통해서 그가 복직 후에 가졌던 관료로서의 자부와 그 의식의 표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인 계획은 사대부들이 풍류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고, 학문과 시예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문인 계획은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기로회·기영회에 연원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전통이 계승되어 더욱 활성화되었으며<sup>217)</sup> 벼슬을 산 선비들의 경우에는 관아를 옮길 때마다 그 관아의 契會에 참석하는 게 常例였기 때문에 일생동안 수십 차례 계획을 갖게 되기도 했으니, 이러한 계획은 당시 문인들의 생활을 잘 반영해준다고 할 수 있다.

문인계획은 契員들의 소속 관아나 官階 등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여지곤 하였는데 신광한이 남긴 45편에 달하는 契會圖詩<sup>218)</sup>를 살펴보면, 그가 다양한 모임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계획도에 대해 題畫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중 일부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쓴 것이고, 그 외 대다수의 작품은 계획도가 완성된 후 그 그림을 보면서 지은 讚詩의 성격을 갖는다.

45편의 작품들 중에 두 작품에는 并序가 함께 전하니 作詩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가정23년 갑진년 겨울 11월, 중중 임금이 승하하셨다. 이듬해 을사년 가을 7월, 인종 임금 또한 승하하셨다. 두 성군이 연이어 승하하셔서 나라에 치를 일들이 많

216) 임채명,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64면 참조.

217) 안취준,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2, 376면 참조.

218) 심경호는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257-258면에서 『企齋集』에 전하는 契會圖 題詩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았으니 한 해를 넘겨 병오년 가을에서야 비로소 實錄廳이 설치되었다. 조정 신하들을 가려 뽑아 모두 春秋館을 겸직하게 하여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실록청을 셋으로 나누어 각각에 상급 관리와 하급 관료를 두어 사관의 기록들을 모아서 가필하고 삭제하였다. 또한 都廳을 두어 그 가필과 산삭의 합당한지를 살펴서 증명하여 결정하였으며,三公 중 한 사람이 이것을 총괄하였다. 이러한 연후에 마침내 정본이 완성되어 활자로 간행되는 것이니 그 일이 매우 엄중하여 5년이 걸려서야 사업을 마칠 수 있었다. 경술년 10월 6일, 內史閣에 봉안하였으니, 이듬해 봄에서야 遮日巖에서 洗草宴을 벌여, 하사된 술을 먹고 마셨다. 옛날에 나를 太史로 삼아 惟新과 星州의 史閣에 봉안케 하였고, 參贊 任權으로 全州에 봉안케 하였다. 아! 신하가 되어서 따라죽지 못하고서 두 임금의 실록이 하나의 실록청에서 편찬되는 것을 감내하니 어떤 마음이겠는가. 부족하나마 공적을 기록하고 그 일을 그리고 그 아래에 여러 공들의 이름을 나열하였다. 공적을 기록한 것은 그 수고로움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그 일을 그려둔 것은 임금의 하사함을 영화롭게 생각해서이며, 이름을 적어둔 것은 이 모임의 성대함을 보이기 위해서이니 또한 마음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 시에 이르기를<sup>219)</sup>

堯傳精一舜祗承	堯가 전함 순일한데舜이 계승하였으니
二典編成歲五蒸	두 권의 책 편찬됨에 오 년이나 걸렸구나
天上祕書隨水化	하늘 위의 비밀 문서 물 따라서 드러나고
人間遺事似龍騰	인간세상 남긴 일은 용이 날아 오르는듯
恩榮此日還堪畫	오늘 이 날 영화로움 그림 속에 담았으니
文獻他年亦足徵	훗날에도 문헌 통해 확인할 수 있으리라
未死白頭虞史在	죽지 못한 늙은이가 사관직을 맡은지라

219) 申光漢, 『企齋集』, 391d면, 「二聖實錄廳契會圖(并序)」 “嘉靖二十三年甲辰冬十一月 中宗恭僖大王升遐 翌年乙巳秋七月 仁宗榮靖大王又升遐 二聖繼陟 國家多事 越明年丙午秋 始設實錄廳 極選朝臣 皆職帶春秋 掌其事 分三廳 廳各有上官下僚 集史氏之記 而筆削之 又有都廳 考其筆削之當否 而證定之 又以三公中一人 爲之摠裁焉 然後乃成正稿 而印之以鑄字 其爲事甚重 歷五載而功告訖 庚戌十月初六日 奉安于內史閣 翌年春 乃洗草于遮日巖 賜酒樂而燕之 古也 以光漢爲太史 使之奉安于惟新暨星州之史閣 以參贊任權 奉安于全州 嗚呼 臣而不死 忍脩二君父實錄于一廳 當何以爲心 聊記成績 且畫其事 列書諸公名字于其下 夫記成績者 不忘其勤也 畫其事者 榮君賜也 書名字者 示茲會之盛 而且契于心也 其詩曰”

列仙芳籍忝同登 아름다운 신선 기록 외람되게 함께 있네

『중종실록』의 간행을 준비하기도 전에 인종이 연이어 승하하니 두 임금에 대한 실록 편찬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동원된 관료들도 많았고, 완비되는 데에 시일도 오래 걸렸던 것이다. 신광한은 위의 시에서 并序를 통해 실록편찬의 과정을 세세하게 밝힘으로써 그 엄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二聖實錄廳契會圖」는 1551년 봄에 지어진 시로 5년여 만에 실록을 완성하고 원고를 정리하면서 여는 잔치인 洗草宴을 그린 契會圖에 붙인 시이다.

首聯에서 중종을 堯임금에, 인종을 舜임금에 비유함으로써 승하한 두 임금을 推尊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준 祕書, 河圖·洛書는 강물에서 나왔지만 두 임금이 세상에 남겨준 일들은 용이 날아오르듯 찬란하게 드러난다고 표현하였다. 이 시가 題畫詩임을 드러내는 단서는 頸聯에 나온다. 이 성대한 업적을 담은 실록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영화로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상세한 업적을 담은 글과, 연회의 흥겨움을 담아낸 그림과 참여자 목록을 남겨둔다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不事二君을 지키지 못한 불충한 신하인 자신이 외람되어 실록 편찬 작업에 함께 하여 아름다운 이름들의 반열에 이름을 함께한다는 謙辭를 담고 있다.

신광한은 실록을 편찬할 때, 己卯人을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그 일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감당할 수 없다고 기피했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로 실록 편찬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격함을 지키려고 하였다. 사실 두 임금의 실록은 신광한 자신의 삶과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기록들이다. 頸聯에서 “오늘이 날 영화로움 그림 속에 담았으니[恩榮此日還堪畫]”라는 표현을 통해 임금의 베풀어준 성대한 잔치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훗날에도 문헌 통해 확인할 수 있으리라[文獻他年亦足徵]”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기록들을 징험 삼아 善政을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 또한 은근하게 담아내고 있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善政에 대한 당부 또한 잊지 않는 모습에서 본분을 잃지

않는 확고한 관료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오랑캐들의 근심이 예로부터 있었고,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극심하였다. (중략) 중종조에 처음으로 비변사를 설치하여 조정의 문무관을 가려 뽑으니 위로는 公卿에서부터 아래로 郎署에 이르기까지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속하게 하여 맡겼다. 만일 변방을 지킬 계책이 있으면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兵曹와 상의하여 처리하게 하니 이 때문에 지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최근에 남쪽 왜구들이 길들여지고, 바다에는 노략질이 끊어졌으며, 서쪽 오랑캐 중에 거주민들을 위협하던 자들이 스스로 멀리 옮겨가기를 청하니 이것은 비록 성군의 회유책이 점차로 그들에게 미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 공들의 원대한 계책의 효험이기도 하니 어찌 작은 보필이라고 하리오. 이에 서로 임금의 교화를 입음과 시대의 평안의 즐거움을 함께 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수양하고자 하니 술잔과 그릇 사이에서 적의 기세를 꺾었던 것을 헤아리기 위함이지 때를 완상하면서 기회를 잃기 위함이 아니다. 正郎 李戡은 郎署이다. 이미 그 일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나자 수차례 와서 나에게 기문을 청하니 시를 지어 읊는다. 시에 이르기를<sup>220)</sup>

三面山河鎮大東	삼면의 강산이 나라를 진압하니
安危唯有仗諸公	국가 안위 오로지 그대들에게 의지하네
要將罇俎籌邊策	술잔 그릇 끌어다가 변방 계책 세워보니
不用樓龜喜遠功	누각 거북 전쟁 이김 기뻐할 필요 없다
已道海南無戰艦	남쪽 바다 전쟁 배가 없어졌다 말들 하고
還聞塞外遁棲戎	변방 밖의 오랑캐도 숨었다고 들었다오
深謀雲鳥歸綿蕝	나는 새들 표식 찾아 돌아올 것 꾀하는데

220) 申光漢, 『企齋集』, 399d면, 「題備邊司契會圖」, “惟我東國 三面受敵 戎與狄與蠻之患 自古有之 至麗季而極矣……在中廟朝 始置備邊司 選朝中文武官 上自公卿 下至郎署 有能知邊事者 咸隸是司 如有邊計 不問大小 與兵曹商議處置 以故 鮮有敗事 近來 南倭效順 海絕賊船 西戎之逼居者自請遠移 是雖聖主懷柔漸被之所及 而諸公訏謨定遠之效 亦豈小補哉 於是乎相與蒙上之化 樂時之平 而修之爲契事 以擬折衝於罇俎之間 非故玩時而失機者也 李正郎戡 乃其郎署也 旣爲圖畫其事 屢來請記於(光漢) 而詠之以詩 詩曰”

好事金蘭入畫中    좋은 일 높은 사궤 그림 속에 들었다오

비변사의 계획도에 지은 시이다. 『企齋集』에 并序가 전하는 두 번째 시 이다. 并序를 통해 나라의 지리적 위치로 인해 外侵이 잦으니 이로 인한 방비책으로 비변사를 설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비변사 설치를 통해 변방이 안정되는 治積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首聯에서는 나라의 세 면이 뚫려있어 戎·狄·蠻에게 두루 위협을 받으니 그것을 막아낼 자들은 비변사의 여러 신료들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頷聯의 上句는 『戰國策』에서 “술잔과 그릇 사이에서 성을 뽑고 자리 위에서 적을 무찌른다”<sup>221)</sup> 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계책만으로도 변방의 적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下句에서는 전쟁을 나갈 때에 사당의 거북에게 고하던 것을 끌어와서 계책만으로도 변방을 안정시킬 수 있으니 실제로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并序에서 비변사의 관료들은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사람[有能知邊事者]”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에게 좋은 계책이 있으면 그 大小를 따지지 않고 반영하였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비변사의 설치 취지에 맞게 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頸聯에서는 비변사의 治積을 밝히고 있다. 바다에는 노략질이 끊어지고 백성들을 꺾박하던 변방의 오랑캐들도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오랑캐들의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세운 계책들을 통해 나라의 국방이 강해지고 있음을 찬탄하고 있다. 이것은 찬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안정을 계속 이어가야 함을 당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尾聯에서는 작가가 계획도를 보면서 모임의 분위기를 회고하고 있다. “綿蕝”라는 것은 대 나무를 죽 이어서 세우고 거기에 따로 끈 새끼를 둘러서 尊卑의 位次를 표시한 것으로 漢高祖 때 博士 叔孫通이 제자들과 함께 야외에서 예를 익힐 때 사용했던 것이다. 모임이 방탕하게 노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법도 있는 고

221) 『戰國策』卷12, 「齊」5, “千丈之城 拔之尊俎之間 百尺之衝 折之枉席之上”

상한 모임이었음을 “綿蕪”라는 시어를 통해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 속에서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모임의 흥취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비변사 관료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치밀하고 원대한 계책을 통해 民生苦를 수반하는 전쟁의 勃發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에서 民本思想에 기반한 관료 정신을 읽을 수 있다.

계회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 현전하는 계회도들은 모두 16세기 이후의 것인데 그 중 신광한의 재직기간과 제작 연대가 동시대로 추정되는 작품들은 <薇垣契會圖>, <夏官契會圖>, <蓮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 <秋官契會圖> 등이다.<sup>222)</sup> 이들은 모두 상단에는 계회의 표제를 적혀 있으며, 중간의 넓은 공간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계회의 장면이 묘사되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을 官階의 서열에 따라 적은 座目이 포함되어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삼단의 契軸 형식은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시대만의 것이며, 그림이 산수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정작 역점을 두어야 할 契員들의 모습이나 계회의 장면은 아주 작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또한 공통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문인들이 세속의 속박을 떨치고 찾아가는 대자연의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중기로 접어들면서 참여 인물들이 점점 부각되어 산수 장면과 계회 장면이 대등한 비중으로 그려지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하는데<sup>223)</sup> 신광한이 살았던 시기는 아직 인물 중심의 계회도가 그려지기 전이므로 그가 보았던 계회도들은 산수 자연이 중심이 된 그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2)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면 참조. 관련 도판이 59-61면에 소개되어 있다.

223) 조선초기 계회도의 특징에 관한 내용은 안휘준, 「한국의 문인 계회와 계회도」,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7.을 참조하였다.

楊花江上是蠶頭	버들개지 꽃 핀 강가 예가 바로 蠶頭이니
今古登臨擅勝區	고금인들 여기 올라 좋은 경치 차지했네
共說諫臣清議衆	간관에게 맑은 의논 성하다고 말들 하니
剩看平世寵光殊	태평성대 내린 은총 특별함을 실컷 본다
右軍脩翼應須有	왕희지의 목욕재계 응당 있어야 하리니
司馬題名未可無	사마광이 적은 이름 없어서는 안되겠지
從此薇垣吾道盛	이로부터 사간원엔 우리 도가 성하리니
風流邊事摠成圖	풍류 가득 주변 일들 그림 안에 다 들었네 <sup>224)</sup>

<薇垣契會圖>를 보고 題詩한 것이다. 『企齋集』에는 <薇垣契會圖>에 題詩한 작품이 모두 세 수 전하는데<sup>225)</sup> 그 중 한 수이다. 薇垣는 司諫院의 美稱으로 司諫院 諫臣들의 契會를 그린 계획도를 보고 시를 지은 것이다.

首聯에서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蠶頭峯임을 밝히고 있다. 도성에서 가까웠던 西湖 蠶頭峯은 예로부터 도성에 거주하던 선비들의 江上演戲와 契會가 빈번하게 열렸던 장소이다. 姜希孟이 쓴 「西湖蠶嶺契飲序」에 “잠두봉은 예전에는 까마귀와 솔개,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사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관현악과 가무로 시끄러워졌으니 나무 끝에는 새집이 없어졌다.”<sup>226)</sup>라고 하였으니 그 상황을 짐작할 만하다. 頷聯에서는 諫官들이 좋은 경치를 벗 삼아 한가로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기가 태평성세이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임금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는 사간원의 관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맑은 의론[清議]”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태도로 임금을 보필해야 오늘날과 같은 태평성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頸聯에서는 右軍[王羲之]과 司馬[司馬光]가 남긴 글을 언급함으로써 薇垣契會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 上句는 왕희지의 「蘭亭記」을

224) 申光漢, 『企齋集』 卷7, 318b면, 「薇垣契會圖」

225) 申光漢, 『企齋集』 卷4, 282c면, 「題薇垣契會圖」; 卷9, 335a면, 「題薇垣契軸」

226) 姜希孟, 『私淑齋集』 卷8, 122b면, 「西湖蠶嶺契飲序」, “蠶嶺之地 舊爲烏鳶鷺之所棲 今爲弦管歌舞之所鬧 而樹梢無懸巢.”

염두에 둔 것이다. 많은 어진인들이 修禊하기 위해 會稽山에 모였던 蘭亭 모임  
 임을 “날개를 씻다[脩翼]”로 표현하면서 지금의 모임 또한 그 때의 풍류 못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그 때의 名士 42인의 이름과 시가 남겨진  
 것처럼 지금 사간원의 모임을 기록한 회계도 또한 후세에 전해져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下句에서는 사마광의 「諫院題名記」를 끌어  
 왔다. 사마광은 이 글에서 諫官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諫官들의 이름을 적어두  
 는 것에 대하여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두루 가리키면서 평가하기를 누  
 구는 충성스럽고, 누구는 사특했으며, 누구는 곧았고, 누구는 부정했다고 하  
 리니 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27)</sup>라고 하였다. 신광한은 “사마광이  
 적은 이름 없어서는 안되겠지[司馬題名未可無]”라는 한 구절을 통해서 사간  
 원 관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力說하고 私心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  
 까지 담아내고 있다. 故事를 통해서 시가 지녀야 할 함축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도 모임의 고상한 품격을 드러내고 구성원이 지녀야 할 태도까지 세련되게 담  
 아내고 있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언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이로부터  
 나라에는 “吾道”가 융성할 것이라는 축복을 담고 있다.

<薇垣契會圖>에 대한 다른 두 수의 題詩에서도 신광한은 諫官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름지기 중화로써 참된 도리 만들어야지 헛 명  
 예로 한 시대에 빛나는 것 소용 없네[要取中和陶至理 不須浮譽耀當時]”<sup>228)</sup>라  
 고 한 것이나 “적힌 이름 천 년 후에 모두 평가 될 것이니 자리 중에 누가 제  
 일 맑은 향기 지녔는지[閱盡題名千古後 座中誰最挹清芬]”<sup>229)</sup>라고 한 것을 통  
 해 드러난다. 즉, 현 시대에 잠깐 이름을 날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후  
 대인으로부터 받을 평가까지 마음에 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國政에 가담하는 관료는 현 시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인에 대한 책임까

227) 司馬光, 「諫院題名記」, “嘉祐八年 刻著于石 後之人 將歷指其名而議之曰 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 嗚呼 可不懼哉”

228) 申光漢, 『企齋集』 卷4, 282c면, 「題薇垣契會圖」 頸聯.

229) 申光漢, 『企齋集』 卷9, 335a면, 「題薇垣契軸」 尾聯.

지 함께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투철한 관료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袞袞登清選	성대하게 淸宦에 급제하여서
翩翩集夏官	아름답게 兵曹에 다 모였네
要將罇俎用	제기 사이 계책을 잘 세워다가
擬試折衝間	적을 물리치는 시험해 보네
晚景江山麗	저녁 경치 강산이 아름다운데
平時酒盞寬	태평 시절 술잔이 넉넉하구나
契心期助理	계획의 뜻 다스림을 돕자는 거니
非敢狂於安	감히 편안 탐해서가 아니라오 <sup>230)</sup>

夏官은 兵部의 異稱이니, 병조에 근무하는 낭관들을 그린 <夏官契會圖>에 題詩한 것이다. 首聯에서는 준수한 인재들이 선발되어서 兵曹에 모여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관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頷聯의 내용을 보건대 이날 모임에서는 閱兵儀式이 거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罇俎”는 위의 「題備邊司契會圖」시에서도 언급했듯이 『戰國策』에서 유래한 것으로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좋은 계책을 말한다. 兵曹는 문관들이 임명되지만 그 하는 일은 武選·軍務·儀衛 등 무관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는 곳이었으니 곧, 의논되었던 陣法이나 戰術이 실전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할지를 검열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閱兵儀式이 끝나고 나서 頸聯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을 벗하여 술을 나누면서 서로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관료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尾聯에서는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서도 관료로서의 사명을 생각하는 투철함을 가져야함을 환기시키고 있다. 契會의 자리가 술과 음식이 풍성한 즐거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즐기는 태도 안에는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30) 申光漢, 『企齋集』 卷6, 309a면, 「夏官契會圖」

分明象典儘昭垂	분명하게 법규 정해 모두 밝게 펼치니
刑到無刑自有期	형벌 내리는 건 되려 형벌 없기 바라서네
王教佇看歸極日	왕의 교화 근본으로 돌아갈 날 바라보고
民情難致協中時	백성의 뜻 옳은 데로 나아가긴 어려운 때
持平不數張廷尉	공평함은 廷尉 張釋之가 계산하지 않았었고
直道何妨柳士師	正道 행함 士師 柳下惠 거리낄 것 있었잖나
珍重諸郎相助理	진중하신 여러 관리 다스림을 도우시며
却圖蘭契要吾詩	문득 芝蘭 契會 그림에 내게 시를 지으라네 <sup>231)</sup>

秋官은 刑部の 異稱이니, 刑曹 소속 낭관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秋官契會圖>에 題詩한 것이다. 刑曹는 법률·소송·刑獄의 일을 총괄하던 관아이니 首聯에서 『書經』의 “형벌을 쓰는 것은 형벌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다.[刑期于無刑]”<sup>232)</sup>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孟子』에서 백성은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 항상 된 마음을 잃게 되니 이렇게 백성을 죄에 빠지게 해놓고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罔民]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頷聯에서는 왕의 교화가 온 땅에 펼쳐지고, 백성 모두가 항상 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형벌을 베푸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자애로워야 함을 은근하게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서는 漢나라의 張釋之와 魯나라의 柳下惠의 고사를 들어서 공정한 법 집행의 모범을 제시하고 그들의 자세를 본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장식지는 廷尉職을 맡았던 시절 漢나라 孝文帝의 행차 시에 행렬을 피하지 않아 말들을 놀라게 한 죄로 잡혀온 사람을 황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여 특별히 가중 처벌하지 않고 법령대로만 공정하게 처리했던 인물이다.<sup>233)</sup> 또한 유하혜는 士師職을 맡아서 세 번이나 쫓겨났으나 “도를 곧

231) 申光漢, 『企齋集』·『別集』卷3, 421d면, 「秋官契會圖」

232) 『尚書』, 「虞書·大禹謨」, “帝曰臯陶 惟茲臣庶 罔或干予正 汝作士 明于五刑 以弼五教 期于予治 刑期于無刑 民協于中 時乃功 懋哉”

233) 『史記』, 「張釋之馮唐列傳」, “釋之爲廷尉 上行出中渭橋 有一人從橋下走出 乘輿馬驚 於是使

게 하여 사람을 섬기면 어디에 간들 세 번 쫓겨나지 않겠느냐”며 그 소임을 다했던 것으로 이름난 인물이다.<sup>234)</sup> 공정한 법 집행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을 제시하면서 결국 이 契會의 자리는 연회가 주목적이 아니라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助理]’ 방법을 고민하고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자리이니, 그 그림을 남겨 기념하고자 한다는 뜻을 尾聯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발굴되어 현전하는 16세기의 契會圖가 신광한이 보았던 契會圖와 같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계획도는 16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만큼 그 작품 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계획도의 삼단 구성 방식이나 山水를 중심한 畫風은 조선 전기 계획도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으니 신광한이 접했던 계획도 역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 작품들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그림의 구성방식을 이해한다면 시의 文面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관료로서의 의식 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의 숨겨진 관료의식을 엿보게 된다. 즉, 조선전기 계획도의 畫風을 감안한다면 분명 작가가 마주하고 있는 계획도는 계획의 장면과 契員들의 모습은 간략하게 스케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山水가 중심이된 그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에 대한 題詩에서 신광한은 실제 그림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아름다운 산수 풍광과 풍류에 대한 묘사는 최소화하고 모임의 구성원과 그들이 가져야 할 관료로서의 책임에만 관심을 두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16세기의 계획도는 당대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신진 사람들이 계속되는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

騎捕屬之 廷尉釋之治問曰 縣人來聞蹕 匿橋下久之 以爲行已過卽出 見乘輿車騎卽走耳 廷尉奏當 此人犯蹕 當罰金 文帝怒曰 此人親驚吾馬 吾馬賴柔和 令他馬 固不敗傷我乎 而廷尉乃當之罰金 釋之曰 法者 天子所與天下公共也 今法如此 而更重之 是法不信於民也 且方其時 上使立誅之則已 今既下廷尉 廷尉天下之平也 一傾而天下用法 皆爲輕重 民安所錯其手足 唯陛下察之 良久 上曰 廷尉當是也”

234) 『論語』, 「微子」, “柳下惠爲士師 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림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16세기 후반에는 계회가 선전관이나 의금부, 지방 관까지 확산되었으나 17세기 봉당정치가 본격화되면서 계회도 형식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것을 방증한다.<sup>235)</sup> 이와 같이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제작된 계회도이지만 그림과 題詩에서는 정치적인 성향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림에서는 山水自然을 중심으로 묘사했고 시에서는 관료 의식을 극대화하여 표출하였으니 관료가 추구해야 할 관념속의 이상론을 詩畫를 통해 담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契會圖詩는 관각문인으로 명성이 높은 容齋 李荇에게서 많이 보인다는 점을 함께 주목할 만하다. 이행은 문집에 실려 있는 題畫詩 중에서 관료들의 그림에 대한 제화시의 비중이 반을 넘을 정도로 많은데 이것은 다른 문인들에게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양상으로<sup>236)</sup> 이러한 특징을 신광한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sup>237)</sup>. 이것은 신광한의 文才에 대한 당대의 인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의 문장으로써 나라에 보탬이 되겠다는[以文華國] 생각에 입각한 관료의식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以文華國에 대한 생각과 의식에 대해서는 IV. 申光漢 文學의 官人文學的 性格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 2) 自然으로의 回歸 意識

관료생활을 지향하는 出과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處라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은 당시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존해있는 것이었다.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은 관직에 있을 때는 處에 대한 회구로, 전원생활을 하면서는 出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등을 당시의 문인들은 자신들의 시작품을 통하여 표출해

235)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8면 참조.

236) 이창희, 「容齋 李荇의 題畫詩 小考,」 『어문논집』 38집, 민족어문학회, 1998, 129-131면 참조.

237) 심경호,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258면 참조.

내었으며 詩作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감정의 해소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38)</sup> 伸冤復職 이후 지어진 신광한의 시작품에는 여흥 원형리의 자연을 그리워하고, 隱逸의 생활을 꿈꾸는 내용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細察하면 그가 말하는 은일의 삶은 出世를 기반으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즉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삶을 꿈꾼 것이지 속세를 벗어나 은일자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全庵 주인은 성이 盧요, 이름이 檝이다. 세상에 나아간 적이 있는데, 행할 만한 조짐을 보았으나 그 조짐이 끝내 행해지지 못할 것을 알고는 끊어버리고 돌아왔다. 집을 쳐서 정숙하게 있는 것이 길하다는 것을 알고는 암자를 짓고 거처하였다. 스스로 호를 ‘은전함[全]’으로 짓고는 나에게 시와 글을 청하면서 그 일을 기록하여 말하기를 “은전하다는 것은 한 가지 뜻이 아닙니다. 그 본성을 온전히 하려는 사람이 있으며, 그 몸을 온전히 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성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몸 또한 온전치 못한 경우가 없는데, 몸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때로는 그 본성을 온전히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본성을 온전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가끔 여기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盧生이여! 그대는 진실로 나를 깨우치는 사람이구나. 그 본성을 온전히 하려는 것은 出한 자에게는 어렵고 處한 자에게는 쉽다. 出한 자는 넓게 하니 공을 쌓는 것이 어렵고, 處한 자는 집약하니 힘을 쓰는 것이 쉽다. 나는 出하고 그대는 處하니 아마도 본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나는 어렵고 그대는 쉬울 것이다. 그대는 이미 그 쉬운 것을 얻었는데도 지금 도리어 어려운 데에서 그 말을 구하니 가능하겠는가? 그러므로 일단 博하는 것[博]으로 요약하는 것[約]에 대해서 말하니 그대는 기억하라.<sup>239)</sup>

238) 拙稿, 『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研究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第12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164면.

239)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3, 428a면, 「全庵主人 盧姓 檝其名 嘗試於世 觀其可行之兆 知其兆之終不能行 卷而歸之 卜得幽貞之吉 結庵而居之 自號曰全 請余詩若文 以志其事曰 全之義非一 有全其性者 有全其身者 全其性者 身亦無不全 全其身者 或不能全其性 吾於全性之說何敢 然亦或庶幾焉爾 予曰 盧生乎 子眞所謂警余者乎 夫欲全其性者 出者難而處者易 出者博收功難 處者約 用力易 吾出子處 其於全性也 吾難而子易 子旣得其易 而今反求其語於難 可乎

盧楫은 原城 서쪽 땅 慶莊에 정자를 짓고 그곳에서 살았던 처사이다. 평소  
에 신광한과 교유를 활발히 하여 신광한이 그의 정자 이름을 十一亭이라고  
하며 기문을 지어 주기도 하고 慶莊에서 보이는 풍물을 열 가지로 꼽아 연작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노즙과 신광한은 ‘온전함[全]’을 화두로 삼아 본성을 보전하는 것[全性]과  
몸을 보전하는 것[全身]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것을 통해 신광한의  
처세가 무엇을 지향점으로 삼았는지 잘 드러난다. 본성을 보전한다는 것이 出  
한 자에게는 어렵고 處한 자에게는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出, 상  
대는 處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어서 하늘이 자  
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 이루어내는 방법이 出한 자와 處한 자가 각기 다르  
다는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즉, 出한 자는 공을 쌓는 것[收功]이 그 사명을  
다하는 방법이고, 處한 자는 힘을 쓰는 것[用力], 즉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그  
사명을 다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을 쌓는 것이 힘을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그 본성을 보전하는 일 또한 處한 자보다는 出한 자  
가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본성을 보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즙과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 본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산  
수자연과 벗하여 은일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다. 즉 出處와 窮達은 하늘이 부여하는 것이니, 그 상황에 맞게 부여받은 사  
명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出處窮通摠在天	출처의 길 궁달의 삶 하늘에 다 달렸는데
錯將軒冕較林泉	엉뚱하게 높은 벼슬 자연에다 비교한다
山中事業無堯舜	산 속에서 하는 일엔 요순 임금 따로 없고
卷裏工夫有聖賢	책 속에서 공부하면 성현들을 만난다오
役役豈曾知義命	힘 쓴다고 그래 어찌 의리 명분 알 수 있나?

---

然姑以博說其約 子其志之」

冥冥非故慕枯偏      아득하게 궁벽한 것 좋아한 건 아니겠지  
 一庵光景陶茲樂      암자 일대 경치들로 이 즐거움 누리면서  
 忘食忘憂只自全      발분망식 근심 잊고 본성만을 보전하소<sup>240)</sup>

앞의 글과 함께 지어준 시를 통해 이러한 의식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出·處와 窮·通은 人事의 영역이 아니라 天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출사할 운명을 주면 출사하는 것이고, 은일할 운명을 주면 은일하는 것이다. 출사하는 것과 은일하는 처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天真인지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全性和 全身의 가치를 全性 > 全身으로 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全性 ↔ 全身의 판단은 유보하고 있다. 곧 본성을 온전히 하는 것이 몸을 온전히 하는 것보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성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온전히 일을 외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몸을 고되게 하고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반드시 하늘이 부여한 본성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신광한과 비슷한 삶의 행보를 보였던 김안국 역시 친구 李仲舉의 정자에 ‘歸來’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은일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내비치고 있으니 주목할 만하다.

(전략) 옛날 소동파가 刀景純에게 읊어주기를 “흰 머리 되어 돌아와서 만그루 소나무 심어 (그 나무가) 천길이나 자라서 서리 바람에 춤추는 것 볼 날을 기다린다.”고 한 것은 벼슬을 던지고 돌아와서 소나무 심고 유유자적한 것만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 임금을 섬기고 극진하게 충성을 다하여 일시적인 편안을 도모하지 않다가 늙어서 기력 쇠하여 머리 센 연후에 돌아와서 만년의 경치를 즐기는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歸來’로 그대의 집을 이름지어 준 것은 그대가 일찍 물러났다는 것 때문에 찬탄하고 (은일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서가 아니요, 그대도 동파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가 나이와 힘이 강

240) 註239) 詩題 참조.

성할 때 문득 생각을 바꾸어 다시 총명한 임금을 섬기며 평생의 소임을 다하고 벼슬길에 올라 이름을 드러내어 國恩을 대강이나마 갚기를 바라서라네. 그러한 후에 벼슬을 내놓고 돌아와서 이전에 손으로 심었던 만 그루 소나무 사이를 거닐며 하얗게 센 귀밑머리와 수염을 달빛 비치는 소나무와 견주어 보면서 여생을 즐기고 (‘歸來’의) 본뜻을 이뤄주었으면 하니 이 아니 장쾌한가?<sup>241)</sup>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글자는 ‘돌아가다[歸來]’이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관료적인 사명을 다 이룬 후에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김안국의 이러한 인식은 신광한과 정확히 그 맥을 같이 한다. 신광한 역시 「和歸去來辭」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귀거래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제목이나 내용에서 ‘도연명의 귀거래사 본받아 따르리라’라고 밝히고 있고 압운에 사용된 韻字도 도연명의 「歸去來辭」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도연명의 작품에 대한 명백한 모의작이다. 하지만 작품 속에 보이는 현실 초탈의 정서로 인해 신광한을 도연명과 같은 귀거래 의지를 가진 인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신광한을 본질적으로 道家에 심취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이러한 도가사상은 통상 현실의 질곡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법, 수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일단 목적이 달성되면 그들은 다시 유가 사대부의 세계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方外人문학을 제외하고는 선인들의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양상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대부들의 궁극적인 이상은 현실적인 유가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歸田園은 정치적인 실의를 달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 그것이 항구적인 목표는 될 수 없었다. 설령 그러한 의지가 드러났어도 그것은 잠재적으로 다음의 기

241) 金安國, 『慕齋集』 卷2, 038a면, 「……昔東坡詠刀景純曰 白首歸來種萬松 待看千尺舞霜風云者 非專美其投笏歸來 種松自娛而已 蓋多其事君致身 惓惓盡忠 不爲苟安之圖 至年耆力衰白首然後歸來 以樂桑榆晚景之爲兩得耳 今余以歸來名子軒者 固非欲因其早退 嘆勸而遂成之也 蓋亦取東坡之意 正欲君及其年力之富 幡然改圖 復事明主 以盡平生之所 待其宦成名立 粗酬國恩 然後謝事歸來 逍遙於曩所謂手種萬松之間 白鬚蒼髯 交相照映 以娛餘齡而遂本志 豈不爲快哉……」

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권토중래를 다짐하는 외면적인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다. 세상과 절연하고 속세를 초월했다고 선언하고서도 일단 임금의 부름을 받으면 전원한정의 태도는 일시에 사라지고 임금의 은혜에 눈물로써 감사하는 충절가로 돌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42)</sup>

그렇기 때문에 신광한에게 보이는 귀거래 의지는 낙향에 대한 회구라기 보다는 번다한 공무 속에서 가끔씩 여가를 즐길 틈을 찾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신광한의 작품 속에는 여흥 원형리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서의 풍류를 회상하는 시들이 적지 않게 보이지만 이 역시 여흥이라는 공간에 대한 그리움이라기 보다는 여유있는 삶에 대한 동경으로 이해된다. 그렇기에 致仕하고 낙향하는 길보다는 도성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완상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새로 조성한 낙봉의 폭천정사가 완성되었다. 嘉靖 丙午年 5월 3일 동년의 벗 朴瑜의 아들 朴民獻이 인사를 왔다. 그와 더불어 앉아 바위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성안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였다.<sup>243)</sup> (후략)

신광한은 1538년(중종 33) 成均館 大司成으로 복직한 후에 바쁜 공무 속에서 한가했던 원형리의 삶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러나 그 그리움은 致仕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자를 짓는 행위로 해소된다. 마침내 1546년(명종 1) 5월 3일 낙산 아래의 京邸에 瀑泉精舍를 낙성한 것이다. 그 후 신광한은 企齋의 호에 駱峰이라는 自號를 더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시를 남겼다.<sup>244)</sup>

242) 김성수, 「申光漢의 辭賦文學 -浪漫 追慕類-, 『漢文古典研究』 第13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112-116면. 참조.

243)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394d면, 「新造駱峯瀑泉精舍成 嘉靖丙午端陽後三日 有同年之子新恩朴君(民獻)相訪 與之坐 指示岳石曰 城中 復有麗美于斯者乎……」

244) 申光漢, 『企齋集』 卷6, 304d면, 「以病蒙特恩 不得赴京 移告在家 看駱峯瀑流 卽事敘懷」를 비롯하여 卷9, 337a면, 「駱峯夜色」.; 341d면, 「甲寅菊月朏 駱峯書事」.; 『別集』 卷1, 399a면, 「庚戌仲秋望夕 獨坐駱峯企齋 得慶尙監司季任公寄書 對月書懷 錄呈」.; 『別集』 卷4, 440d면, 「駱峯夜景」 등 다수의 작품이 진한다.

終日耽看夜又深	종일토록 밤이 점점 깊어짐을 즐겨 보며
更憐山色映燈吟	산 빛깔이 더욱 좋아 불 밝히고 읊어본다
蒼松濃密雲幢黑	푸른 솔은 뻥뻥한데 구름층은 짙어오니
翠壁烹微水墨沈	푸른 벼랑 희미하게 수묵화에 들어간듯
造物忭能摸古畫	조물주가 갑작스레 옛 그림을 그려내니
詩人偏向起新心	시인에게 새론 마음 사무치게 생겨난다
更闌興熟猶多債	밤 깊으니 흥취 익어 시 빛 되려 늘어나니
露却眞形月且臨	참모습이 드러나고 달도 또한 이르렀네 <sup>245)</sup>

嶽松凝翠月含光	바위 솔은 푸르르고 달은 빛을 머금으니
山閣虛明夜氣涼	산 누각은 밝게 비어 밤기운은 서늘하네
忽喜靜中生意動	고요 중에 생동감이 있는 것을 기뻐하니
西風吹送敗荷香	가을 바람 지는 연꽃 향기 실어 보냈다오 <sup>246)</sup>

두 시 모두 駱峯에서의 밤 경치를 읊은 것이다. 공무에 쫓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가를 내어 찾아온 이곳은 여흥 원형리의 풍광과 삶을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소나무[松]와 달[月]이라는 자연물을 공통적 매개로 하여 은거하던 삶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어느 시에서도 歸去來의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넘치는 흥취가 詩心을 더한다는 감회와 청아한 달밤을 완상하는 즐거움을 담았을 뿐 답답한 현실에 대한 탈출 의지나 자연에 귀의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곧, 복직 후 보이는 원형리에 대한 그리움은 현실적 도피처가 아닌 심리적 위안처에 대한 필요였던 것이다. 즉 신광한에게 여흥 원형리라는 공간은 바쁜 일상에서 떠올리면 위로가 되는 심리적 고향과 같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烏鴨山中是故園      오압산 속 한가운데 옛 정원이 있었는데

245) 申光漢, 『企齋集』 卷9, 337a면, 「駱峯夜色」

246)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440d면, 「駱峯夜景」

一來遊宦閉柴門      관직 길에 나오느라 사립문은 닫혀있네  
 還參鳳席論王霸      임금 자리 참여해서 왕도 패도 논하느라  
 不作牛經教子孫      소 치는 책 아이에게 가르칠 틈 없었다오  
 心上事稀寧有役      마음 쓸 일 줄어들면 어찌 힘이 들겠는가  
 塵間機息自無喧      세상 일에 신경 끄면 절로 소란 없는 것을  
 詩家五石能容酒      시인 가진 닷 섬 박은 술 마시기 딱 좋으니  
 却笑莊周誤大尊      장주가 큰 통이라 잘못안 걸 비웃는다  
 憶元亨故園 述已志(원형리의 옛 정원을 추억하며 나의 뜻을 적었다.)<sup>247)</sup>

신광한은 장안에 질병이 들자 잠시 거주지를 옮겨 權攬의 옛집에서 머물렀는데 그 때 원형리에서의 삶을 회상하며 지은 시이다. 首聯에서는 원형리를 떠난 처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뒤로는 烏鵲山이 자리하고, 앞으로는 天民川이 흐르던 아름다운 企齋를 버려두고 宦路에 올랐다고 읊고 있다. 頷聯에서는 바쁜 공무로 여가를 즐길 틈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조정에서 맡은 사명에 충실하느라 자연 경관을 완상하고 집안 식구들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歸去來할 의지는 없다는 사실을 頸聯을 통해서 확실히 한다. 비록 공무로 바쁘더라도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속의 시끄러움은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 사는 곳에 초막 짓고 살아도 거마 소리 시끄럽게 들리지 않네 묻노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마음 속 세 떠나면 땅도 절로 외지네[結廬在人境 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 心遠地自偏]”<sup>248)</sup>라고 한 도연명의 말처럼 세상 속에 어울려 살면서도 속세를 떠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尾聯에서는 『莊子』, 「逍遙遊」의 고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중략) 박씨를 심었더니 자라서 다섯 섬들이 박이 열

247)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397c면, 「季夏晦前一日 移寓南山權相(攬)舊第 仁卿用前韻求和 卽事酬復」

248) 陶潛, 『陶淵明集』 卷3, 「飲酒」 其五 中 1句-4句.

렸습니다. 그 박에 물이나 장을 넣어 보니 물러서 들 수가 없었고, 쪼개어 바가지  
를 만들어 보았지만 크게 넓기만 해서 쓸모가 없었습니다. 크기만 하고 쓸 데가 없  
어 부수어 버렸습니다.” 장자가 말했다. “선생께서는 큰 것을 쓰는 방법이 서투십  
니다. (중략) 지금 당신에게 다섯 섬들이 큰 박이 있다면 어째서 그것을 배로 삼아  
강호에 띄워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것이 평퍼짐하여 쓸 곳이  
없다고 탓하고 있으니 선생의 마음이 트이지 못한 것입니다.”<sup>249)</sup>

장자는 혜자의 박에 대해 논하기 위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었으니 바로 손  
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sup>250)</sup> 같은 처방을 숨  
을 빠는 데 쓰면 손이 트는 것만 막지만 수증전에 사용하면 땅을 봉해 받게  
된다. 곧 같은 대상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혜자의 五石 박도 쓸모없지 않으니 배로 만들어 강호에 띄우면  
유유자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광한은 시를 통해 이러한 莊周를  
도리어 비웃는다. 다섯 섬들이 박으로는 술을 마시며 즐기면 될 일인데 공연히  
큰 배를 만들어 강호에 띄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신광한의 현실적 감각  
이 드러나는 대목이니 그가 은일자로 세상을 피해 사는 삶보다는 관료로서 현  
실과 부딪혀 나가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실을 극명하게 露呈하고 있다.

吾守駱峯老	나는 낙봉 지키며 늙어가는데
僧看無盡山	스님은 끝없는 산 바라본다오
欲知仁者樂	어진 이가 좋아함을 알려 하는가
心靜是真閑	마음이 고요한게 참된 여유라

249) 『莊子』, 「逍遙遊」, “惠子謂莊子曰……我樹之 成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自舉也 剖之以  
爲瓢 則瓠落無所容 非不喟然大也 吾爲其無用而捨之 莊子曰 夫子固拙於用大矣……今子有五  
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 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容 則夫子猶有蓬之心也夫。”

250) 『莊子』, 「逍遙遊」, “宋人有善爲不龜手之藥者 世世以洴澼絖爲事 客聞之 請買其方百金 聚族  
而謀曰 我世世爲洴澼絖 不過數金 今一朝而鬻技百金 請與之 客得之以說吳王 越有難 吳王使  
之將 冬與越人水戰大敗 越人裂地而封之 能不龜手一也 或以封 或不免於洴澼絖 則所用之異也”

爾自山中出      그대는 산 속에서 나왔으니까  
 見山還愛山      산 보며 산을 더욱 좋아했겠지  
 吾山不在僻      나의 산은 외진 곳 있지 않아도  
 忙裏亦常閑      바쁜 중에 또한 항상 한가롭다오<sup>251)</sup>

이 시 또한 신광한의 은거 지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속세와 떨어져 사는 스님과 세속에 묻혀 지내는 신광한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山이다. 그러나 같은 산이라고 하더라도 스님이 좋아하는 산과 신광한이 좋아하는 산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스님이 좋아하는 산은 자연 그대로의 산을 말하는 것으로 스님은 그 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신광한이 좋아하는 산은 수양을 하기 위한 대상물로서의 산이다. 『論語』에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니 고요하다.’<sup>252)</sup>라고 한 것처럼 신광한은 산을 통해서 마음을 수양하고 고요함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광한에게 산은 꼭 실재하지 않아도 그 상징적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나의 산은 외진 곳 있지 않아도 바쁜 중에 또한 항상 한가롭다오[吾山不在僻 忙裏亦常閑]”라는 표현이 그의 은거 지향은 속세를 피해사는 낙향이 아니라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양의 삶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화초에 대한 애호양상에서도 드러난다. 복직 후 신광한에게서 보이는 자연에의 회귀 의식과 맞물려 주목할만한 것은 화초에 대한 애호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1546년(명종 1) 5월 3일 駝駱山 아래에 暴泉精舍를 낙성하였는데, 暴泉精舍는 화려한 외관을 갖추는 대신 정사의 안은 서책으로 채우고, 정사의 밖은 화초로 둘렀다고 한다.

만년에는 서울 동쪽 성안의 타락산 아래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서까래와 기둥을 채색하여 꾸미지 않고 다만 서적만을 수장하였다. 골짜기가 깊고도 아름다워

251) 申光漢, 『企齋集』 卷9, 334d면, 「次韻贈一見上人」

252) 『論語』, 「雍也」, “子曰 知者樂水 仁者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자연의 절경이 있었다. 封君 된 이후로는 업무에 여가가 많게 되자 두 아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그 곳에서 시를 읊조리되 좋은 구절을 얻으면 문득 종이에 옮겨가며 한가로움을 즐겼다.<sup>253)</sup>

만년에 駱峯의 서쪽 기슭에 터를 골라 집을 지었는데 겨우 추위나 더위를 가릴 정도였다. 精舍 하나를 지어 그림과 책으로 채우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는 날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이에서 시를 읊었다.<sup>254)</sup>

신광한은 그의 시 속에 유달리 화초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 화초에 대한 강한 愛好를 가지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화초를 소재로 하여 많은 영물시를 지었던 것이다. 이것은 번다한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완상하는 여유를 포기하지 않았던 당대 문인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신광한 개인의 화초 애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소설 「安憑夢遊錄」에서 시도하고 있는 화초의 의인화 역시 신광한의 이와 같은 생활 패턴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栽桃種竹滿山園	복숭아꽃 대나무 정원 가득 심었는데
春日携家出郭門	봄날에 가솔 끌고 성문 밖에 나와있네
爛熳紅應今結子	흐드러진 붉은 꽃들 열매 한창 맺었겠고
交加翠亦已生孫	푸른 빛도 어우러져 竹孫 이미 생겼으리
莎階雨菊荒深沒	잔디 뜰에 젖은 국화 황폐하게 시들테니
石谷風泉靜更喧	바위 골짜기 샘 소리만 고요 속에 요란하리
回首駱峯猶避癘	병 때문에 떠나와서 머리 돌려 낙봉 그려
最憐齋裏尚留罇	두고 와서 아쉬운건 되려 묵은 술동일세 <sup>255)</sup>

253) 申光漢, 『企齋集』 卷14, 374a면, 趙士秀 「文簡公行狀」, “晚家國東園駱山下 無綵椽丹桷 僅藏書史 洞壑奇邃 有林泉之勝 自封君後 官事多暇 率二子曰哦詩其中 得句輒寫 怡養閑情”

254) 申光漢, 『企齋集』 卷14, 384c면, 洪暹 「卒推誠定難衛社功臣輔國崇祿大夫靈城府院君兼領經筵知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贈諡文簡申公墓誌銘」, “晚卜駱峯西麓 治第僅疇寒暑 構一精舍 實以圖書 植以松竹 日携諸子 吟嘯其間”

255) 申光漢, 『企齋集』 卷9, 338d면, 「夏日 避病西城外 憶駱洞企齋 寓詠以示仁卿」 其一.

이 시는 절친했던 仁卿[金益壽]의 시에 답한 것이다. 당시 장안에 역병이 있어서 본거지를 버리고 임시 거처로 몸을 피해 있으면서 지은 시로 보인다. 같은 운으로 쓰인 다른 시<sup>256)</sup>를 참고할 때 이 때 신광한은 權攬(1416-1465)의 고택에 머물렀었다. 당시 그곳은 權攬의 高孫인 權詠(?-?)이 지키고 있었으니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세월의 무상감과 나그네로서의 客愁를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이 많아진 신광한은 이곳에서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여 여흥 원형리를 생각하며 “오압산 속 한가운데 옛 정원이 있었는데 관직 길에 나오느라 사립문은 닫혀있네[烏鴨山中是故園 一來遊宦閉柴門]”라고 읊었으며, 병 때문에 잠시 떠나온 낙봉의 풍광을 그리워하여 위와 같은 시를 지은 것이다.

게다가 음력 6월 29일, 여름이 다 가고 가을이 닥쳐오는 시기였다. 이 곳에서 신광한을 안달하게 하는 것은 한창 제 빛깔을 뽐내고 있을 마당에 심은 화초들이다. 정원 가득 심은 복숭아꽃은 흐드러지게 붉을 테고 대나무는 죽손을 뺏으며 한껏 푸를텐데 그 절경을 감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신이 돌아갈 때가 되면 늦게 피어 가을까지 버티는 국화마저도 시들어서 떨어져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 풍류를 잃어가고 있을 집을 떠올리자니 적막한 속 계곡 물 소리만 들어야할 훗날이 예상되어 상심하고 있다.

南鄉佳樹到長安	남쪽 고을 좋은 나무 서울까지 닿았는데
歲久枝柯且屈盤	오랜 세월 나뭇가진 구불구불 휘었구나
花事故應侵夏晚	꽃 구경 실컷 하라 여름까지 견뎌내고
芳心肯許妬春寒	꽃망울은 봄 샘내는 추위마저 허락했네
光連白日紅方退	백일 동안 <sup>257)</sup> 빛이 나던 붉은 색 막 얼어지면
節趁重陽菊與斑	중양 절기 다가와서 국화색과 섞이겠네

256)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397c면, 「季夏晦前一日 移寓南山權相(攬)舊第 仁卿用前韻求和 卽事酬復」. 본고 128-129면 참조.

257) 문맥과 대우를 따져보았을 때 ‘白日’은 ‘百日’이라고 생각된다.

駱洞小園偏寂寞    타락산골 작은 정원 적막하게 외졌으니  
 天工留作主人看    조물주가 남긴 솜씨 이 주인만 맛본다오<sup>258)</sup>

백일홍을 읊은 시이다. 『企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시들을 통해 볼 때, 신광한의 백일홍에 대한 애호는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백일홍이 서울에서 구하기 어려운 名花였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래서 “나의 정원에는 名花를 심지 않았다. 오직 백일홍 하나가 있었는데 황폐한 섬들에서 오랫동안 자라는 걸 사랑하였다.”<sup>259)</sup>라고 그 偏愛를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李鈺(1760-1815)의 『白雲筆』, 「談花」를 보면 “동백·치자·영산홍·백일홍·종려·왜척족·유자 같은 종류는 남방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등짐으로 저서 배로 운송하여 權貴家の 문전에 대어주니, 장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sup>260)</sup>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화초 애호가로서 신광한 역시 그 희귀성에 매료되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백일홍을 어렵사리 얻어서 오랜기간 키우면서 그 애정을 더했던 것이다. 다른 꽃들 주춤하는 한여름을 견뎌내고 선달 열흘 붉은 빛을 자랑하는 백일홍은 신광한에게 오래도록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존재였다.

皤皤白髮主人翁    하얗게 머리 센 백발 주인 늙은이  
 曾見花開七月中    7월 중에 벌써 꽃이 활짝 핀걸 보았었지  
 作客已經三十日    객이 되어 다니면서 나그네로 이미 한 달  
 還家猶帶舊時紅    집에 가면 꽃 여전히 예전처럼 빨강겠지<sup>261)</sup>

258) 申光漢, 『企齋集』 卷9, 338a면, 「詠園中百日紅」

259)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399b면, 「嘆百日紅枯樹」 夾註, “吾園 不植名花 只有百日紅一樹 愛其久賁荒階 今而且枯 寧不發嘆”

260) 이옥 지음·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完譯 李鈺全集』 卷3, 휴머니스트, 2009. 220면.; 李鈺, 『白雲筆』 上, 「談花」 筆之戊, “如冬栢 梔子 映山紅 百日紅 棕欄 倭躑躅 柚子之屬 南方之民 擔負船運 灌輸乎權貴之門 非市而可得者也.”

261) 申光漢, 『企齋集』 卷9, 334d면, 「詠百日紅」

백일홍은 잠시 떠나와 있을 때에도 하루하루 빛을 달리하여 주인을 안달하게 하는 여타의 꽃들과는 달리 그 여전함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화초 애호가인 신광한에게 백일홍이 가지는 특별함은 희귀성과 생명력에 기인한다. 특히 한 평생 ‘읽는’ 삶을 겪었던 작가에게 긴 생명력을 가진 백일홍은 심적 위로가 되는 존재였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백일홍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그 긴 생명력을 사랑하는 화초이지만 기후가 다른 서울 지역에서는 키우기에 만만한 식물이 아니었다. 姜希顔(1418-1465)의 『養花小錄』에 보이는 백일홍에 대한 기록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꽃은 중국에는 관공서 안에 많이 심었으므로 예전 문인들이 모두 그에 대한 작품을 지었다. 우리나라의 관공서에서는 이 꽃을 본 적이 없고 그저 작약 몇 그루만 있을 뿐이지만 오직 영남의 근해 지역의 관아와 촌락에는 이 꽃을 많이 심는다. 다만 바람과 기후가 중국보다 꽤 늦어서 5-6월에야 비로소 피고 7-8월이 되어야 멈춘다. 비단같이 아름답고 노을처럼 곱게 뜰을 흰히 비추고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한다. 풍격이 가장 유려하므로 도성 안 고관대작의 저택에도 많이들 정원에 심는데 높이가 한 길 남짓 되는 것도 있다. 근래 경상도 북쪽 지역이 바람과 기후가 매우 사나워서 거의 다 얼어 죽었는데 다행히 호사가들에 힘입어 겨우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 열에 한둘이니 매우 애석하다.<sup>262)</sup>

백일홍은 기후가 따뜻한 영남 근해 지역이 생장의 최적 조건지인 식물이었다. 하지만 고관대작의 저택에서 유행처럼 키우던 특권층의 애호 화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후에 민감하여 키우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신광한의 백일홍 역시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고 만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262) 강희안 저·이종묵 역해, 『양화소록(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316-317면, “此花在中朝多植省中 故古之文士 皆爲之賦詠 我國省院中 不會見此花 只有紅藥數朶耳 唯嶺南近海諸郡及村落 多植焉 但風氣差遲 五六月始開 至七八月乃歇 錦英霞艷 照映庭除 眩脫人目 風格最是流灑 都下公侯第宅中 亦多庭植樹 高有丈餘者 近因嶺北風氣嚴烈 凍死殆盡 幸賴好事者 將護僅得免死 十有一二耳 深可惜也”

공을 들였지만 결국 되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샘물 나눠 물 대주니 구름 외  
 려 젖어드나 누런 잎 속 죽은 마음 되돌리기 어렵구나[分泉曉注雲猶濕 黃裏  
 難回已死心]”<sup>263)</sup>라며 조바심을 내던 신광한은 결국 백일홍이 말라죽고 나자  
 몹시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冬寒腓衆卉	겨울 추위 온갖 꽃들 시들해지고
嘉樹亦同罹	아름다운 나무마저 병들었구나
尙愛槎牙樣	영성한 모양마저 아름다운건
寧思爛熳時	화려하게 꽃핀 때가 생각나서라
荒園添寂寞	거친 뜰에 적막함을 더하였으니
老病更支離	늙은 이 몸 쇠잔함도 깊어간다오
欲買新花艸	새 화초를 사다가 심고 싶어도
華奢事又遲	사치한 일이라서 머뭇거리네 <sup>264)</sup>

백일홍이 고사한 것을 작가의 쇠잔함과 곧바로 연결지으면서 그 안타까움  
 을 토로하고 있다. 신광한이 매료되었던 백일홍의 긴 생명력과 화려함은 여타  
 의 화초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백일홍을 새로 구입하여 곁에 두고 싶  
 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곧 백일홍을 키우는 일이 사치한 취미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욕심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  
 런 간절한 욕망을 이내 선비의식으로 자제하고 있는데 신광한의 화초를 대하  
 는 태도를 崇美的 觀點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에게 名  
 花 완상에 탐닉하는 사치한 취미와 名花를 갖고자 하는 소유욕이 없지는 않  
 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미적 추구만을 위해서 화초 가꾸기를 했던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갖가지 화초를 심어 뜰에 두고 그 속에서 消日한 것은 다양한  
 화초가 계절마다 보여주는 千態萬象이 풍부한 作詩 소재가 되었기 때문이며,

263) 申光漢, 『企齋集』 卷9, 341a면, 「愛百日紅枯樹 分泉久注 稍無生理 又詠一絕」 轉句·結句.

264)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399b면, 「嘆百日紅枯樹」

동시에 화초가 지닌 저마다의 특징과 풍격이 신광한 개인의 수양 도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화초와의 삶을 일상화하면서 그 속에서 문인과 학자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

①

手種東階竹	동쪽 섬돌 대나무 손수 심으니
閑乘細雨時	가랑비 오는 때에 한가롭도다
涼聲風邂逅	바람을 만나면 차갑게 울고
淸影月紛披	달 비치면 맑게 그림자 진다
可使吾無俗	나의 속된 기운을 없애주나니
還憐爾有醫	네가 가진 효능이 사랑스럽다
傳情空脈脈	전해오는 정 아득해 끝이 없으니
共保歲寒期	세한의 뜻 우리 함께 보전하세나 <sup>265)</sup>

②

爲菊還開徑	국화 위해 오히려 샛길 내었고
移根更斲荒	뿌리 옮겨 심으려 또 거친 땅 파네
方看柚葉綠	유자 잎 푸르름 막 보면서도
猶想亞枝黃	누런 가지 늘어질 것 생각하나니
不謂須餐蕊	꽃술 꼭 먹는다 말하지 말라
眞成要嗅香	진짜는 향내로 결정된다오
殷勤供晚節	은근히 만년 절개 함께 하려면
應在近重陽	중양절 응당 가까워야지 <sup>266)</sup>

③

埋盆先貯水	동이 묻어 물 먼저 저장하는 건
只爲種秋蓮	다만 가을 연꽃 심으려 해서네

265) 申光漢, 『企齋集』 卷1, 248b면, 「種竹」

266) 申光漢, 『企齋集』 卷1, 248b면, 「種菊」

蟠屈根初蟄      구불구불 비로소 뿌리 내려서  
 翩翻葉始拳      너울너울 연잎은 말려온다오  
 綠喧聞雨過      푸른 잎 비 소리에 찾아가보고  
 紅綻認香傳      붉은 꽃은 향내 따라 전해지겠지  
 要識濂溪趣      주림계(周濂溪) 흥취를 모조록 알아  
 時看霽月鮮      갠 달 아래 고운 꽃을 때때로 보네<sup>267)</sup>

대나무·국화·연꽃 심기를 소재로 하여 읊은 시들이다. 이 시들은 모두 『企齋集』 1권에 수록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초기작이 아닌 신광한의 복직 이후 서울 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라고 생각된다.<sup>268)</sup> 세 편의 시를 통해서 화초를 상대하고 있는 작가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화초를 완상하는 탐닉의 도구로만 삼았던 것이 아니라 각 화초가 지닌 매력을 세밀하게 살펴 그것을 자기 수양에 보태었던 것이다.

① 시의 頸聯에서는 蘇軾의 「於潛僧綠筠軒」 시를 연계하여 작가가 대나무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蘇軾의 “밥 먹을 때 고기가 없는 것은 괜찮지만, 사는 집에 대나무가 없어서는 곤란하지. 고기가 없으면 몸이 마를 뿐이지만, 대나무가 없으면 저속하게 된다오.[可使食無肉 不可居無竹 無肉令人瘦 無竹令人俗]”<sup>269)</sup>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의 속된 기운을 없애주는[可使吾無俗] 효능을 가진 대상물로서 대나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바람을 만나면 차갑게 울고 달 비치면 맑게 그림자 지는[涼聲風邂逅 淸影月紛披]” 대나무의 맑음과 추운 겨울을 알몸으로 버텨내는 그 절개를 사랑하는 것이다.

② 시에서는 隱逸을 상징하는 꽃인 국화를 소재로 하면서도 그 은일의 이미지보다는 傲霜孤節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頷聯에서 유자 잎이

267) 申光漢, 『企齋集』 卷1, 248b면, 「種蓮」

268) 시의 夾註에 “위에 적은 세 편 시를 예조참판 송미수[宋麟壽]와 참의 조계임[趙士秀]에게 부쳐서 화답을 구한다.[錄上三律 寄南宮宋參判眉叟 趙參議季任 求和]”라고 되어 있다. 송인수는 1539년 2월 28일 예조참판에 제수되었으며, 참의 조사수에 대한 기록이 『中宗實錄』, 「1541年 6月 19日條」에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作詩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269) 蘇軾, 『東坡全集』 卷4, 「於潛僧綠筠軒」, 1句-4句.

지금은 파랗게 한창이지만 가을 되면 시들 것이니 만년절개는 모름지기 국화와 함께 해야 함을 이야기 하면서 서리 속에서도 그 향을 잃지 않는 국화를 통해 곳곳한 선비의식을 되새기고 있다. 頸聯은 屈原이 「離騷經」에서 “아침엔 목란에 떨어진 이슬을 마시고, 저녁엔 가을 국화의 떨어진 꽃잎을 먹는다.[朝飲木蘭之墜露兮 夕餐秋菊之落英]”고 한 것을 빌어 쓰고 있다. 屈原은 이를 통해 “진정 이 마음 곱게만 간직하면 배고픈 것 쯤이야 뭐 서럽겠는가[苟余情其信姱以練要兮 長顛頷亦何傷]”를 말하고 있는데 신광한은 국화의 참된 것은 그 향기[嗅香]에 있으니 굳이 먹지 않아도 그 참됨을 완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 속에 묻혀 살면서 속세를 등지지 않아도 자연물의 완상을 통해 청정한 마음으로의 수양이 가능하다는 신광한의 의식을 반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③ 시에는 尾聯에서 신광한이 연꽃을 사모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바로 연꽃이 周敦頤가 「愛蓮說」을 통해서 말한 군자의 꽃이기 때문이다. “진흙에서 나왔으며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겼으나 오염하지 않은[出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연꽃의 특성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즉 다양한 인간 군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수양에 매진하는 것이다.

위의 시 작품들을 통해서 신광한이 화초의 고결하고 맑은 흥취를 중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신광한의 화초 애호 양상은 여타의 선비들이 그러했듯 화초를 통해 선비의식을 견지하고 수양의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그는 崇美的인 성향 또한 함께 지니고 있었다. 다소 사치스럽다는 物議를 무릅쓰고서라도 名花를 완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고 있으니 이를 통해 꽃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탐닉 또한 강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IV. 申光漢 文學의 官人文學的 性格

조선조 사대부 문학의 주체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하나는 외향적으로 사물의 실태와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경우요, 다른 하나는 내향적으로 심적 상태와 미적 감흥을 표출하는 경우이다.<sup>270)</sup> 신광한의 관인문학적인 성격을 살펴보는 과정은 전자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주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우선, 신광한의 詠史詩를 통해서 官人으로서 그가 가졌던 역사인식을 살펴본다. 시 속에 詠史, 懷古의 소재를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신광한보다 앞선 시기를 살았던 일군의 신진 지식인들, 이른바 成宗朝의 新進士類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성종조 신진사류들의 영사시에는 전대의 역사나 문물을 적극적으로 포폄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다는 것과 역사문물의 회고 속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심각한 寓意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sup>271)</sup> 신광한의 영사시의 특징적인 면모를 추출해내고 전대의 新進士類의 영사시가 가졌던 공통적 양상과의 차별점을 밝히는 작업은 영사시 창작이라는 과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지향이 달라진 것이기에 주목할 만하다.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과 사건을 선별하여 그것을 시로 읊는 행위를 통해 신광한이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이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은 그의 관인의식이 어떠한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제로 관직을 수행하면서 지었던 使臣과의 창화시를 통해서 관료로서 그가 가졌던 대외인식을 살펴본다. 신광한은 복직 후 1539년(중종 3

270)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94면 참조.

271) 成宗朝 新進士類의 詠史詩에 관한 내용은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94-134면을 참조하였다.

4) · 1545년(인종 1) · 1546년(명종 1), 세 차례에 걸쳐 사신의 영접을 담당하였다. 사신과의 창화시를 살펴보는 작업은 신광한이 어떠한 외교의식을 지녔는가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중요하다. 특히 『皇華集』<sup>272)</sup>에는 明使의 작품도 함께 남아있으니 상호간의 입장을 살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 사신과의 창화시를 통해서 신광한이 관인으로서 지녔던 대외인식을 살피고 관료로서 그가 담당하려고 했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 1. 鑑戒的 詠史와 批判意識의 不在

역사와 문학은 오래전부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 중 詠史詩는 작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선별하여 시로 읊은 것이다. 역사를 詩的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일반시에 비해 서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의 詠史詩 창작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詠史라는 말은 漢代 班固의 「詠史」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詠史·史詩·歷史詩 등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신라·고려시대부터 역사를 읊은 시가 다수 창작되었으며, 문학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와 작품들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詠史詩’라는 영역을 확립하게 되었다.<sup>273)</sup> 특히 고려말에서 조선전기까지는 중국의 사실을 소재로 한 영사시가 발달하였는데 이 영사시들은 소재 선정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감계와 현실 비판을 의도하기도 하고 자기 성찰과 자아비판을 담고 있기도 하여 역사 사실을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의론을 펼치고 있다.<sup>274)</sup>

272) 『皇華集』, 靑雲文化史 影印 (영조 49년).

273) 김영숙, 「詠史詩의 概念과 작품의 實相」, 『東方漢文學』 第37輯, 동방한문학회, 2008, 12면 참조.

『企齋集』에는 「詠史」라는 詩題 아래 67수의 七言絶句가 連作되어 있다<sup>275)</sup>. 소제목들을 살펴보면 모두 중국 역대의 인물로 堯·舜·禹·湯·泰伯·文·武·周公·孔子·顔子·曾子·子思·孟子·周子·程子·程子·邵子·張子·朱子·啓·太甲·高宗·成王·康王·宣王·稷·工垂·契·皐陶·伯夷·夔·益·伊尹·傅說·呂望·諸葛·夷齊·微子·箕子·比干·許由·沮溺·四皓·兩生·嚴光·陶潛·陳搏·范蠡·莊周·荀卿·楊雄·韓愈·漢高·項羽·蕭何·曹參·張良·韓信·周勃·婁敬·狄梁公·皇英·陳皇后·明妃·寧國公主를 대상으로 한다. 그가 선별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영사의 대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양상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영사시는 史實에 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깃거리가 될 만한 배경을 지닌 역사적 인물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비해 신광한이 선별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정치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들 외에도 철학적으로 비중이 높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從來에 다루어지던 인물들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광한의 「詠史詩」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지어 정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선사시대부터 宋에 이르기까지 시기적으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역대 王·名臣·策士·思想家·文章家·隱逸者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적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심지어 여성까지도 그 대상에 넣고 있으니 임의로 어떤 기준을 대입할 때,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이 존재하게 된다. 더욱이 伯夷와 夷齊처럼 동일한 인물의 중첩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신광한의 詠史詩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와 같은 선별은 儒敎的 道統을 염두에 둔 선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sup>276)</sup> 儒敎的 道統만으로는 아우를 수 없는 다양한 人物群이 존재하니, 이 때문에 역사적 인물을 圖像으로 그린 병풍이나 화첩을 보고 쓴 것이라는 주장도

274) 심경호, 「韓國 漢詩와 歷史」, 『韓國漢詩研究』 1, 한국한시학회, 1993, 27면.

275)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1, 403a면, 「詠史」.

276) 류하영, 「申光漢 詠史詩 研究」, 『한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191면.

등장하게 되었다.<sup>277)</sup> 이렇듯 신광한이 人物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별하였는가에 대한 것은 異論이 존재하며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연작 영사시 전체를 一覽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꼽을 수 있는 특징은 해당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곧, 선정된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sup>278)</sup> 또한 해당 인물과 그 인물이 겪은 역사적 사실을 포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시 속에 드러나있지 않다. 다만 그 인물의 생애 및 업적을 사실 그대로 七言絶句로 집약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신광한보다 앞선 시기의 성종조 신진사류들이 영사시 창작을 통해 역사와 문명을 우회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당대 정치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졌던 것<sup>279)</sup>과는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신광한의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禹

唐虞禪代非天下	陶唐·有虞 선양은 천하가 아니었고
堯舜相傳只一心	요·순 임금 전한 것은 오직 마음 뿐이었네
與子與賢人豈間	자식이든 어진이든 사람 누구 무슨 상관
更留功績到如今	남긴 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전해지네

啓

歷數元來只在天	왕위 계승 원래 오직 하늘 손에 달려 있어
莫言大禹不傳賢	禹王 왕위 현인에게 안 전했다 말마시오
當時若未能承繼	당시에 아직 왕위 승계하지 않았건만

277) 심경호,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264면 참조.

278) 류하영은 「申光漢 詠史詩 研究」, 192면에서 신광한의 영사시를 이곡의 영사시와 비교하면서 “신광한이 대개 높이 평가하는 인물들을 읊은 데 반해 (이곡은) 폄하하려는 의도가 강한 인물들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였다.

279)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94면 참조.

萬國謳歌屬那邊 온 천하의 칭송 노래 그 주변에 다 모였네

소제목을 禹와 啓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왕위의 禪讓과 世襲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賢人이 이어받는 선양과 王子가 이어받는 세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왕위의 계승은 天命에 속하는 것이니 그 命을 받아 왕위에 오른 자가 왕된 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가 평생 전범으로 삼았던<sup>280)</sup> 孟子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되 우왕에 이르러 덕이 쇠하여 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었다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이 현자에게 주게 하면 현자에게 주고 하늘에게 자식에게 주게 하면 자식에게 주는 것이다. (중략) 순·우·익의 도움이 오래고 딸과 그 아들의 어질고 불초함이 다 천운이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함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天이요, 이르게 함이 없는데도 이르는 것은 命이다.<sup>281)</sup>”

『孟子』의 「萬章」에 나오는 내용이다. 堯→舜→禹로 이어지는 선양에는 王子의 不肖함과 賢臣들의 공적이 있었다. 그러나 禹→啓로 이어지는 세습에는 도리어 王子된 啓의 어질함이 있었고, 그 시일이 짧아서 賢臣인 益의 공적이 충분히 드러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으니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天命으로 인한 것이어서 人力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양과 세습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天命에 의해 王位에 오른 자가 왕된 자로서의 역할만 훌륭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하로서는 그 왕된 자를 잘 보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 또한 배어있다. 왕의 자질 문제는 신하된 자가 따질

280) 申光漢, 『企齋集』 卷14, 374a면, 「文簡公行狀」, “爲文必以韓孟爲範”

281) 『孟子』, 「萬章上」, “萬章問曰 人有言 至於禹而德衰 不傳於賢而傳於子 有諸 孟子曰 否 不然也 天與賢則與賢 天與子則與子……舜禹益相去久遠 其子之賢不肖 皆天也 非人之所能爲也 莫之爲而爲者 天也 莫之致而至者 命也”

것이 아니니 신하는 신하로서 임금을 聖君이 되도록 잘 보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太甲

一念操存是聖功      한마음 꼭 잡고 잃지 않는 것이 임금 공덕  
三年仁義自桐宮      삼년동안 仁義 공부 桐宮땅서 수양했네  
幾多今古人能始      고금 통해 몇 번이나 처음 시작 했던 사람  
輸與商王獨有終      되돌아가 商王 자리 유독 끝을 마쳤는가

伊尹

出處經權儘自任      出處·經道·權道 모두 자기 임무로 여겨서  
彝倫雖變帝應臨      몇몇한 도 비록 변해도 임금 응당 친히 찾네  
爭知莘野耕雲日      有莘 들서 농사 짓는 때를 어찌 알았는지  
還有君民經濟心      또한 임금 백성들을 구제할 맘 있었구나

임금의 자질을 따지기 전에 임금을 보필해야 하는 신하로서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은 太甲·伊尹 시에서도 나타난다. 太甲과 伊尹의 일 역시 『孟子』의 「萬章」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

태갑이 탕 임금의 제도와 규범을 파괴하였다. 이윤이 태갑을 桐땅에 3년간 추방하였다. 태갑이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스스로를 닦아서 桐에서 仁을 행하고 義를 따라가기를 3년동안 하면서 이윤의 가르침을 따르니 다시 亳 땅으로 돌아갔다.<sup>282)</sup>

太甲은 자질이 방탕하여 임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자 신하 伊尹에 의해 桐宮으로 내침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윤이 태갑을 내쳤던 것은 어디까

282) 『孟子』, 「萬章上」, “太甲 顛覆湯之典刑 伊尹放之於桐三年 太甲悔過自怨自艾 於桐處仁遷義 三年 以聽伊尹之訓已也 復歸于亳”

지나 그의 임금다움을 찾아주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왕위를 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윤은 “出處·經道·權道 모두 자기 임무로 여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과 처세를 고집하지 않고 賢臣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네 수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신광한의 詠史詩에는 대상 인물에 대한 작가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위에서는 신광한이 평소 전범으로 삼았던 『孟子』의 내용과 연관 지어 설명했지만 사실 일반 역사서에서 전하고 있는 공론화된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 않다. 신광한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평가를 그대로 따라 詩化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광한의 詠史詩 창작은 그 목적이 비판의식을 드러내어 施政을 논하고 개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에서 교훈이 될만한 인물과 사실을 발췌하여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 속에 함축해 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영사시는 일반적인 영사시가 갖는 비판적인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인물을 대표하는 史實의 핵심을 짚어내어 드러내는 설명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신광한은 역사적 사실을 七言絶句라는 字數의 제한을 가진 형식 속에 세련되게 함축하고자 하였으며, 그 詩的 대상은 작가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었으니 시를 접하는 자들에게 교훈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신광한의 「詠史」시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그가 적지 않은 은자들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둔의 입장에 처해 있다가 결국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인물들에 대해 작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면 그의 남다른 관인의식을 엿볼 수 있다.

諸葛

才高世晚草廬深      채주 높고 세상 어둔데 초가집 깊은 곳에  
日暮聊成梁甫吟      해 저물녘 그런대로 양보음을 읊조렸네

兩表忠言終不泯      충심 다한 두 출사표 마침내 남아있어  
至今猶見老臣心      지금까지 되려 늙은 신하 마음 볼 수 있네

諸葛亮은 <梁甫吟>이나 읊조리며 南陽隆中에 은거했었는데, 결국 蜀漢의 劉備를 섬기게 된다. 魏나라 땅을 되찾지 못하고 劉備가 죽자 諸葛亮은 그 유지를 받들어 위나라를 정벌하러 떠나면서 유비의 아들 劉禪에게 바친 글이 바로 「出師表」이다. 작가는 시를 통해 「출사표」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신하 제갈량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담겨 전한다고 말하고 있다. 시를 통해 제갈량의 공적에 대해 칭송한다거나 무리한 魏나라 정벌에 대해 비판한다거나 하는 작가의 판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은거하던 시기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의 삶을 함축해 놓았을 뿐이다. 다만 신광한이 「詠史」에서 선정하여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작가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물들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제갈량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이한 서술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만 그의 忠心に 대한 칭송이 기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광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문인 중에 沈彦光(1487-1540) 역시 「擬詠史」라는 제목 아래 중국 인물 40명을 다룬 七言絶句를 연작하고 있어서 비교해 볼만하다.<sup>283)</sup>

諸葛亮

鄴下繁雄作帝居      鄴땅은 번화하게 황제의 터 잡았는데  
區區庸蜀欲何如      구차하게 蜀땅에서 무엇을 하려 했나  
早知後主終賓魏      後主가 魏의 빈객 될 줄을 알았다면  
只合終身臥草廬      초가집에 누워서 일생 마침 함당했으리

魏나라의 도성 鄴은 이미 번성하여 안정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蜀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자조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後主 劉禪

283) 沈彦光, 『漁村集』 卷10, 222a면, 「擬詠史」. 沈彦光의 「擬詠史」에 대한 분석과 감상은 강지희, 「漁村 沈彦光의 詠史詩에 대한 一考察」, 『제3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학술자료집』, 2012. 12. 7.을 참고하였다.

이 魏나라로 항복할 줄 알았다더라면 차라리 은일자의 삶을 영위하는 편이 나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언광은 은거의 삶을 버리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인물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에는 작가 개인이 처한 현실의 차이가 개입되어 있다. 심언광의 「擬詠史」와 신광한의 「詠史」는 모두 만년작으로 보이는데<sup>284</sup>, 두 작가의 만년의 처지는 극명하게 달랐다. 심언광은 金安老를 조정에 끌어들이는 일로 인하여 삭탈관직을 당하고 불명예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擬詠史」를 지었으며, 신광한은 伸冤復職하여 다시 宦路에 들어선 상황에서 「詠史」를 지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두 작가의 상반된 처지가 동일한 대상의 역사적 사건을 이와 같이 사뭇 다른 어조로 읊게 한 것이다. 정치적 재기의 가능성이 좌절된 심언광은 진퇴의 문제에 있어서 은둔 끝에 현실정치에 참여하였지만 그다지 빛나지 못했거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경계하였고, 은둔을 지향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처지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긴 기간 정치적 재기에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활로를 모색해서 마침내 벼슬길에 들어선 신광한은 진퇴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은일자는 은일자대로 그 처세를 인정하고 또 은일하다가 현실정치에 참여한 자 역시 그 공적을 드러내어 서술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呂望을 다룬 시에서도 드러난다.

呂望

淸渭東流白髮垂      동쪽으로 맑은 위수에 백발을 드리우고

284) 강지희는 「漁村 沈彦光의 詠史詩에 대한 一考察」에서 심언광의 詠史詩는 '1538년 2월, 그가 파직되고 난 후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지은 저작인 『歸田錄』의 끝부분에 실려 있으니 만년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심경호는 「企齋 申光漢論」에서 신광한의 詠史詩에 대해 '창작시기를 比定하기 어렵지만 만년의 작인 듯하다.'고 밝히고 있다.

一竿誰見釣璜時      낚싯대로 꽤옥 낚던 사람 누가 보았던가  
 悠悠湖海多漁父      망망한 강과 바다 어부들 많았건만  
 不遇文王定不知      문왕을 못 만났음 알려지지 않았겠지

이 시에 대해서 許筠은 『國朝詩刪』에서 “생각이 매우 훌륭하다[極好思]”라고 하였으며, 洪萬宗은 『詩評補遺』에서 “옛 사람들은 시를 지을 때 結句에 정신이 배어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는데 이 시는 결구에 신묘함을 얻었다.”<sup>285)</sup>라고 소개하고 있다. 姜太公은 渭水에서 낚시를 하다가 文王을 만나서 발탁되고 천하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 인물이다. 신광한은 이 시를 통해서 바닷가에 세월 낚던 어부들이 많았지만 姜太公만이 文王을 만나서 세상에 드러났음을 읊고 있다. 이 시 역시 대상 인물에 대한 포폄은 드러나 있지 않고 姜太公과 文王이 만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많은 賢者들이 세상에 쓰이는가 쓰이지 못하는가는 자신을 알아보는 賢君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轉句와 結句를 통해 재치있게 표현하고 있다. 姜太公을 시적 대상으로 하여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인물에 대한 포폄이 아니라 賢人이 등용되는 과정 자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어 읽는 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게 하려는 그의 詠史詩 창작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太公

幾年箕穎擬風流      몇 년 동안 箕穎의 풍류를 흉내내더니  
 白首垂竿竟釣周      흰머리로 낚싯대 드리우고 마침내 周를 낚았네  
 未識渭川堪洗耳      渭川에서 귀를 씻을 수 있었을까 알 수 없지만  
 鷹揚牧野欲焉求      牧野에서 명성을 떨침은 무엇을 구하고자 함인가

심언광의 姜太公 시는 신광한의 시와는 그 어조를 확연하게 달리하고 있다.

285) 洪萬宗, 『詩評補遺』, “……古人作詩 最貴結句有精神 此兩詩 結得皆神妙”

起句에서는 ‘箕穎’이라는 詩語를 통해 渭水에서 낚시하던 姜太公을 결국 許由를 흉내낸 자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어지는 承句에서도 그의 낚시질 자체가 쓰임을 기다리는 방편이었음을 드러내면서 轉句에서는 許由가 潁水에서 귀를 씻은 것 같은 마음이 강태공에게도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시종일관 회의적인 입장으로 서술되던 語氣는 結句에까지 이어진다. 강태공이 큰 공을 세운 牧野의 전투에 대해서도 상찬하거나 그 공적을 기리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작가 나름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심언광의 詠史詩는 자신의 편안하지 못한 상황을 비판적인 어조로 영사시에 반영한 것으로 신광한의 영사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렇게 신광한의 영사시 안에 역사 대상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의 영사시만이 가지는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광한은 영사시 창작의 남다른 태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니 그는 영사시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거나 이상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니고 史實을 있는 그대로 세련되게 담아냄으로써 읽는 자로 하여금 간접적인 교훈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방대한 역사서를 두루 접하여 의미있는 사건들을 뽑아내고 그 사료를 七言絶句의 제한된 형식 안에 집약하여 담아내는 역할은 博識하며 文才를 지닌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그와 같은 역할을 신광한은 自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곧 다음에서 살펴볼 使臣과의 唱和詩가 자신의 文才를 나라 일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방식이라면 詠史詩의 창작은 그 문학적 역량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2. 使臣 唱和와 文才의 表出

孔子는 “시 삼백편을 외우고도 정치를 맡아 통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

을 보내어 능히 홀로 응대하지 못하면 비록 시를 많이 읽었다 해도 또한 무엇에 쓰겠느냐?”<sup>286</sup>)고 하였다. 공자가 『詩經』의 효용성을 주장한 이래 나라간의 외교에 있어서 詩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며, 따라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신이나 사신을 맞는 접반사들은 반드시 詩才를 인정받은 자들로 구성되었다. 양국을 대표하는 文士들은 상호간의 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의중을 탐색했으며, 막힘 없는 唱和 실력을 뽐냄으로써 자국의 높은 문화 수준을 경쟁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伸冤復職이 이루어진 후 신광한이 明使를 접대하면서 수장한 시작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신광한의 시 작품 세계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가 敍用되자마자 연이어<sup>287</sup>) 明使의 접대를 담당했던 이력은 그의 시문에 대한 동시대인의 인정을 입증하는 것<sup>288</sup>)이며 신광한의 文才가 외교를 담당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그가 지닌 외교술과 사장 능력은 그의 복직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企齋集』에 수록된 시 작품들 중에서 신광한의 외교술과 사장 능력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권11<sup>289</sup>)과 권12<sup>290</sup>)를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황화집』에 수록되어 있는 신광한의 작품들인데 접반 업무의 특성 明使의 先唱에 唱和하는 과정에서 지어진 시들로 대부분 次韻의 형식을 띠고 있다. 다음에서는 明使 장승헌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가 함께 수록되어

286) 『論語』, 「子路」, “子曰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 使於四方 不能專對 雖多 亦奚以爲”

287) 1539년(중종 34) 迎慰使, 1545년(인종 1) 遠接使. 1546년(명종 1)에 다시 원접사로 거론되었으나 신광한은 자신의 이름이 『황화집』에 실린 지 1년도 채 안되어 또 원접사를 맡을 경우, 중국에서 반드시 동방에 문사가 적다고 여길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임명하지 않을 것을 청하였다.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11月 13日條」 참고)

288) 『中宗實錄』, 「中宗 34年 2月 5日條」,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중략) 도사 선위사는 마땅히 문장을 잘하는 자로 삼아야 합니다. 대사간 신광한이 끝까지 잘 보좌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三公議啓曰 … 都司宣慰使, 宜以能文者爲之. 大司諫申光漢, 可以終始陪來矣.]”

289) 細主에 “嘉靖己亥春, 天使翰林侍讀華察·工科左給事中薛廷寵, 來詔來頒. 特遣公爲都司迎慰使, 代遠接使蘇世讓作”이라고 되어 있으니, 1539년(중종 34) 迎慰使로 파견되었을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모두 41題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290) 細主에 “嘉靖乙巳夏, 中宗大王賜諭賻祭. 天使行人司行人張承憲之來, 公爲遠接使, 酬唱之什.”라고 되어 있으니, 1545년(인종 1) 遠接使로 파견되었을 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모두 38題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있는 『황화집』<sup>291)</sup> 소재 작품들을 텍스트로 하여 明使 장승헌과의 교유 양상을 살펴보고 ‘글로써 나라를 빛낸다[以文華國]’는 생각을 확고히 지니고 있었던 신광한의 관인의식을 엿보기로 한다.

『황화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24차의 사행 중 기재 신광한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행은 모두 세 번이다.

<신광한이 참여한 사행>

回次	卷	年度	使行名	遠接使	明正使	明副使	編者
12	23-27	1539년 (중종 34)	頒冊立 皇太子 恭上皇 天上帝 恭號二 詔使	蘇世讓	華察	薛廷寵	成世昌
13	28	1545년 (인종 1)	賜諡使	申光漢	(郭王放) 292)	張承憲	鄭士龍
14	29	1546년 (명종 1)	賜諡使	鄭士龍	(劉遠)	王鶴	申光漢

신광한은 1539년(중종 34)에는 황제가 중종에게 내리는 尊號를 받든 사신을 영송하기 위한 迎慰使로, 1545년(인종 1)에는 중종의 승하를 위로하고 인종의 등극을 하례하러 온 사신의 遠接使로, 1546년(명종 1)에는 館伴使로 세 차례 사신의 영접을 담당한다.

291) 『皇華集』, 靑雲文化史 影印 (영조 49년). 본 장에서 인용하는 시들은 모두 『企齋集』에도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수창한 明使의 작품을 함께 살펴기 위해서 본 장에서만 元韻이 수록되어 있는 『皇華集』을 중심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

292) ( )로 표기한 것은 『皇華集』에 누락되어 있는 이름을 뜻한다. 당시 賜諡使로 太監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시문을 짓지 않아 『황화집』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人臣無外交의 원칙을 들어 조선 출신 환관으로 사절단을 구성하던 明은 잦은 교류를 통해 조선의 높은 문화 수준을 체감하게 되면서 頒登極詔使와 頒冊立皇太子詔使 등 중요한 외교문서를 가진 사신을 파견할 경우, 文官 중에서 엄선하여 보내기 시작했다.<sup>293)</sup> 이렇게 明에서 사절단으로 學行이 있는 관리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조선 측에서도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했다. 실제로 중국의 사신을 맞는 조선에서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사신과의 수창에서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었으므로, 이를 위해 遠接使 선발에 있어서 중국 측 사신에 필적할 수 있는 文藝를 갖춘 자의 등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1545년 신광한이 明使 張承憲의 원접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이미 62세였는데 그가 사직을 청하였으나 그에게 문예가 있음을 들어 윤택하지 않았다는 점<sup>294)</sup>만 보아도 당시 조정에서 遠接使 선발에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것은 신광한의 文才에 대한 당대의 인정과 신뢰가 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신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파견되는데, 조선의 일로 오는 경우는 환관이 왔으며, 중국의 일로 올 때는 문신이 오게 되어 있었다.<sup>295)</sup> 그러다가 조선 측 임금의 喪에 시호를 보내기 위해 파견되는 賜諡使의 경우 文官을 임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副使만 문관으로 임명하여 중국의 일과 그

293) 汪俊, 『使東日錄』, 『使東日錄序』, “조선은 중국과 가까워 (중략) 조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융숭하게 대우하여 오랑캐로 여기지 않았으니 그 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자 모두 翰林近臣으로 충당하였다.”

신대영은 성종23년(1492) 정사로 왔던 애박과 중종1년(1506)년 徐穆이 각기 15수, 7수의 시밖에 남기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이들의 文才가 조선에 비해 얼마나 처졌던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일이 있던 이후에 賜諡使를 제외한 正使는 모두 한림원 소속의 시독·검토·수찬 등으로 충당되었다는 점과 詩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을 들어 명에서 조선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申太永, 『皇華集』研究 - 文學의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34면. 참조.)

294)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9月 28日條』, “右參贊申光漢啓曰 小臣 本以庸劣之人 今爲大提學 臣自少有病 氣質昏暗 頓乏才藝 而今則年已衰老 前忘後失 一國文衡之任 老病之人 其何堪處 請遞 傳曰 在先朝 嘗聞卿文藝之名 大臣亦豈偶然計而啓哉 上下之情 皆以爲當 卿其勿辭 再啓 不允”

295)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韓國漢詩學會 第9회 學術大會 發表資料集』, 1999, 123면.

격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賜諡使로 文官을 파견하기 시작한 첫 사례로 조선통방을 밟은 이가 바로 張承憲이다. 장승헌 이후 연속 네 번<sup>296)</sup>에 걸쳐 弔祭副使로 文官이 파견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明에서 바라 본 조선 측의 지위가 그만큼 격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副使만 文官이 파견된 경우도 역시 그 수창한 시문을 엮어 『皇華集』을 발간하였다.

장승헌은 明나라 松江府 華亭縣 사람으로 字는 覽先, 號는 白灘이다. 吏部 給事中을 지냈으며, 1545년(인종 1) 弔祭副使의 신분으로 太監 郭王放과 함께 朝鮮에 와서 祭文·諡號·賻儀를 전달한 인물이다. 장승헌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나, 1554년(명종 9) 진사가 되었다는 기록이나 신광한을 어른으로 대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신광한과의 나이 차이는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 이듬해에 장승헌과 같은 弔祭副使의 신분으로 조선에 온 行人司 行人 王鶴의 나이가 30세였다는 점<sup>297)</sup>, 이후 방문했던 賜諡使 歐希稷도 신진 문관이었다는 점<sup>298)</sup> 등을 통해 賜諡使로 보내는 副使들은 모두 젊은 나이의 신진 문사들이었으며, 장승헌 역시 그러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弔祭副使로 파견된 이들은 모두 文官이기는 하나 아직 作詩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學行이 다듬어지지 못한 신진 관료들이었음이 여러 기록에서 산견된다.<sup>299)</sup> 이러한 점에서 신광한과 장승헌은 나이·언어·신분·학문 수준 등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문사가 만나서 서로 수창을 하다보면 그 문학적인 대결의식이 자연스럽게 표

296) 1545년(인종 1)의 張承憲·1546년(명종 1)의 王鶴·1568년(선조 1)의 歐希稷·1609년(광해군 1)의 熊化

297)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14日條」, “行人司行人王鶴代蕭一鴞 一鴞病也 鶴陝西長安人 甲辰年出身 年三十”

298) 『宣祖修正實錄』, 「宣修 1年 2月 1日條」, “歐希稷(新進文官) 性躁無威儀 事畢 卽發倍程而馳 沿路州郡 多以供帳不及得罪”

299) 『宣祖修正實錄』, 「宣修 1年 2月 1日條」, “歐與遠接使唱酬 而詩不成語”; 『明宗實錄』, 「明宗 卽位年 12月 14日條」, “鶴陝西長安人 甲辰年出身 年三十 性度溫雅 文章勝於張天使承憲”; 『仁宗實錄』, 「仁宗 1年 5月 2日條」, <史臣評>, “讀不忍觸先王之諱 在臣子之情 宜其爾也 而以君前臣名之言 必欲與之詰者 不可謂不知禮也”; 『仁宗 1年 5月 2日條』, <史臣評>, “以天使行私祭於外國 王放 宦者 其不知禮宜也 承憲牽於王放而亦行之 尚可謂知禮乎”

출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은 조선의 문사만이 갖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의 문사들 또한 중화의 체면을 지키려고 시 짓기에 골몰하였고, 사행이 끝난 후 조선에서 지었던 시 작품들이 고스란히 『황화집』으로 간행되어 본국에 유포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시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시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1539년(중종 34) 頒詔正使로 조선에 왔던 華察의 글을 통해 중국 사신들의 그러한 고민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황화집』은 이미 고사가 있으니 지금 감히 사양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사행은 기일이 매우 촉박하여 도중에서 우연히 지은 것도 모두 한때의 흥을 부친 것으로, 퇴고하지 못했고, 국 중에 이르러 5일 동안을 머물렀으나 어진 국왕과 여러 신하들의 예의가 은근하여 상견이 빈번했으므로 일각의 여가도 없었습니다. 간간이 연회할 때 수답한 시가 있었지만 이는 고마운 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 간단하게 지은 것이므로 전혀 글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간행하시고자 할 때에는 유식한 이에게 전일의 작품까지 교열을 시켜 다소나마 전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편을 뽑아 간행할 것이며, 배신들이 화답한 것 또한 선별해서 간행하여 피차 서로 어울리게 하십시오. 군자는 사람을 덕으로 사랑하고, 정밀할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많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sup>300)</sup>

翰林院侍讀 華察의 고민이 이러했다면 장승헌의 부담감이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몇 차례의 『황화집』이 간행되어 유포된 후 중국의 문사들은 즉흥적 作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조선의 사행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그곳의 승경지와 주변 경관에 대해서 학습했으며, 이전 사신의 시에 미리 차운을 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두 명에 불과한

300) 『中宗實錄』, 「中宗 34年 4月 16日條」, “皇華集錄 既有古事 今不敢辭 但此行甚迫 途中偶有所作 皆一時寓興 未敢推敲 比至國中 雖留五日 而賢王與諸臣 禮意殷勤 相見數數 無一刻之暇 間有燕娛之什 情不能已 草草塞白 肆不成章 若欲登梓 乞命識者 通前校過 擇其稍可傳者 刻數篇 其陪臣和章 亦宜選刻 彼此相體 君子 愛人以德 貴精不貴多也”

자신들과 수창할 조선의 문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중화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대비로 이해된다.<sup>301)</sup> 장승헌 역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황화집』에 실려 있는 39제의 시 중에서 차운시가 21제에 달한다. 이 중 시제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韻을 차운했는지가 밝혀져 있는 경우가 16제인데, 董越(1488년(성종19) 사행) 2제 · 龔用卿(1537년(중종32)) 9제 · 華察(1539년(중종34)) 2제 · 薛廷寵(1539년(중종34)) 3제이다. 장승헌이 오기 바로 직전 사행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시를 주로 차운한 것으로 보아 그가 오기 전 예비 창작 과정을 거쳤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승헌의 「義順館」 시에는 세주로 “이 아래로 「開城府 太平館」<sup>302)</sup>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들은 조칙을 반포하기 전에 지은 것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내보인 것이다.[此以下至開城府太平館諸作頒詔前所製而回程出示]”라는 글이 붙어 있으니 詩作을 한 후에도 조선의 문관들에게 내보이기 전 상당한 퇴고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皇華集』에 실려 있는 신광한과 장승헌과의 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개인적인 교류 양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개인적인 감회를 읊은 시보다는 주변 경관을 읊고 서로를 추앙하는 의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의 원인으로는 ① 두 사람의 많은 나이 차, ② 장승헌의 詩作에 대한 부담, ③ 짧은 체류 기간<sup>303)</sup>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皇華集』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신광한과 장승헌의 내면성을 엿본다거나 각 개인의 순수한 감성을 살피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119면.

302) 『皇華集』 卷4, 416면, 「開城府大平館次董先生韻」

303) 『仁宗實錄』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장승헌 일행이 일정을 서둘렀던 정황이 포착된다. (「仁宗 1年 4月 21日條」, “今天使期以念九入京 倍程馳突 置郵困頓 力不可支 非徒馬也 僕痛卒斃 慘不可忍 遠接使追從亦難”; 「仁宗 1年 4月 28日條」, “面語曰 速去可也 祭則以二十九日行之 臣答曰 且安可不擇吉日而行乎 五月初二日初四日行之可也 天使堅執不聽”) 이렇게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었기에 두 사람 사이에 별도로 사적인 자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자연스레 의례적 수창의 형식과 절차를 밟는 선에서 머물렀으리라 생각된다.

하고 『皇華集』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지어진 특수 문학으로서 양국 문사의 역사·의식·문학 의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체모를 지키고자 하는 관료의식의 발로와 개인의 자존심을 온전히 하려는 자부심의 표출은 『皇華集』의 작품들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러한 문사로서의 자부심과 관료로서의 책임감은 문장으로서 국가를 빛내고자 하는 以文華國의 양상으로 표출된다. 다음에서는 그와 같은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시·작품들을 살펴본다. 明使의 원운시와 신광한의 차운시를 함께 제시하되, 논의의 포커스는 신광한에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皇華集』에 실려 있는 시 작품을 지을 당시 신광한은 원접사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明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明使를 추앙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했다. 이러한 양상을 맹목적 사대주의의 발로라고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조선이 취했던 외교정책은 중국과는 事大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고, 그러한 국가의 외교노선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 관료로서 외교 수단인 시 작품 속에 사대성을 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신광한은 상대를 추어 올리는 데에만 급급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시 속에 자신의 생각들을 은근히 내비치면서 투철한 관료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曉發大同江午至黃州, 觀察使權君迎宴」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황화집』에 실려 있는 신광한의 시는 하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승헌의 先唱에 따른 차운시로 되어 있다.

(前略)

征鞍細逐朝光轉	나그네 말 아침 햇살 따라 걸음 옮기는데
望眼遙隨去路賒	저 멀리 내다보니 갈 길만 멀었도다.
東道主人能款洽	東道主人 정성으로 잘 대접해 주는지라
覽留歡賞不須嗟	잠시 멈춰 감상해도 애탈 것은 없으리라. <sup>304)</sup> [장승헌 作]

(前略)

應知到處尊皆酌      응당 알겠네. 곳곳마다 동이 채로 잔걸함을.  
莫問何村酒可賒      묻지 말라. 어느 마을에서 술을 샀는지를.  
歸作中和獻天子      돌아가면 「中和樂」 지어 천자에게 바치시오.  
北山寧賦獨賢嗟      「北山篇」 어찌 읊어 홀로 어찌 탄식하리.<sup>305)</sup> [신광한 作]

大同江을 출발하여 오후 무렵 黃州로 도착한 후 환영 잔치에 참석해서 지은 시이다. 두 수의 시 모두 首聯・頷聯에서는 대동강에서 황주로 이동하는 동안의 풍경을 읊고 있으므로 논의의 집중을 위해 생략하였다. 먼저 장승헌의 시에서 그는 황주에서 만난 관찰사의 후한 대접에 감사하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오늘 밤은 쉬어가며 즐기겠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화답한 신광한은 頸聯에서는 사신 행차를 반기느라 마을 곳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尾聯인데 「中和樂」과 「北山篇」을 들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唐 나라 때 昭義軍 節度使 王虔休가 지은 樂曲인 「中和樂」을 들어 황제의 덕이 두루 미침을 노래하고, 「北山篇」을 들어서 사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北山篇」은 『詩經』, 「小雅」의 편명으로 “넓은 하늘 아래가 임금 땅 아닌 곳이 없으며, 海内の 그 누군들 왕의 신하 아님이 없거늘, 대부가 평등하지 못한지라 나만 종사하게 하여 홀로 어질다 하노라.[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大夫不均 我從事獨賢]”라 하여 일의 분배가 공평하지 못해서 자신만 수고로워 부모 봉양을 마치지 못한다는 불평의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신광한은 장승헌에게 사행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황제의 넓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不平心을 갖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황제의 덕에 대한 칭송과 사신의 노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담아내는 동시에 공식적인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한다는 관료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304) 『皇華集』 卷4, 415면, 「曉發大同江午至黃州 觀察使權君迎宴」

305) 『皇華集』 卷4, 422면, 「次韻」

다음으로 「生陽館次雲岡韻, 酬華太史詩意」<sup>306)</sup>를 본다.

<次韻>

山形隨紀盡東來      산의 형세 기록대로 다 동쪽으로 향했는데  
賓館憑高戶牖開      높게 터 잡은 접대관은 창문 활짝 열려있다.  
妙句更看留玉訣      묘한 글귀 다시 봐도 귀한 비책 남겨 있고  
仙雲應爲護瓊臺      신선 구름 응당 화려한 대 보호하네.  
茶煎方丈眞三椹      달이는 차 방장산의 진짜 오랜 약초요  
魚薦松江亦四腮      올린 고기 또한 송강의 귀한 물고기라.  
(大同江, 一名松讓江. 대동강은 송양강이라고도 한다.)  
風物足稽天下士      경치는 천하 선비 붙잡기에 충분하니  
不妨移席坐蒼苔      자리 옮겨 푸른 이끼에 앉는대도 무방하리.<sup>307)</sup> [신광한 作]

首聯에서는 生陽館에서 바라보는 산세와 그 곳에 위치한 생양관을 그리고 있다. 頷聯에서는 이전 사행길에 이 곳을 지나갔던 龔用卿이나 華察 등 여러 사신들이 남겨둔 제영시들을 살펴보니 귀한 뜻을 모두 남겨두었고, 신선 구름 [仙雲]이 긴 세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있었음을 읊고 있다. 이 시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곳은 頸聯이다. 사신을 대접하기 위해 차와 음식을 내오는 정황을 읊고 있다. 丁若鏞의 「五葉亭歌」의 “세 가장귀 다섯 잎새는 본디 신선의 약초라[三椹五葉本仙草]”라는 구절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세 가장귀의 식물과 네 아가미를 가진 물고기는 모두 희귀성을 지닌 것들이니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頸聯은 표면적으로는 신선의 약초와 귀한 물고기를 바치는 것으로 사

306) 『皇華集』 卷4, 414면, 「生陽館次雲岡韻, 酬華太史詩意」, “만리 길 뗏목 타고 특별히 찾아왔으니, 기쁜 마음 응당 좋은 경치로 열려갓지. 시린 달 완상하며 맑은 통소 소리 듣고, 비긴 구름 꼭 끼고서 낚시터를 굽어본다. 세상 밖서 묘함 찾다 세상 맛을 맛보고, 바다 가서 옛일 돌아보며 시 읊기로 날 보내네. 알겠도다. 한림학사 시 읊었던 이 곳에, 아직 남은 발자국엔 녹색 이끼 찍혀있네.[萬里乘楫得得來 好懷端爲物華開 喜臨涼月聞清籟 健挾晴雲俯釣臺 物外搜奇嘗世味 海邊眺古費吟腮 亦知翰苑哦詩處 尚有鞵踪印綠苔]”[장승헌 作] 1539년(중종 34)에 頒詔正使로 왔던 翰林院侍讀 華察은 生陽館에서 蘇世讓과 교류하면서 「生陽館午餽次韻」이라는 시를 지었기에 生陽館에서 그의 자취를 밟아가며 시를 지은 것이다.

307) 『皇華集』 卷4, 422면, 「次韻」

신을 신선에 비유하면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귀한 물건이 나오는 이 장소, 곧 조선 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尾聯에서 주변 풍광이 모두 絶景이라 천하 선비들을 붙잡아 들만하니 이런 자연 속에 묻혀서 함께 즐기는 것도 좋으리라는 것으로 頸聯의 생각을 이어서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신광한은 明使를 신선에 비유하며, 그에게 귀한 음식을 정성 들여 바친다는 것으로 尊崇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의 약초와 물고기가 나는 나라, 조선에 대한 찬미의 뜻도 은연중에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적인 임무를 띠고 사신을 접대하고 있는 관료로서 明을 높이는 사대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自國의 위신을 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다. 이를 통해 신광한이 관료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주성과 사대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朝鮮往返卽事感懷」를 살펴본다. 모두 8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나,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본고에서는 其一・其二만을 인용하겠다.

其一

路入津亭第一程	나루터에 접어드니 첫 번째 노정인데
淺沙隄上候人迎	제방가 모래 뭍서 기다리며 맞이하네.
花明劔珮官儀肅	환한 꽃 사이 검과 패옥 위외가 엄숙하고
鷺潔衣裳色尙清	해오라기 깨끗해서 복색 더욱 정결하다.
進退將承殊有態	진퇴하며 받들어 모심 자못 자태 남다르고
語言噂沓只同聲	이야기가 쏟아지니 다만 소리 함께할 뿐
驩然道左填車騎	반기는 속 길 옆에는 수레 가득 메웠으니
倍見東人愛客情	동쪽사람 나그네 사랑하는 정 갑절이네. <sup>308)</sup> [장승헌 作]

308) 『皇華集』 卷4, 403면, 「朝鮮往返卽事感懷」

<次韻>

鴨綠江頭漢使程	압록강서 중국 사신 행차 길에 나아가서
東人重禮爲郊迎	동쪽 나라 두터운 예의 차려 들에서 맞아
詔從三殿頒藩服	황궁에서 조서 내려 먼 나라로 전달하러
星動孤槎下太淸	은하수에 돛배 띄워 하늘에서 내려왔네.
蔽日旌旗分野色	해를 가린 깃발들이 들판 경치 나누어 놓고
滿船簫鼓雜江聲	배에 가득 악기 소리 강물에 섞였구나.
皇恩極處翻垂淚	황제 은혜 극진해서 눈물 방울 흘날리니
誰識孤臣此日情	그 누가 외론 신하 오늘의 정 알겠는가? <sup>309)</sup> [신광한 作]

장승헌이 조선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감회를 읊은 시와 그에 차운한 신광한의 시이다. 첫 번째 수에서는 처음 明의 사행단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을 밟았을 때의 상황과 느낌을 서술하였다. 明나라 사신의 눈에 들어온 조선의 모습과 조선의 관료 눈에 들어온 사행단의 모습이 각각 시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장승헌의 시는 遠景에서 近景으로 시선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압록강을 건너 첫 여정을 시작하려는데 자신을 반기는 조선 관리들의 엄숙하고 절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頸聯과 尾聯에서는 시선을 좀 더 밀착시켜서 예의를 갖추어 자신을 대접함에 그 반기는 정이 두터움을 말하면서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도 사신 행렬에 대해 미화를 극대화하여 화답하고 있다. 首聯에서는 중국의 사신들을 두터운 예의를 차리고 맞이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明使행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頷聯에서는 “은하수에 돛배 띄워 하늘에서 내려왔네”라는 표현을 통해 사신 행렬을 신선에 비유하여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頸聯에서는 “分野色”·“雜江聲”의 표현을 통해 행렬의 성대함을 과장하여 적고 있다. 尾聯에서는 皇恩에 대한 감격의 뜻을 문면에 노출시키고 있다.

309) 『皇華集』 卷4, 406면, 「次韻」

其二

愛客曾聞九罭風	길손 아껴 「九罭篇」 부름 일찌기 들었었고
衣冠今見百年同	의관은 백년토록 한결같은 지금 또 보네.
春和語氣謙恭外	봄날 같은 말의 기운 공손함이 드러나고
肅穆儀容慘淡中	엄숙한 몸가짐은 슬픈 마음 품었어라.
弓劍先王嗟往日	활과 검 선왕 것이라 지난날이 애석하나
禮文昭代動皇衷	제도 문물 밝게 남아 황제 충심 움직이네.
使臣忝竊承王命	이 사신이 외람되이 황제 명을 받았으니
不惜千峰與萬峰	천봉우리 만봉우리 마다 앓고 달려왔네. [장승헌 作]

<次韻>

王化由來草上風	왕의 교화 풀 솔리는 바람처럼 교화 시켜
正看漸被萬邦同	모든 나라 차츰차츰 같아짐을 바로 보네.
東藩世職知無替	동쪽 변방 대대 직책 변함없음 알겠고
北極皇猷已建中	북쪽 끝 황제 교화 이미 중도 세워졌네.
元祀卽今優禮秩	큰 제사에 이제 옴은 예절 표시 뛰어나고
亶聰應爲記誠衷	임금님은 응당 정성 다한 충심을 기억해서지.
天涯涕淚悲弓劍	하늘 끝 눈물 흘려 활과 검을 슬퍼하니
回首橋山隔幾峰	고개 돌려 橋山까지 몇 봉우리 떨어졌다. [신광한 作]

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장승헌은 중종의 승하를 위로하고 인종의 등극을 하례하기 위해 파견된 弔祭副使였다. 장승헌의 시에서 『詩經』, 「豳風·九罭」을 인용하여 대접이 융숭함을 말하면서, 국왕의 崩御에 슬퍼하면서도 위의를 잃지 않는 모습을 칭찬하면서 먼 길 달려온 사신 개인의 수고로움이야 걱정할 게 못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조선에 찾아온 明使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황제의 은혜에 감읍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선왕의 죽음에 대한 슬픈 마음을 적고 있는데, 장승헌이 사용한 시어 “弓劍”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선왕이 사용하던 주인 잃은 활과 검이 슬프다는

표현을 통해 한 나라의 주인을 잃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其三에서 其八까지의 시들은 모두 사행로를 따라 이동하면서의 느낌을 읊은 시들이다. 상대에 대한 추앙의 뜻을 주고받으면서 고된 사행 일정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등한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데 모두 투철한 관료의식이 드러나 있는 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明에 대해 事大라는 외교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구도는 종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예민한 국제 외교 구도를 차치해 두고 문학적으로만 본다면, 조선의 문사들은 明使와 문장으로 대결해보고자 하는 내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대결의식의 기저에는 자신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能文者로 선발되었다는 자부심과 문명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자리하고 있었다.<sup>310)</sup>

「遊蕙秀山次雲岡太史韻」시를 보기로 한다. 이 시는 모두 26句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고시이다.

(前略)

紛紛今古經過者	분분하게 예나 지금 들러 가는 사람 중에
着眼何人愛奇峙	어떤 사람 우뚝함을 사랑했나 살펴보니
當年天上董詩仙	그 해에 하늘 가의 董詩仙[董越]이 내려와서

(中略)

牢籠物色入龜趺	모든 풍경 망라하여 거북 비석에 새겼으니
往事不許隨逝水	지나간 일 세월 따라 묻히는 걸 허락 않네.
尋聲覓句繼者誰	읊은 시구 찾아내어 이어줄 자 누구인가?
前龔後華同一指	앞뒤로 온 龔使·華使 한가지로 똑같구나.

(中略)

張仙自是乘槎後	張 신선이 뗏목 타고 이곳으로 온 후에
---------	-----------------------

310)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115-116면 참조.

定與湖山成永矢	강호와 더불어 굳은 맹세 이루었네.
登臨佳處意有會	좋은 곳에 올라가서 뜻이 함께 모이면
孤雉凌晨同澤雉	새벽까지 울어대니 늪지대 꿩 같구나.
遺璣墮珮雜瑟瑟	흩어져있는 구슬들이 어지러이 섞인 것을
收拾盈囊吾得已	주워 모아 주머니에 가득 차게 얻었을 뿐
蔥秀增高翠屏長	총수산(蔥秀山)은 더욱 높고 푸른 바위 끝없는데
更托貞珉留峻址	또 빗돌에 의지해서 높은 터에 남겨두니
東人世世服香名	해동 사람 대대토록 향기론 이름 들을꺼니
此名盡時山亦毀	이 이름 다할 때쯤 이 산 또한 무너지리. <sup>311)</sup> [신광한 作]

황해도 平山에 있는 葱秀山에서 노닐면서 적은 시이다. 생략한 부분은 모두 경관을 묘사한 부분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인용하였다. 고시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의 호흡으로 끈질기게 시상을 이어가는 작가의 능력이 돋보인다. 이 시에는 葱秀山을 거쳐 갔던 역대 사신들의 이름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1488년(성종 19)에 조선에 왔던 董越에서 시작하여 1537년(중종 32)의 龔用卿, 1539년(중종 34)의 華察을 거쳐 지금의 張承憲에서 맺고 있다. 시의 전반부에서 총수산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여러 사신들이 거쳐 갔는데, 동월이 사신 왔을 때 “모든 풍경 망라하여 거북 비석에 새겼으니” 바로 「蔥秀山碑」임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의 文才를 공용경과 화찰이 이어 받아 총수산을 제재로 시문을 남겼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지금 그 장소에서 장승헌과 함께 노닐고 있음을 말하면서 『莊子』, 「養生主」에 나오는 ‘늪지대 꿩[澤雉]’을 시어로 사용하여 날이 다하도록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유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흩어져있는 구슬들이 어지러이 섞인 것을, 주워 모아 주머니에 가득 차게 얻었을 뿐[遺璣墮珮雜瑟瑟, 收拾盈囊吾得已]”이라고 하여 이곳에서 읊은 시문들을 자신은 수습하기만 했을 뿐임을 말하며 겸양하고 있지만 내심 옥구슬에 비할 만한 시 짓기였음

311) 『皇華集』 卷4, 423면, 「次韻」

을 은연중에 자부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를 통해 장승헌에 대한 칭송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신분이 가지는 제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총수산을 대상으로 지은 시 한 수를 더 보기로 한다.<sup>312)</sup>

川源古竇西	물살은 옛길 따라 西로 흐르고
詣絕使人迷	절경이라 사람을 홀리는구나.
石老峰巒急	묵은 돌 산봉우리 깎아질렀고
雲參樹木齊	구름 낀 나무는 가지런하다.
徒然看面目	무심코 그 광경 바라보나니
誰復問高低	누가 우열을 따질 수 있나?
賴有皇華使	다행히도 중국 사신 있으니
留傳試品題	시험 삼아 품평을 남겨보련다. <sup>313)</sup> [신광한 作]

首聯과 頷聯에서는 총수산 절경의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우뚝우뚝한 기암 괴석들과 쪽쪽 뻗은 나무들이 총수산의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頸聯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작자는 무연히 할 말을 잃었다. 위대한 대자연 앞에서니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함축하여 제한된 字數로 표현해 낼 재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尾聯에서 다행히 뛰어난 文才를 지닌 중국 사신이 함께 있으니 그에게 의지해서 자신 또한 시를 지어보겠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것은 皇華使에 대한 칭송과 작자 스스로에 대한 겸양이 함께 표현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읊지 않고는 발길을 뗄 수 없다는 작자의 시적 자부심이 그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312) 장승헌의 시는 다음과 같다. 『皇華集』 卷4, 416면, 「遊葱秀山」, “해 저서 서쪽으로 넘어갔는데, 산 보는 마음은 미혹됨 없네. 돌린 숲 꽃 기운 맞들어지고, 나무 타는 새 울음 어우러졌네. 바위 틈 샘물은 졸졸 흐르고, 갈대교 나무터 나즈막하다. 오는 길 흥 아직 다하지 않아, 눈 비벼 옛 사람처럼 글을 짓는다.[落日已沉西 看山意不迷 轉林花氣合 攀樹鳥聲齊 石澗泉流細 葦橋渡處低 還因不盡興 摩眼昔人題]” [장승헌 作]

313) 『皇華集』 卷4, 424면, 「次韻」

가계에 대한 자부가 남달랐던 신광한은 접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1450년 (세종 32) 頒登極詔使로 왔던 倪謙을 館伴으로 수행했던 祖父 申叔舟의 文才와 道德을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 때문에 明使 장승헌이 조부에 대해 언급하자 즉각적으로 반가움을 표하게 된 것이다. 시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낮추며 겸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倪謙으로부터 知友로 인정받았던 신숙주의 文才를 은근하게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가계에 대한, 그 혈통을 이은 자신의 文才에 대한 자부를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다. 「奉別華亭副使大人」 竝序에 그 내용이 자세하다.

나의 조부인 申叔舟는 景泰 1년 館伴으로서 錢塘 倪學士[倪謙]를 모셨다. 조부는 중국어에 능통해서, 늘 예공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예공이 외국인 친구[外國友]로 인정해서 그와 함께 서신을 왕래하기를 삶을 마칠 때까지 끊지 않았다고 한다. 예공이 편찬했던 「遼海編」에 조부의 이름이 또한 들어 있다. 나는 비루한 사람이라, 조부에 비하자면 꼭 오합지졸 같은데도 오히려 華亭學士[張承憲]와 짝을 이루었으니, 욕되기가 매우 심하다. 그가 돌아갈 때에 오래 모신 신분으로 외람되어 이별의 말을 남겼다. 선조가 예공에게 인정을 받은 것을 끝어다가, 칭찬이 천한 나에게까지 미쳤으니,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 열 겹으로 소중한 간직하여 대대손손 보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면 곧바로 여러 종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조정의 신하들에게 자랑하리니, 영화롭기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고, 내려주심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후략)<sup>314)</sup>

예겸과 신숙주가 주고받은 시문들은 이미 『皇華集』으로 출간되어 중국에 널리 유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승헌은 사전에 신숙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먼저 조부의 함자를 거론하며 추앙의 뜻을 내비치자 겸

314) 『皇華集』 卷4, 425면, 「奉別華亭副使大人」, “光漢祖父叔舟 於景泰年初以館伴陪侍錢塘倪學士 祖父善華語 每與倪公從容開抱 倪公許以外國友 與之通信 終其世不絕云 倪公嘗撰遼海編祖父 名姓亦與存焉 光漢鄙人也 望祖正所謂蟻蜂 而猶得與華亭學士作伴 忝已甚矣 於其還也 以久侍 之分 辱留別語 盛引先祖父受知於倪公 褒及下賤 所不敢承當 非止十襲珍藏以爲子孫寶 歸卽示 諸宗黨 詫及朝中搢紳 榮莫甚焉 賜莫大焉……”

양의 뜻을 담아 답하면서 대대손손 가보로 삼을 영광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겸양의 표현 속에 자신의 가계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이어받은 자신의 文才에 대한 自尊 意識이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시는 모두 세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타 작품들과는 달리 이 시는 장승헌 시에 대한 차운시가 아니다. 사행을 마치고 압록강에서 헤어지기에 앞서 먼저 장승헌이 「江上與申吏曹長爲別」을 지어 이별의 아쉬움을 읊자 그에 대한 答詩 형태로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시들에 비해서 자유로운 글자 운용으로 아쉬운 마음을 한껏 드러내었다. 신광한 시를 보기에 앞서 장승헌의 시를 먼저 본다.

先朝學士才華甚	앞선 세대 학자들의 문재 매우 뛰어난데
爾祖賡歌相應成	너의 선조 화답시가 서로 응대 이루었네.
遼海一編今尚在	『遼海編』 한 편이 지금까지 전해지니
汎翁天下有遺名	汎翁[신숙주]은 천하에 그 이름 남겼구나.
搗來袞袞百年內	세월은 유유히 흘러 이어지기 백 년여 만에
君當妙選從余行	그대는 선발되어 나를 따라 다니네.
薄劣眞慚繼倪後	내 졸렬함 倪謙 뒤를 잇는 것이 부끄럽고
高明何忝纘家聲	(그대) 밝음 집안 명성 이음에 어찌 욕되리오.
熏人以德飲醇酒	덕으로 좋은 술을 마시니 얼큰해지고
贈我文字持瑤瓊	나에게 준 글들은 옥처럼 지니리라.
淵源君未盡底蘊	그대의 못 보여준 속 재주 깊을지니
魂夢我已馳神京	꿈에도 서울 가는 길 멈칫거리네.
南鴻北鴈各有意	남 기러기 북 기러기 제각기 뜻 품었는데
江流雲樹難爲情	흐르는 강 구름 나무 정 가누기 어렵도다.
惟應遲爾朝天使	너희 나라 조회 오는 사신만을 기다려서
寄以平安慰友生	평안 소식 부쳐 보내 친구를 위로하리. <sup>315)</sup>

315) 『皇華集』 卷4, 424면, 「江上與申吏曹長爲別」

1-4구에서 장승헌은 신광한의 조부인 신숙주를 언급하면서 그의 뛰어난 文才를 칭송하고 있다. 5-8구는 倪謙이 사신으로 와서 신숙주와 교류한 것이 1450년(세종 32)인데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1545년(인종 1)에 자신이 사신으로 와서 신광한과 만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예겸에게 부끄럽지만 신광한은 신숙주와 필적할 만하다며 한껏 추어올리고 있다. 9-12구에서 전별연에서 신광한이 지어준 시들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하며, 좀 더 긴 시간 그와 어울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다. 13-16구에서는 이제 헤어져서 돌아간다고 해도 그리워하는 정은 계속될 것이니 이후 왕래하는 사신들을 통해 서로 간 안부를 주고받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광한에 대한 인정과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7언 율시 세 수로 답하였다. 다음에서 「奉別華亭副使大人」<sup>316)</sup>의 其二와 其三을 살펴본다.

華亭山水擅江東	華亭府의 산수는 강동을 압도하고
天篤張家德業隆	총애 받는 장씨 집안 쌓은 덕이 성하도다.
黃石橋邊能隱忍	다리 위의 黃石公이라 숨죽여 참았고
賀循船裏且從容	배 안의 賀循 만나 또한 따라 나섰도다.
蓴鱸秋興非全敗	고향 생각 가을 흥취 다 버린 건 아니었고
帷幄奇功未盡逢	계책 세워 기묘한 공 다 맞은 건 아니었네.
丈夫出處關輕重	대장부는 출처할 때 경중을 잘 조절해서
平世經綸要在中	평생 동안 뜻 펼침을 中에 맞춰야 하네. <sup>317)</sup>

傾蓋相逢鴨水濱      비스듬히 수레 일산 압록강서 마주 대니

316) 林采明은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 73면에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이 시는 華亭 副使인 薛廷寵을 떠나보내며 지은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華亭은 장승헌이 松江府 華亭縣 사람이기에 칭한 것으로 華亭副使는 곧 華亭縣 사람 弔祭副使 장승헌을 말하는 것이다. 『황화집』 수록 次第나 시의 내용을 보아도 대상을 장승헌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는다.

317) 『皇華集』 卷4, 「奉別華亭副使大人」 其二.

鳳章龍節照青春      빛나는 황제 의장 푸른 봄을 비취준다.

崑山片玉非三別      崑崙산의 옥 한 조각 세 번 형벌 아니어도

淮海揚州是一人      淮海 물가 양주 땅엔 이 한 사람뿐이라네.

(崑山在華亭府, 府隸揚州. 곤륜산은 華亭府에 있는데, 揚州에 예속되어 있다.)

目擊便成青眼舊      직접 보니 문득 오랜 사이처럼 반가우니

心知寧似白頭新      마음 서로 통하는데 어찌 서먹함 있겠는가.

秋鴻社燕難謀久      가을 기러기 봄 제비 오래 있기 어려우니

欲賦緇衣淚滿巾      「緇衣篇」을 읊으면서 눈물 수건 적신다오.<sup>318)</sup>

첫 번째 시에서는 장승헌이 자신의 가계를 인정해 준 뜻을 이어서 신광한 역시 장씨 가문의 위대함을 주창하는 뜻을 펴고 있다. 특히 頤聯과 頸聯에서 적절한 고사를 절묘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신광한의 文才와 詩作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리 위의 黃石公에겐 참고 기다릴 수 있고[黃石橋邊能隱忍]”는 漢나라 張良을 이룬 것이다. 張良이 下邳의 다리 위에서 黃石公을 만나, 그의 신발을 다리 밑에서 주워다가 공손히 무릎 꿇고 앉아서 신겨 준 것을 인연으로, 황석공에게서 『太公兵法』을 받아 익혀, 훗날 漢高祖를 도와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배 안의 賀循이라 또한 따라 나섰도다.[賀循船裏且從容]”는 晉의 張翰을 이룬 것이다. 會稽의 賀循이 명을 받고 洛陽으로 가는 길에 吳의 閭門을 지나면서 배 안에서 거문고를 연주 하니, 장한이 초면에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마음이 맞아서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함께 배를 타고 낙양으로 간 것을 이른다. 頸聯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서 上句에서는 張翰이 洛陽에서 벼슬하다가 문득 고향의 순채국, 농어회 생각이 간절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吳郡으로 돌아간 고사를, 下句에서는 훗날 천하를 통일하는 공을 세운 張良도 이전에 韓나라의 司徒職을 맡는 시행착오를 범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尾聯에서 出處의 輕重을 잘 따져서 처신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앞서 신숙주를 문면

318) 『皇華集』 卷4, 「奉別華亭副使大人」 其三.

에 드러내어 褒揚했던 장승헌에 비해서 張良·張翰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그 집안의 뛰어난 재능을 칭송했으니, 신광한의 詩才가 장승헌보다 한 수 위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546년(명종 1) 賜諡使로 방문했던 王鶴이 장승헌의 『황화집』을 구해서 신광한이 지은 작품을 보고서 감탄하며 “장승헌이 압도를 당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는 기록<sup>319</sup>이 虛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시는 이별의 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제 헤어지려고 압록강 변에서 마주 서니 아쉬운 마음이 몰려오는 것이다. 頷聯에서는 和氏璧 고사를 활용하여 장승헌의 인물됨을 높이고 있다. 頸聯에서는 처음 본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 마음을 터놓은 사이처럼 반가운 눈[靑眼]이 되었고, 마음으로 서로 허여하니 서먹함은 없었다고 하여 지나온 사행 일정을 추억하고 있다. 尾聯에서는 “가을 기러기 봄 제비[秋鴻社燕]”를 들어 짧은 만남 끝에 곧바로 이별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詩經』, 「鄭風·緇衣」를 들어 賢士인 장승헌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이 역시 장승헌의 “惟應遲爾朝天使, 寄以平安慰友生”과 비교해 보면 시적 함축미를 잘 살리고 있는 시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신광한의 사환기에 행해졌던 明使와의 교류와 그 수창 양상의 일 단면을 살펴보았다. 신광한은 세 차례에 걸쳐 사신 접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그 중에서 1545년(인종 1)에 행해진 사행에 논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事大 관계를 유지한다는 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에 신광한과 장승헌은 대등한 처지가 아니었으며, 신광한은 종속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었다. 신광한은 明使에 대한 추앙의 뜻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관료로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예민한 국제 외교 구도를 차치하고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319) 申光漢, 『企齋集』 卷14, 374a면, 「文簡公行狀」, “鶴求見張天使皇華集 見公所作嘆曰 張天使見壓多矣”

장승헌 또한 대등한 위치에 놓일 수 없었다. 신광한과 장승헌은 나이와 문학적 역량에 있어서 뛰어 넘기 어려운 격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자간 대등하지 못한 처지는 편안한 관계 형성에 다소간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여기에 체류기간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시간적인 한계까지 더해져 신광한과 장승헌은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서로에 대한 사적 교감을 담아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 『皇華集』에 소재한 使臣과의 唱和詩에 주목한 것은 明使 접대는 신광한의 사환기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 기묘사화를 통해 정치적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 데에는 그의 외교술과 사장능력이 큰 배경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황화집』 수록 작품들은 비록 특수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신광한의 경우 자신의 작품 안에서 나라의 체모를 지키고자 하는 관료의식과 시인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키려는 시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기에 사환기의 그의 내면세계를 엿보는데 유의미한 연구 자료가 된다. 동시대인들로부터 문학적 역량을 인정받아 만년까지 접반 업무를 수행했던 신광한은 文士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신과의 창화시 창작에 골몰하였다. 그 결과 明使로부터 그 역량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祖父에 대한 인정과 칭송까지 받게 되었으니 明使와의 수창을 통해 신광한은 그가 지녔던 문장을 가지고 국가를 빛내고자 하는 以文華國의 관인의식을 한껏 드러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 V. 結論-文學史的 意義

본 장에서는 기재 신광한의 시에 대한 後代人들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가 가지는 문학사적인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용하는 시평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평가에 불과하지만 詩評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평가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시세계에 대한 문학적인 가치를 찾게 해줄 것이다.

許筠은 『惺叟詩話』에서 “신광한의 시는 매우 맑아서 고아한 정취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네 수<sup>320)</sup>의 시를 들어 “외울만 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맑고 시원하다[淸鬯]’는 評을 덧붙이고 있다.<sup>321)</sup> 任璟의 『玄湖瑣談』을 살펴보면 신광한이 成世昌에게 보낸 시에 대해 성세창이 “시가 진실로 청절하다.”<sup>322)</sup>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南龍翼은 『壺谷詩話』에서 조선에서 뛰어난 시인을 거론하면서 신광한을 “화미하고 빼어나다[葩秀]”<sup>323)</sup>고 평가하였으며, 洪萬宗의 『小華詩評』에서는 “맑고 밝다[淸亮]”<sup>324)</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여 보면 신광한 시에서 高評을 받고 있는 품격은 ‘맑음[淸]’에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기재시에는 총 217회에 걸쳐 ‘淸’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시의 13.4%를 차지하니 이러한 산술적 비중만 살펴더라도 淸의 감각이 신광한 한시에서 발휘하고 있는 시상에의 기여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325)</sup>

320)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434d면, 「廣津船上 望見三角山 有感」; 435c면, 「夜分後 雨霽 月色如畫 舟泊長灘荻花灣」; 卷5, 453c면, 「寒食後一日 過介峴金公(世弼)舊居 有感」; 454c면, 「三三日 寄茅洞朴大丘德璋 曾與虛谷李君坪村尹生 約爲三三九九之會 今者 虛谷有疫 坪村阻水 能繼此會者 獨茅洞在 偶成一律 以示之云」

321) 許筠, 『惺所覆韻稿』 卷25, 『惺叟詩話』, 363b면, “申駱峯詩 淸絕有雅趣……篇篇俱可誦(雖雄奇不逮湖老)而淸鬯過之”

322) 任璟, 『玄湖瑣談』, “申企齋光漢以詩名世 尤工七絕……寄送成遜齋世昌要和 遜齋以爲詩固淸絕……”

323) 南龍翼, 『壺谷詩話』, “本朝之尤者……申企齋光漢之葩秀……”

324) 洪萬宗, 『小華詩評』, “申企齋鄭湖陰一時齊名 兩家氣格不同 申詩淸亮 鄭詩雄奇……”

325)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연구』,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실천적 관료로 지향하다가 政爭에 휘말려 정치적 실각을 했던 신광한의 시에 대한 주된 평가가 ‘맑음[淸]’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의 시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아내거나 자신의 울분을 호소하는 방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서 시세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광한은 자신이 出·處 중에 어떤 입장에 놓여있던 지 간에 관료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문학세계에 ‘투철한 관인의식’을 담아내었다. 또한 詠史詩와 使臣 唱和詩를 통해 그가 생각한 관인으로서의 역할은 施政을 비판하여 개혁하려는 의지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文才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광한은 16세기 사림파들과 교류하면서 실천적 관료로서의 이상을 공유했지만, 政爭에 휘말리면서 급진적 개혁의 한계성을 몸소 체험했던 인물이다. 따라서 예민했던 당대의 현실과 정치적 재기를 향한 강한 의지는 결국 그로 하여금 현실 정치에 대한 냉정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文才를 드러내어 敍用의 기회를 엿보고, 궁극적으로 나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 정치적 좌절을 겪은 이후의 신광한의 관인 의식은 文才를 통해 국가를 빛내려는[以文華國] 의식으로 강하게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文才 표출 의지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시 작품 안에 어떤 사상이나 의식을 담아내기 보다는 고아한 시풍을 만들어내는 작품 창작, 말 그대로 높은 품격을 가진 세련되고 아름다운 시 짓기에 골몰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재 신광한이 일찍이 낮잠을 자다가 소나기가 화분에 심어 놓은 연꽃에 쏟아지자 잠을 깨고는 이런 시구를 얻었다. “꿈이 서늘하더니 연꽃에 비가 쏟아졌구나.” 그는 몇 년 동안 그 대구를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읊시를 한 수 지었으나, 초고에 그 행은 빈칸으로 남겨두어 반드시 기묘한 대구를 찾아 채우려고 하였다. 신광한이 朴蘭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하니 박란이 “옷이 젖으니 돌에는 구름이 일어난다.”

라는 구절로 알려주었으나 (신광한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도 이 구절의 대구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시인들이 시구를 찾는 부지런함이 이와 같았다.<sup>326)</sup>

宋나라 朱子가 『朱子語類』에서 “문장이라는 것은 모두 道로부터 흘러나오니 어찌 文에 도리어 道를 꿰뚫는 이치가 있겠는가? 文은 文이요, 道는 道이다. 문장은 단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곁들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만약 문장으로써 道를 꿰뚫는다면 도리어 근본을 말단으로 삼고 말단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옳은 것인가?”<sup>327)</sup>라고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당대 士林에게 문장의 조탁은 말단이며 부수적인 것이었다. 즉, 記誦詞章을 일삼는 무리들은 배격되어야 할 대상이었고 더이상 사림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못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신광한은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문장에 道가 있어야 한다는 당대 사림들의 의식적 지향과는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道를 담아내는 수단인 문장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것 역시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이다.

李睟光은 『芝峯類說』에서 “부자가 한 시대에 현달한 경우는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이지만 대를 이어 문장을 하는 자는 한 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申叔舟·申用漑·申光漢처럼 대를 이어 文衡을 담당한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하였다.<sup>328)</sup> 또한 洪萬宗은 『小華詩評』에서 申叔舟·申用漑·申光漢을 들어 “문장으로 문형을 담당하였으니 위대하다”<sup>329)</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그에 대한 평가는 道學者로서의 면모보다는 文章家로서의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것은 신광한이 가계에 기인한 문학적 전통에 대해 자부하였던 면모와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던 의식에 대해 後代人

326) 李濟臣, 『淸江詩話』, “申靈城企齋相公 嘗晝寢 因驟雨過盆荷而覺 得夢涼荷寫雨一句 數年未得真對 至於因作近律空其行 必欲覓奇對以充 見朴斯文蘭語及之 朴以衣濕石生雲 告企齋 曰非也 至於終身未得其偶云 詩人覓句之勤如此”

327) 朱熹, 『朱子語類』(四庫全書本) 卷139, “這文皆是從道中流出 豈有文反能貫道之理 文是文 道是道 文只如喫飯時下飯耳 若以文貫道 却是把本爲末 以末爲本 可乎”

328) 李睟光, 『芝峯類說』, “父子一時顯仕者 不可悉記 而世爲文章者 不過一二……本朝申叔舟之孫 用漑光漢 (成倪成世昌父子) 繼典文衡 可謂難矣”

329) 洪萬宗, 『小華詩評』, “保閑齋申叔舟 二樂亭用漑 企齋光漢祖孫三人 皆以文章典文衡 偉哉”

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광한은 지은 것이 있으면 신중호에게 보여주어 그의 시정을 받은 뒤에 세상에 내놓았다.<sup>330)</sup>

시작품 하나를 내놓을 때에도 사촌형 신중호에게 물어 質正했다는 내용은 신광한이 시를 지을 때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그는 시에 담기는 내용 못지 않게 그 시를 표출하는 방식 또한 중요시 했으며 그러한 섬세한 시 짓기 방식은 문학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리하여 그의 관인의식을 以文華國의 의식과 일맥상통하게 했던 것이다.

신광한과 교류했던 16세기 사림을 대표하는 조광조는 오직 도학을 위한 글만 남을 따름이고, 문학의 독자적인 의의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면서 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331)</sup> 이렇게 글 짓는 기교 보다는 글에 담겨야 하는 내용을 중시하던 16세기 사림과 문학의 분위기 속에서 신광한의 세련된 글쓰기 방식과 많은 시문의 창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광한 당대의 사림문학의 분위기가 시 창작 자체를 말단으로 치부하던 것과는 달리 이후의 사림과 문학에서는 載道之器 문학관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다양한 주제의 시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신광한은 15세기 후반 사장적인 색채가 농후했던 문풍이 도학적 문학으로 변모되어 가는 과도기를 거치면서도 세련된 문학창작의 기교를 잃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학 창작의 태도는 후대 사림과 문학의 다양한 방향성을 열어주었다는 데에서 그의 문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학적 위상을 지닌 신광한이 자신의 문집인 『기재집』에 남긴 다양한 개별 작품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시작품과 신광한의 의식세계를 연관 짓는 작업을 통해 己卯士禍 이후 신광한이

330) 尹根壽, 『月汀漫筆』, “申企齋凡有所作詩 輒示申直講 獲 得其是正 方以行於世”

3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0.

겪었던 복잡한 심리 상황의 곁을 읽어내고 그것이 문학 작품을 통해 어떠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16세기 관료의 고민과 그 고민을 표출해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들의 역할을 살펴계 되었으니 16세기 문학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형성될 것이다. 작가의 생애 및 당시 그들이 가졌던 정신적 갈등 양상, 처세술 등을 유기적으로 살펴 이 시기의 연구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1. 基本資料

申光漢, 『企齋集』, 『韓國文集叢刊』 22, 한국고전번역원.

申光漢, 『企齋記異』 (고려대 만송문고本).

『皇華集』, 靑雲文化史 影印 (영조 49년).

『論語』 『孟子』 『尙書』 『周易』 『莊子』 『史記』 『舊五代史』

『中庸章句』 『戰國策』 『朝鮮王朝實錄』 『大東野乘』

『新增東國輿地勝覽』 『江原道邑誌』 『利川市誌』 『世宗地理誌』

姜希孟, 『私淑齋集』, 『韓國文集叢刊』 12, 한국고전번역원.

奇 遵, 『德陽遺稿』, 『韓國文集叢刊』 25, 한국고전번역원.

金尙憲, 『淸陰集』, 『韓國文集叢刊』 77, 한국고전번역원.

金世弼, 『十淸軒集』, 『韓國文集叢刊』 18, 한국고전번역원.

金安國, 『慕齋集』, 『韓國文集叢刊』 20, 한국고전번역원.

金安老, 『希樂堂稿』, 『韓國文集叢刊』 21, 한국고전번역원.

金 淨, 『冲庵集』, 『韓國文集叢刊』 23, 한국고전번역원.

金弘郁, 『鶴洲集』, 『韓國文集叢刊』 102, 한국고전번역원.

徐居正, 『東文選』

沈彦光, 『漁村集』, 『韓國文集叢刊』 24, 한국고전번역원.

柳希春, 『眉巖日記草』

李 紆, 『陰崖集』, 『韓國文集叢刊』 21, 한국고전번역원.

李重煥, 『擇里志』

鄭夢周, 『圃隱集』, 『韓國文集叢刊』 5, 한국고전번역원.  
 鄭士龍, 『湖陰雜稿』, 『韓國文集叢刊』 25, 한국고전번역원.  
 趙寅永, 『雲石遺稿』, 『韓國文集叢刊』 299, 한국고전번역원.  
 許筠,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 74, 한국고전번역원.  
 歐陽修, 『文忠集』  
 陶 潛, 『陶淵明集』  
 邵 雍, 『擊壤集』.  
 邵 雍, 『皇極經世書』  
 朱熹, 『朱子語類』  
 朱熹·呂祖謙, 『近思錄』

## 2. 著書類

姜縵瑛, 「企齋 申光漢의 詩世界 考察」,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강지희, 「漁村 沈彦光의 詠史詩에 대한 一考察」, 『제3회 어촌 심언광 전국 학술세미나 학술자료집』, 2012. 12. 7.  
 강희안 저·이종묵 역해, 『양화소록(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아카넷, 2012.  
 김남기, 「『首尾吟』의 수용과 雜詠類 連作詩의 창작 양상—宋時烈과 金昌翁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29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2.  
 金德秀, 「朝鮮文士와 明使臣의 酬唱과 그 樣相」, 『韓國漢文學研究』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김 변, 「朝鮮 中宗代 歷史像의 특징과 그 의미」, 『韓國史學報』제17호, 2004..  
 김보미,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16世紀 作品을 中心으로-」, 홍익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성수, 「申光漢의 辭賦文學 -浪漫 追慕類-, 『漢文古典研究』 第13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 김영숙, 「詠史詩의 概念과 작품의 實相, 『東方漢文學』 第37輯, 동방한문학회, 2008.
- 김은정, 「朝鮮初期 事大外交와 『皇華集』 刊行에 대하여, 『韓國漢詩學會 제9회 學術大會 發表資料集』, 1999.
-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심경호 역,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 柳奇玉, 『申光漢의 企齋記異 研究』, 한국문화사, 1999.
- 류하영, 「申光漢 詠史詩 研究, 『한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 2009.
- 蘇在英, 「申光漢의 企齋記異, 『崇實語文』 3집, 崇實大學校國語國文學會, 1986.
- 蘇在英, 『企齋記異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0.
- 申太永, 「『皇華集』研究 - 文學的 交遊樣相과 明使의 朝鮮認識-, 성균관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심경호, 「韓國 漢詩와 歷史, 『韓國漢詩研究』 1, 한국한시학회, 1993.
- 沈慶昊,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太學社, 1999.
-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출판, 2002.
- 안휘준, 「韓國의 文人契會와 契會圖, 『韓國繪畫의 傳統』, 문예출판사, 1982.
- 吳賢淑, 「企齋 申光漢 詩世界 研究,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우응순, 「16세기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1집, 한국한문학회, 2002.
- 유호진, 「申光漢 詩에 나타난 상상력과 사유 방식, 『古典文學研究』 第38輯, 한국고전문학회, 2010.
- 尹采根,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 李秉然,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 一潮閣, 1984.

- 李勝洙, 「17세기 후반 지식인의 邵雍·陸九淵·陳亮 수용 양상 연구—拙修齋와 三淵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31호 4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이옥 지음·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기고 엮음, 『完譯 李鈺全集』 卷 3, 휴머니스트, 2009.
- 이월영, 「기몽시(記夢詩) 연구」, 『語文研究』 52, 語文研究學會, 2006.
-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 李昌壹, 『소강절의 철학—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 심산, 2007.
- 이창희, 「容齋 李荇의 題畫詩 小考」, 『어문논집』 38집, 민족어문학회, 1998.
- 이치수, 「陸遊詩研究」, 國立臺灣大學, 1990.
- 李泰鎮, 「고려-조선중기 천재지변과 天觀의 변천」, 『한국사상사 방법론』, 소화, 1997.
- 이효숙, 「17-18세기 노론계 문인의 소옹의 시문 수용 양상」, 『우리문학연구』 25집, 우리문학회, 2008.
- 林采明,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형택, 「李朝前期의 士大夫文學」.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 비평사, 1984.
- 장동수, 「경기 여주 팔대장림(八大長林) 복원계획」,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 鄭景柱, 『成宗朝 新進士類의 文學世界』, 法仁文化社, 1993.
- 鄭 珉, 「尤庵 先生 <首尾吟> 134수 管窺」, 『한국사상과 문화』 42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90.
- 조성문 편역,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
- 조성문,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 趙成山, 「17세기 후반 경기지역 西人 象數學風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115집, 한국사연구회, 2001.

- 拙稿, 「慕齋 金安國의 詩文學 研究 -그의 忠情詩를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第12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6.
- 拙稿,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拙稿, 「企齋 申光漢의 意識世界에 대한 一考察 - 邵雍 欽慕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學論集』 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 拙稿,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研究」, 『漢文古典研究』 16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 拙稿, 「『皇華集』을 통해 본 企齋 申光漢의 작가 의식 - 明使 張承憲과의 酬唱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研究』 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拙稿, 「기재 신광한의 작가의식에 대한 일고찰- 驪興 지역이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 『韓國漢文古典學會 2012學年度 夏季學術大會 發表 資料輯』, 한국한문고전학회, 2012.7.21.
- 최재남,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韓國漢詩研究』 16집, 한국한시학회, 2008.
- 홍순래, 『꿈으로 본 역사』, 중앙books, 2007.

## Abstract

### A Study on Gijae(企齋) Shin Gwanghan(申光漢)'s Literary Views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Bureaucrat Literature -

Son, yoo kyung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Gijae(企齋) Shin Gwanghan(申光漢) lived in Chosun(朝鮮) Middle Period from the 15th year of Seongjong(成宗)(1484) to the 10th year of Myeongjong(明宗)(1555). He grew up in the chaos due to the recurring political conflicts between Sarim Faction(士林派) and Hungu Faction(勳舊派). The political incident, Gimyo Sahwa(己卯士禍), one of the Literati Purges, had great influence on the bureaucrat scholars at that time. In the midst of the conflicts, Shin Gwanghan, who had lost his political footing, had to live in seclusion in Yeoheung(驪興) for 14 years.

This study addresses Gijae Shin Gwanghan's literary view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his bureaucrat literature. That is, it examines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Shin Gwanghan's literary works have in connection with his sense of being a bureaucrat,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his life. In his case, the reinstatement took a long time during the hard times, so the explicit sense of being a bureaucrat can be found only in his late works. However, his sense of calling as a bureaucrat is also prevalent in his works written during his juvenescent days and middle ages while

he was living in the country. In fact, this kind of sense is revealed in his perspective looking at nature.

The detailed research methods and i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looks at Shin Gwanghan's life story and his flexi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approach finds that Shin Gwanghan was able to survive the severe political conflicts by dint of his open and flexibl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literary works written after the Gimyo Sawha and breaks them down into three categories in order to have a close look at how his sense of being a bureaucrat is reflected in his works. In particular, it considers the changes in the major atmospheres of the poems and his perspectives toward nature to see the changes in his sense of being a bureaucrat. In addition, by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his living environments on his works, this study associates locality and literary works for a better analysis.

Lastly, this study determines the characteristics of bureaucrat literature unique to Shin Gwanghan.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focuses on his poems of history (poems that addresses history) and those of diplomacy in which his sense of being a bureaucrat is condensed so that it can present th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Shin Gwanghan's poems from other scholar-poets'. The analysis reveals his will to interpret history in the poems of history in a positive sense, not in a critical sense, while the poems of diplomacy has the poet's strong will to express his literary talents.

Through a thorough analysis on individual works and association with Shin Gwanghan's thoughts, this study taps into Shin Gwanghan's

sophisticated psychological conditions and traces how they are presented in literary works. Eventually, this study deals with the concerns of the 16th-century scholar-poets and the roles of literary devices they used, and it helps form a new perspective toward the 16th century literature. It is expected that studies on this period vary with the systematic examination of mental conflicts Shina Gwanghan had along with his art of living.